

선생님이 들려주는

화성 역사

저자 오겸



송실대학교에서 사학(史學)을 전공했다. 이후 대동여자중학교 역사 교사로 임용되어 교육과정을 거쳐 2024년 현재 교육정보부에 재직 중이다. 수도권 및 강원도 내 대학에 종종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활발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청소년 미디어와 횡성 지역의 향토사이다.

2023년 대동여자중학교 학생들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제1회 어울림 영상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제작을 기획하였다. 같은 해, 횡성군에서 주최하는 4·1 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횡성군민 만세운동'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횡성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역사에 흥미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 시간마다 수업 내용에 횡성 향토사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인 일러스트레이터 백지우



2022년 대동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 2024년 현재 강원애니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횡성 장애인식개선 공모전(포스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탁월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이 책에 수록된 표지와 일러스트 대부분을 그렸다. 미래에 유명한 3D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것이 꿈이다.

일러스트레이터 배시연



2021년 대동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 2024년 현재 횡성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24년 횡성 로컬매거진 1호 발간 작업에 에디터로 참여하여 인터뷰 및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제3장의 봉복사 전투 일러스트와 제 4장의 횡성군민 만세운동 지도 그림을 그렸다. 장래 희망은 광고 디렉터, 엔터 콘텐츠 PD이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오 겸



횡성문화원

발간사

지역사료자료 제42집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횡성역사』의 발간을 축하하며 오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 횡성군민의 뿌리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번 역사자료자료집은 횡성의 역사를 알아가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횡성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한국사의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대 순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상황과 흐름이 횡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과거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얹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대동여자중학교 오겸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횡성을 연구하고 사랑해오시며, 횡성에 대한 애정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대동여자중학교 졸업생들의 삽화가 책에 삽입되어 있어, 누구나 수월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어우러져 역사적 사실을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독자들이 횡성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열정과 지혜가 담긴 역사자료자료 제42집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애향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횡성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선조들과 연결된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역사자료자료 제42집이 애국의 고장 횡성의 역사적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횡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횡성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장 우 광 수

격려사

지역사료자료 제42집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을까! 횡성문화원의 보석 같은 자료집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겼을지,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오랜 시간, 횡성의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우광수 횡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역사자료자료집 발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역사는 어렵다, 지루하다는 편견 때문에 역사 공부를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겸 대동여자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들려줄 횡성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직접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참여한 일러스트 작업도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 횡성의 역사를 깊이 알고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횡성은 41 횡성군민만세운동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고장이자 의병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간 곳이며, 도내 최초의 국립묘지인 국립 횡성호국원이 들어설 애국의 고장입니다. 조상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횡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손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역할일 것입니다. 민선8기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과 함께 소중한 역사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적극 펼쳐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역사자료자료 제42집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우리 횡성의 빛나는 역사와 군민 모두의 가슴 뜨거운 오늘의 삶이 역사자료자료집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수 김 명 기

축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지역사료자료 제42집「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역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횡성문화원 우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자용어를 일상 용어로 대체하고 각주를 다는 등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해주신 오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횡성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횡성이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선조들은 어려운 시대적 격랑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선대들은 물론, 여러 마을의 향토사와 명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로 후세들에게 남겨 줄 뜻깊은 사료집이 지속적으로 집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료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장 표한상

축사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 횡성의 향토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문헌을 찾고 현지답사를 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심혈을 기울여 주신 大東女子中學校 오겸(吳謙) 역사 선생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멀고 아득한 옛날 옛적,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橫城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쌓이고 쌓이면서 오늘의 횡성이 탄생하고 또 발전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역사를 배워서 깨닫지 못하고, 역사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어려웠던 일이나 참혹했던 시련이 되풀이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횡성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횡성의 향토사를 통해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해 나가는 일은 오늘날 횡성에서 살아가는 우리 후예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횡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물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大東女子中學校 오겸 선생님에 의하여 횡성 역사의 중요한 지점들이 한 권의 단행본(單行本),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로 정리되어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횡성 향토사의 보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췌록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가 자랑스러운 횡성 향토사의 소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횡성군민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법인 대동여학원(대동여자중학교) 이사장 이 주 호

축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횡성 문화의 발전과 횡성 역사 연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광수 횡성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문화원의 노고로 찬란한 횡성의 역사와 삶이 기록으로 이어져 군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학교 업무와 학사일정으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집필에 애쓴 오겸 선생님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뿌리를 찾아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작게는 지역 사회, 넓게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역사 과목은 따분하고 지루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책이 암기 위주이고 어려운 한자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 시대의 삶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집중한다면 보다 재미있고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발간이 더욱 뜻깊습니다. 이 책은 역사를 잘 모르는 대중이나 청소년들도 횡성의 역사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특히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썼고, 다양한 그림·사진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보는 재미를 더 합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유서 깊고 찬란한 횡성의 역사와 문화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우리 대동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애국의 고장 횡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여자중학교장 김 형 중

들어가는 글

애국의 고장 횡성. 횡성은 우리나라 그 어떤 곳보다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의 6·25 전쟁까지 횡성만큼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역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를 통해 횡성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낀다.

횡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간 횡성문화원의 향토사료집 발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횡성문화원은 1983년부터 꾸준히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여 횡성의 의병 운동, 횡성군민 만세운동, 6·25전쟁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정리해 왔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집필은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횡성문화원의 연구 성과를 일부나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횡성문화원의 연구 성과물이 없었다면 애당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연구자들의 결과물에 손가락만 얹은 것 같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역사는 지루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아마도 역사 용어가 어렵고 외워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이 명제가 등장하게 된 책임은 나를 비롯한 역사 교사들에게 있지 않나 싶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가르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를 집필하며 횡성 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 쓰기 위해 노력했다. 횡성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횡성 역사에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우선 책을 기술하며 경어체와 구어체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한자 용어는 가능한 쉬운 일상 용어로 대체하였다. 대체할 수 없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에는 각주를 달아 보다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더불어 지루한 줄글을 이어 쓰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를 수록하고자 했다. 사진 및 그림과 함께 글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그려질 것이다. 이번 기

회를 빌려 이 책에 자료를 수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사진·그림·지도 등에 대한 저작권은 자료 하단에 기재해 두었다.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설명 위주의 글로 구성하였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내러티브(이야기) 서술 기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독자들이 옛날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책을 읽기를 바랐다.

책 중간에 수록되어 있는 일러스트는 대동여자중학교 졸업생이 그린 것이다. 백지우 학생과 배시연 학생이 본 작업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하였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그림을 그려준 백지우 학생과 배시연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장은 한국사의 큰 역사적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횡성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한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횡성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제1장에는 ‘횡성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1~2절에 횡성의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대해 먼저 서술하였고, 관련된 횡성의 유적과 유물을 함께 소개하였다. 이어서 3~4절에는 고조선 이야기와 더불어 횡성에 구전되는 태기왕 전설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장인 횡성 땅이 사실은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2장에는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와 횡성 풍수원성당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2절에는 먼저 한국 천주교의 탄생과 조선 정부의 박해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이 한국 천주교 박해의 큰 흐름 속에서 풍수원 공동체 형성과 성당 건물 건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3절에 풍수원 이야기를 적었다. 2장에서 눈물겨운 풍수원 공동체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수원성당 건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는 ‘의병 운동과 횡성’의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1~3절에 구한 말 의병 운동을 을미·을사·정미의병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 자랑스러운 횡성의 의병장들과 강림리·금대리 의병총 등 역사 유적을 함께 소개하였다. 구한 말 의병 운동의 중심지

였던 자랑스러운 황성 의병 이야기가 3장에서 펼쳐질 것이다.

제4장에는 ‘3·1운동과 황성군민 만세운동’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1~2절에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의 발생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3절에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준비·전개·결과(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4장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황성의 곳곳이 사실은 황성군민 만세운동이 펼쳐진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는 ‘6·25 전쟁과 황성 전투’ 이야기를 담았다. 황성 전투는 그간 공산군의 공격에 참패한 아픈 역사로 인식되어 왔다. 5장에서는 황성 전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황성 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4절에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 내용을 먼저 서술한 뒤, 5절에 황성 전투와 네덜란드 대대의 이야기를 기술하였다. 특별히 군사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학생들을 위해 각주를 달고 국군 및 미군 편제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 수록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는 일이 정말 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꼈다. 어찌저찌 집필을 마쳤지만, 검토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계속 눈에 보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학교 수업과 업무로 바빴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황성문화원에서 그간 진행해 온 연구 성과물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책을 집필하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혼자서는 절대로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먼저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광수 황성문화원장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호 학교법인 대동여학원 이사장님과 김형중 대동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민준식 황성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황성문화원 직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집필하는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감 기한에 쫓겨 힘들어하는 나에게 늘 응원으로 답해준 사랑하는 아내 천지혜 선생님께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 저자 오 겹

목 차

1장 **횡성의 탄생**

- 1절** 횡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_ 19
- 2절** 횡성과 단군 할아버지가 관련 있다고? _ 31
- 3절** 횡성 제일의 유명 인사 태기왕 _ 39
- 4절** 횡성은 언제부터 횡성이었을까? _ 45

2장 **천주교 박해와 횡성 풍수원성당**

- 1절** 천주교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_ 54
- 2절**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와 외세의 침략 _ 61
- 3절**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성당, 횡성 풍수원성당 _ 70

3장 **의병 운동과 횡성**

- 1절** 1단계 을미의병: 양반·유생들의 분노 _ 90
- 2절** 2단계 을사의병: 평민 의병장의 등장 _ 96
- 3절** 3단계 정미의병: 의병 전쟁 _ 103
- 4절** 자랑스러운 횡성의 의병 운동 _ 113

4장 **3·1운동과 횡성군민 만세운동**

- 1절** 일제의 군대식 지배, 1910년대 무단통치 _ 133
- 2절** 3·1 운동, 한반도에 울려 퍼진 민족의 절규 _ 143
- 3절** 횡성군민 만세운동, 횡성 시장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_ 154
- 4절** 3·1 운동의 의의 _ 170

5장 **6·25 전쟁과 횡성**

- 1절** 기쁨의 광복, 눈물의 분단 _ 176
- 2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다 _ 180
- 3절**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시작 _ 188
- 4절** 국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_ 199
- 5절**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는 왜 횡성에 세워졌을까? _ 210
- 6절** 전선의 고착화와 휴전 _ 225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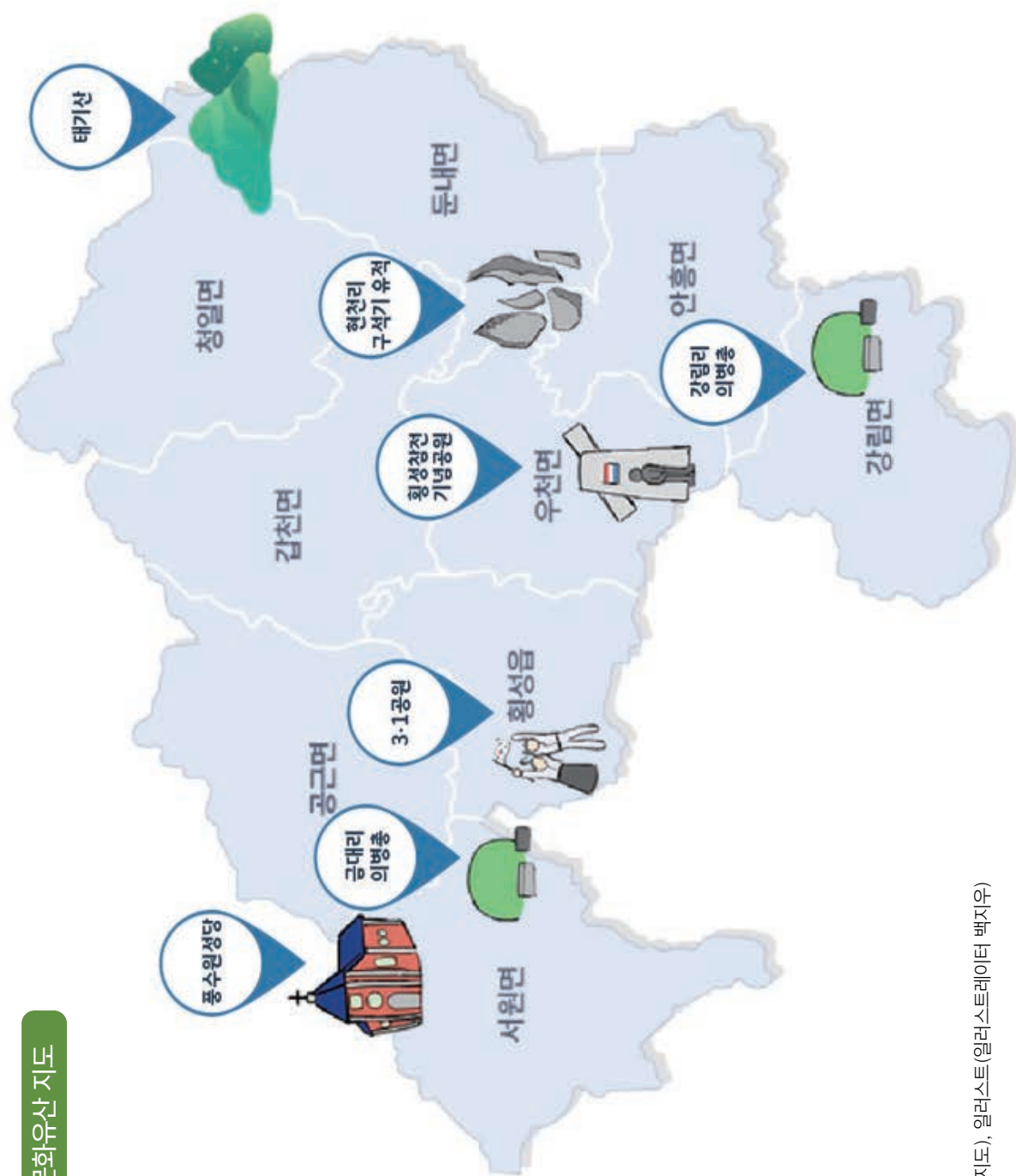
황성의 탄생

1절 황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2절 황성과 단군 할아버지가 관련 있다고?

3절 황성 제일의 유명 인사 태기왕

4절 황성은 언제부터 황성이었을까?



©황성군청(지도), 일러스트(일러스트레이터 백지우)

1장 횡성의 탄생

1절 횡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한우와 더덕의 고장 횡성.’ 횡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횡성이 국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횡성’이라는 지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와 더덕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횡성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애국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 책을 통해 자랑스러운 횡성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횡성 역사의 시작을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모습부터 고조선 시대까지와 연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구석기 문화

선사시대(先史時代)란 ‘먼저 선(先)’이라는 한자 그대로 역사시대(歷史時代) 이전에 먼저 전개되었던 시대를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수백만 년의 긴 인류 역사를 조금 더 편리하게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사용’을 기준으로 인류 전체 역사를 크게 2개의 시대로 나누었지요. 그리하여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그리고 선사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사시대는 문자 사용 이전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¹ 이는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를 기준으로 선사시대를 다시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연대를 두고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길게는 수백만 년 전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보수적으로는 약 2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유적을 발굴한 뒤, 유물의 연대 등을 측정하여 추정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그러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실시된 문화유적 조사²에서 단양 금굴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논란에 어느 정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사 결과 단양 금굴 유적은 약 70만 년 전에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 단양 금굴 유적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1) 청동기 시대에 문명과 국가가 탄생하였고,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일부'라고 표현함.
2) 198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적어도 약 70만 년 전에 시작하여 약 1만 년 전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구석기 시대는 우리에게 다른 시대와는 구분되는 여러 특징적인 점들을 보여줍니다.

구석기 시대(舊石器時代)라는 용어는 '예전 방식으로 돌을 가공하여 도구를 제작한 시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 방식'은 투박하게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려 도구를 제작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뎨석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뎨석기로는 주먹도끼, 찌개 등이 있고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스페이지크 등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뎨석기 제작 방법



©백지우 일러스트레이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 유적이 있습니다. 전곡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처음 발견된 이야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때는 1978년, 당시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주한미군 그렉 보웬(Bowen G.)은 연인과 함께 연천 전곡리 한탄강변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중 커피를 끓여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돌을 주위 불을 지필 자리를 만들었는데, 보웬이 갑자기 자신이 주운 돌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웬의 연인이 무슨 일인지 묻자, 보웬이 답하였습니다.



“돌 모양이
심상치 않다.”

◀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렉 보웬(Bowen G.)의 모습

사실 보웬은 미군에 입대하기 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과 다른 돌(석기)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보웬은 그날로 세계적인 선사고고학 전문가 프랑수아 보르도 교수에게 자신이 발견한 석기를 보냈습니다. 보르도 교수는 다시 서울대학교의 김원용 교수에게 연락하여 유적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30만 년 전 전곡리에서 조성된 대규모 선사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곡리 일대에서는 4,500점이 넘는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 유물들은 세계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곡리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모비우스(Hallam Movius)가 1940년대에 주장한 ‘세계 구석기 이원론’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전곡리의 주먹도끼
Handaxe



▲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주먹도끼의 양면이 모두 정교하게 가공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이다.
©전곡선사박물관



▲ 모비우스의 세계 구석기 이원론
©전곡선사박물관(지도), ©국립중앙박물관(유물)

세계 구석기 이원론에서는 위의 지도와 같이 인도 동부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어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선의 동쪽 방면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돌 도구의 한쪽만 날카롭게 가공한 ‘(외날)찌개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선의 서쪽 방면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를 돌 도구의 양쪽 모두를 날카롭게 가공한 ‘아슐리안 주먹도끼 문화권’으로 구분합니다.

모비우스는 세계 구석기 이원론을 근거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열등한 지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돌의 한쪽 면만 가공했으니 열등하다는 논리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1978년까지 동아시아 지역 어디에서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아, 누구도 모비우스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비우스의 이론은 세계 고고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그렉 보웬에 의해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며 세계 고고학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양쪽 면이 모두 가공

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였던 것입니다. 유물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전곡리 구석기 유적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정설로 취급받던 모비우스 이론은 세계 고고학계에서 폐기되었습니다.



▲ 전곡리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
©전곡선사박물관

적어도 4만 년 전부터는 황성에 사람이 살았다.

우리의 고장 황성에서도 구석기 시대의 뿔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1982년 강원대학교 조사단의 발굴 작업에 의해 황성 둔내면 현천리 유적에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2점과 몸돌 1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전곡리 유적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보다는 그 규모가 작지만, 현천리 유적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물은 주목할 만한 특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석기를 제작한 돌감, 즉 재료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석기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변 하천 변에 있는 다양한 석재를 사용한 것입니

다. 또한 현천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에는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공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정교하게 도구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주먹도끼의 한쪽 면은 예리한 굽개³⁾ 날을 연상시킬 정도로, 집중적으로 가공되어 있어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이 유적과 유물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현천리 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연대는 약 4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로 추정됩니다. 현천리 유적은 황성에서 발굴된 유적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만 년 전부터는 황성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황성 인근 홍천강 유역에서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황성을 비롯한 강원 영서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 황성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 뿔석기. 왼쪽부터 주먹도끼, 찰개.
©국립춘천박물관

3) 굽개는 돌에서 떼어낸 조각의 가장자리를 손질하여 예리한 날을 만든 석기이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 등의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와 같은 편석기 도구를 제작했고 이를 사용하여 사냥과 채집, 수렵 활동 등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등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만 사냥과 채집 생활을 이어 나가면 언젠가는 사냥할 동물도, 채집할 열매도 부족하게 되겠지요?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한 지역에서 잠시 머무르며 살다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리 잡았던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에 정교하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연 상태의 동굴에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어설프게 막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옷은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풀을 엮어 어설프게 만든 옷, 동물 가죽을 벗겨 만든 옷 등으로 생식기 등 중요 부위만 보호하였습니다.

한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슨 예술 활동을 했겠어?’라는 편견과는 달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주제는 주로 사냥의 성공, 번식 등이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몇 날 며칠을 굶어야 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냥의 성공을 바라며 벽화를 그린 듯합니다. 해외에서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자식을 많이 낳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풍만한 몸매의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구석기 시대는 점차 새로운 도구 제작 방식이 떠오르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시간이 흘러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됨

돌이나 뼈를
갈아서 도구를 제작함

토기를 구워 사용함

©백지우 일러스트레이터

이제는 갈아서 만든다! 신석기 시대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우면서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대와 시대가 정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려 왕조의 멸망, 조선 왕조의 시작처럼 국가가 멸망하고 새로 등장하는 역사적 장면에서는 어떠한 해를 기준으로 시대를 정확히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는 문자가 발명되지 않아 관련 문헌 기록이 없고, 인류의 도구 발전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특정 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서 신석기 시대의 연대를 특정해 보자면 기원전 8천 년경(혹은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1500년경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新石器 時代)의 가장 큰 변화는 먼저 도구 제작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발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돌을 가공하여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은 돌을 갈아서 정교하게 도구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갈돌을 갈판에 갈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구를 ‘간석기’라 칭합니다.



▲ 횡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의 갈돌과 갈판. 갈판에 갈돌을 갈아서 도구를 제작했다.

©국립춘천박물관

구석기 시대의 뿔석기와 비교하여 간석기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세월에 돌을 갈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는 남는 게 시간이었을 테니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원하는 모양 그대로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날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컸을 테지요.

횡성 둔내면 둔방내리, 갑천면 중금리, 횡성을 목계리 등지에서는 이렇게 간석기 기술로 제작하여 날을 세운 간돌칼,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어 신석기 시대에도 황성에서 인류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연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왜 혁명이라고 부를만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일까요? 이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인류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동 생활하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 지역에 정착해서 필요한 작물을 원하는 만큼 재배하고 가축을 길러 식량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석기 시대에 들어 인류는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해안가나 강가 근처에 모여 살며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는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해안가나 강가 근처에 거주지를 정한 이유는 식수를 구하기 편하고 해산물을 잡아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착한 마을 인근에서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의 농사는 현대의 정교한 논농사가 아니고, 단순히 빈 땅에 씨앗을 뿌린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곡식을 재배하지 못해 농사만으로는 식량이 늘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식량은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채집을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한편 신석기인들은 곡식을 재배한 뒤, 식량을 저장 및 조리하기 위해 저장 용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흙을 빚은 뒤, 모양을 만들어 불에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토기(土器)’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가락바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실을 뽑아서 옷을 제작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양·물·불 등 자연물을 숭상(애니미즘)하거나 동·식물을 섬겼으며(토템리즘) 주술의 힘을 믿는 등 무속 신앙(샤머니즘)이 발전하였습니다.



▲ 빗살무늬 토기. 토기에 빗살무늬를 새겨 제작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 황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의 가락바퀴. 가운데 구멍에 긴 막대(가락)를 끼우고 실의 원료를 막대에 이은 뒤 돌리면 꼬임이 생기면서 실이 만들어진다.

©국립춘천박물관

2절 황성과 단군 할아버지가 관련 있다고?

계급과 국가의 등장,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들어 한반도의 인류는 청동을 가공하여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 시대보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가 등장하고 계급(신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는 등 식량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잉여 생산물⁵이 축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식량이 풍부해지니 인구가 증가하였고, 부족의 규모도 점차 커졌습니다. 어떤 부족은 다른 부족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한 세력이 패배한 세력을 흡수하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지위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부족과 부족이 합쳐지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도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와 도시가 합쳐져 드디어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동기 시대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한편 계급이 발생하고 도시와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권력자들은 정치와 무역 활동에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가 발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쐬기 문자, 이집트 문명의 상형 문자, 인더스 문명의 하라파 문자, 중국 문명의 갑골문 등이 있습니다.



▲ 고대 문명의 문자. 왼쪽부터 메소포타미아 쐬기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인도 하라파 문자, 중국 갑골문.

4)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씨족(조상이 같다고 여겨지는 혈연 공동체)을 중심으로 한 평등 사회를 형성하였다.

5)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 이상으로 생산한 생산물.



▲ 횡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위)와 반달돌칼(아래)
©국립춘천박물관



▲ 횡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의
돌칼, 간돌창, 돌화살촉
©국립춘천박물관

중국 문명의 갑골문은 이후 한자로 발전하였는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성립한 고조선에서도 어느 시점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문자를 받아들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역사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청동거울, 청동검 등 청동 도구(청동기)는 매우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의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돌을 이용해서 만든 석기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수확을 위한 도구로 반달돌칼이 제작되었습니다.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돌을 가공하고 날을 세웠는데, 중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은 뒤 짚으로 엮은 줄을 감아 손잡이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토기로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횡성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와 반달돌칼 및 돌로 제작한 무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돌칼, 간돌창, 돌화살촉 등의 유물이 횡성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 횡성 지역에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횡성과 인근 지역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는 횡성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횡성 지역에 정착한 인류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고 초기 철기 시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작성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에 수록된 단군 신화에서는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이고, 지배자인 단군왕검의 수명은 1,000세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삼국유사』. 고려 후기 일연(一然)이 엮은 책으로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역사서 중 하나이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단군조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朝鮮)이라 했으니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 『삼국유사』 제1권 -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석제(釋帝)의 자손으로 이름은 단군(檀君)이라네. 요(堯)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나라를 세워 순(舜)임금 때를 지나 하(夏)나라 때까지 왕위에 계셨도다. … 나라를 다스린 지가 1,028년으로, 어찌 변화시켜 환인께 전할 것이 없었겠는가?
- 『제왕운기』 권하 -

그러나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여러 기록이나 유적, 유물 등의 연대를 바탕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군왕검(檀君王儉)’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배자의 호칭이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여기서 ‘단군’은

6) 중국의 삼황오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로 다음 대 군주인 순(舜)과 함께 이른바 요순(堯舜)이라 불린다. 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145년~기원전 2055년(또는 기원전 2357년~기원전 2267년) 간에 재위하였다고 한다.

종교적 지도자를,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합쳐져 호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고조선은 한 사람이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하는 ‘제정 일치’ 사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은 꾸준히 성장하여 기원전 4세기 무렵이 되면, 요동 지방⁷과 한반도 서북 지방에 걸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준왕(準王) 시기 중국 진(秦)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뒤이어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전쟁을 벌이자, 갈 곳 잃은 중국인 중 일부가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이주해 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衛滿) 또한 자기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왕은 위만을 신임하여 땅을 내어 주고 변방 지역의 수비를 맡겼으나, 위만은 준왕을 배신하고 수도인 왕검성을 함락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 칭합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 준왕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영토를 하사하여 백리의 땅을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 위만이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韓) 조 - ”

위만은 비록 중국 연나라 출신이었지만, 고조선의 문화와 정치 체제를 계승하였습니다. 위만조선 시기 고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더욱 발전하였고 중국 한(漢)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계무역⁸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동방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고조선과 한나라의 관계는 점차 악화하였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08년, 한무제(漢武帝)의 공격에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역에 4개의 군(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여 식민 통치하였습니다.

7) 요하(라오하)강의 동쪽 지역이라는 뜻이다. 좁은 의미로는 요동 반도 일대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만주(한반도 북쪽 동베이 지방) 일대까지 포괄한다.
8)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물건)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

유물·유적과 기록으로 알아보는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

한편 우리에게 고조선 당시의 영토와 문화 영역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 자료는 바로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과 유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탁자식 고인돌⁹ 등의 유적과 비파형 동검(요령식 동검)¹⁰, 잔 줄무늬 거울 등의 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고조선에서 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발견되는 지역을 추적하여 고조선의 영역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6쪽의 지도와 같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을 표시해 보면 고조선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초기와 후기에 제작된 유물에서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8세기의 고조선 초기부터 제작 및 사용되었고, 주로 만주와 한반도 북서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무렵의 고조선 중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세형 동검(한국식 동검)이 제작되고, 세형 동검은 주로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기존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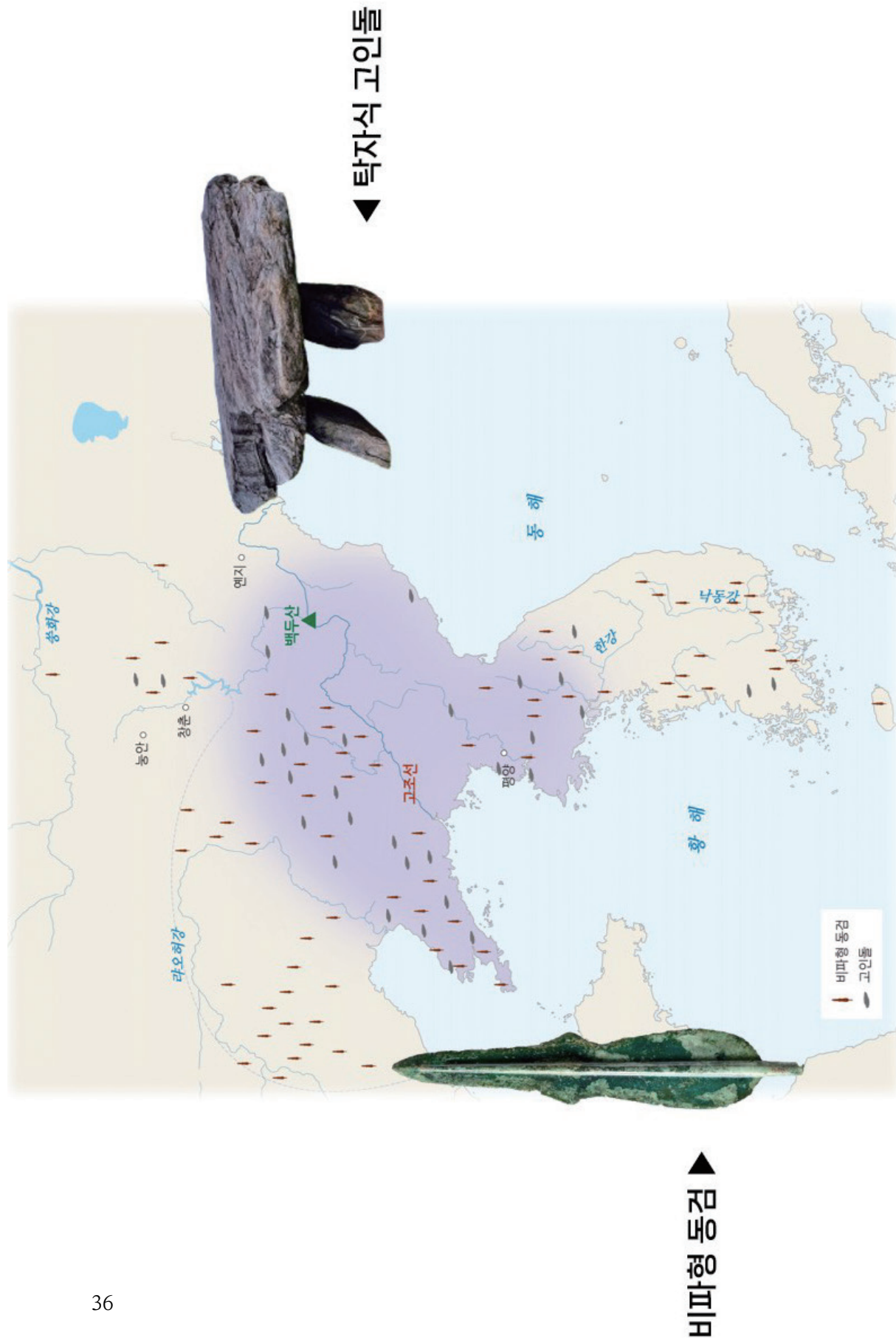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근거는 당시의 문헌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한(韓) 조는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燕)나라가 장군 진개(秦開)를 파견하여 고조선의 서쪽 지방을 공격하였고, 2천리의 땅을 빼앗아 고조선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韓) 조 - ”



▲ 세형 동검. 고조선 중후기에 제작되는 동검의 형태로, 초기의 비파형 동검보다 폭이 좁고 가늘다는 특징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9) 납작한 덮개돌이 올라가 있는 고인돌 양식으로, 고조선의 영역을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10)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제 검으로서 고조선의 초기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검의 형태가 비파(악기)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 부른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탁자식 고인돌), 비파형동검(국립중앙박물관)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연(燕)이 고조선을 공격한 시점은 기원전 4~3세기로, 한반도 중부에서 세형 동검이 만들어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비파형 동검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 초기의 중심지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나라의 침입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형 동검의 출토 지역과 『삼국지』 위서동이전 등의 문헌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는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중북부의 평양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평양이동설) 또한 고조선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왕검성 역시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황성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은 한반도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황성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체 고조선과 황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975년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 유적을 발굴하던 도중 고조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세형동검 2점과 잔 줄무늬 거울 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고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황성에서 발견된 세형동검과 거울은 보존 상태가 좋아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잔 줄무늬 거울의 경우 0.2mm 정도 두께의 문양이 정교하게 원을 그리며 무려 1만 3천여 개나 새겨져 있어 고조선의 청동 제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황성에서 고조선 후기의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황성은 진국(辰國)의 영역에 속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 중후기였던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무렵 당시 한반도 중남부에는 진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 황성 강림리 초기 철기 유적에서 발견된 세형 동검(위)과 잔 줄무늬 거울(아래)

©국립중앙박물관

“ 일찍이 (고조선) 우거왕이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歷谿卿)이 우거에게 간청하였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辰國)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천여 호나 되었는데, ...

-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韓) 조 -

삼한(三韓, 마한·진한·변한)은 모두 78개 나라인데, ... 전체 국토의 넓이가 방 4천여리나 도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 ...

- 『후한서』동이열전 한(韓) 조 -

”

횡성은 한반도 중부 지역, 그것도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 역시 진국에 속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국은 중국 측 사서(史書) 기록 외에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한반도에서 진국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유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성이 진국에 속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림리에서 세형 동검 및 잔 줄무늬 거울 등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적어도 고조선 후기에는 횡성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횡성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자랑스럽지 않나요? 횡성은 구석기 시대부터 고조선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하는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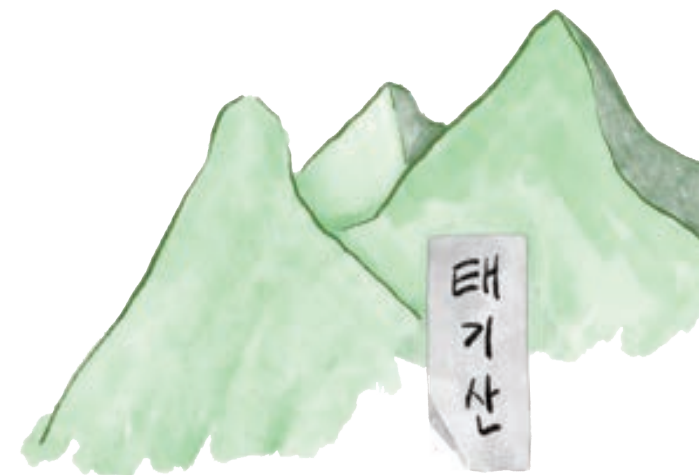
3절 횡성 제일의 유명 인사 태기왕

태기왕 전설

‘갑천, 병지방리, 동막삼거리, 신대리, 태기산, 어답산 ...’ 횡성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부르고 있는 이 지명들이 사실은 전부 한 사람으로부터 탄생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횡성 제일의 유명 인사 태기왕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나라는 한반도 북쪽과 만주 지역에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고 식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사군은 이내 멸망하였고, 이 지역에는 고구려, 부여, 옥저, 동예 등의 국가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삼한(三韓)이 등장하였지요. 횡성에서 유래하는 전설에 따르면 태기왕은 삼한 중 하나인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기왕은 정말로 진한의 왕이었을까요? 횡성과 태기왕은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태기왕의 전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태기왕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태기왕과 횡성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원 전후 한반도의 강역
©대한민국국가지도집

태기왕 전설

때는 바야흐로 이제 막 신라가 탄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을 공격하였습니다. 태기왕은 박혁거세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길로 강원도 횡성까지 피신하였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태기왕은 병사들과 함께 횡성의 한 냇가에서 땀에 젖은 몸을 씻고 갑옷의 피를 닦아 냈습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니 그제야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처에는 산세가 훌륭한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기왕은 이 산에 올라 주변 지형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산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군막¹¹⁾을 쳤습니다. 이후에 있을 박혁거세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혁거세는 포기하지 않고 횡성까지 올라와 태기왕의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군막을 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병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박혁거세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박혁거세의 거듭된 공격에 태기왕은 다시 인근의 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덕고산(德高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덕고산에 오르고 보니, 덕고산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앞쪽에는 절벽이, 뒤쪽에는 높은 산세가 자

리하고 있어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산에 자라나 있는 울창한 나무들은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태기왕은 이곳에서 훗날을 도모하기로 하고 주변에 성을 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밭을 개간하여 식량을 마련하였고 인근에서 군사들을 모아 병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태기왕의 군대는 잘 훈련된 정예병으로 거듭났고 마을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여유가 생기니 태기왕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까지 마음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반면, 나태해진 태기왕의 군대와는 달리 박혁거세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박혁거세 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덕고산에 자리 잡은 태기왕의 성 뒤편을 기습하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들이치는 신라군에 태기왕의 군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태기왕은 그가 가장 아끼던 삼 형제 장군 덕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간신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삼 형제 장군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삼 형제 장군은 태기왕을 업은 채 깊은 물에 뛰어들었고 태기왕은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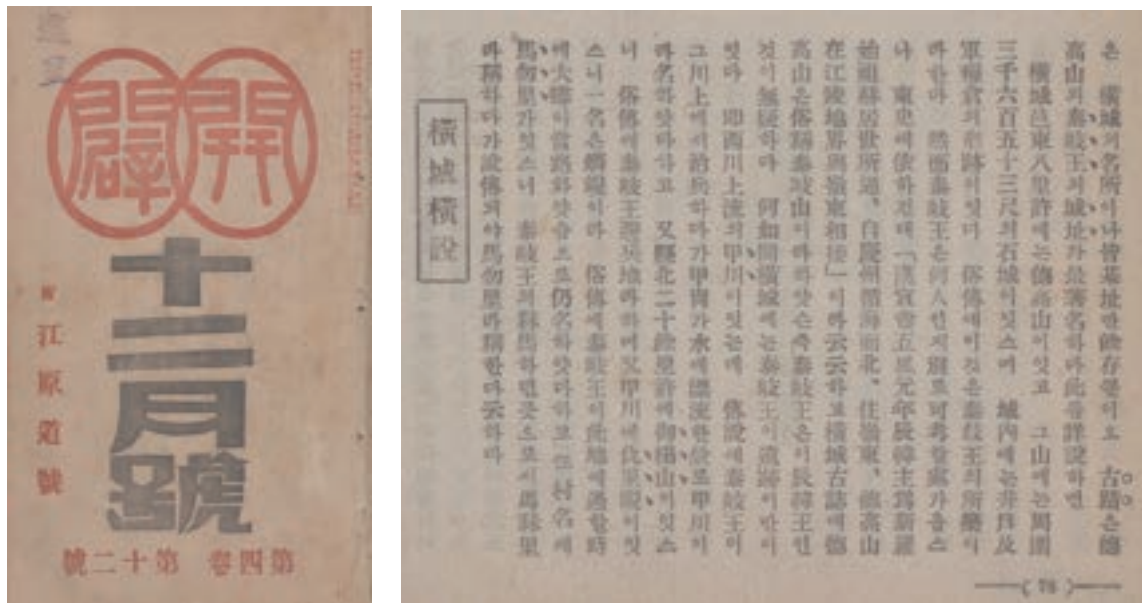
11) 군대에서 쓰는 장막.



이 이야기가 바로 횡성에서 전해지는 태기왕 전설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횡성의 많은 지명은 이 태기왕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태기왕이 갑옷을 씻은 하천이라고 하여 갑천(甲川)이라는 이름이 탄생하였고, 태기왕이 처음 진을 쳤던 산에는 임금이 밟고 다녀갔다 하여 어답산(御踏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어답산 동쪽에 자리를 잡고 군막을 쳤다고 해서 동막삼거리(東幕三거리)라는 명칭이 만들어졌고, 병사들이 적들을 방어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兵之方里)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덕고산은 태기왕의 이름을 따서 태기산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신대리(新垈里)라는 이름 또한 패망한 태기왕의 군사들이 이후 새롭게 마을을 형성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자신의 행적과 이름이 횡성 곳곳에 남아 있다니, 태기왕은 실로 횡성 제일의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태기왕 전설은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태기왕의 모든 것에 대해 살살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왕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다.



▲ 1923년 12월 「개벽」 제42호 표지와 태기왕 기사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태기왕에 대한 문헌 기록입니다. 태기왕에 대한 문헌 기

록은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3년 발행된 잡지 ‘개벽’ 제42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개벽 제42호 78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횡성을 동쪽 8리쯤에 덕고산이 있고, 이것을 상세히 말하면 태기왕의 성터가 가장 분명하다. ”

이 내용만 보면 ‘뭐야, 기록이 있잖아? 태기왕이 정말 횡성에서 활동하였나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태기왕이 활동하였다는 삼한시대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정도 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벽 제42호는 1923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무려 2천 년 가까이 되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923년 이전까지는 태기왕에 대한 어떤 문헌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벽에 쓰여 있는 내용만으로는 태기왕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전설처럼 ‘태기왕은 정말 삼한 중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는가?’입니다.

태기왕이 자리 잡았다는 태기산은 횡성 및 평창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 지역에서도 태기왕에 대한 또 다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횡성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평창 봉평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서, 태기왕은 진한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예맥(濊貊)의 왕(혹은 왕자)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태기산과 접하는 두 지역의 전설이 다르니 무엇이 맞다고 해야 할지 애매한 구석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횡성과 평창의 전설 중 무엇이 사실일까요? 역사학자들은 횡성과 평창의 전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한시대 당시 횡성 등 강원도 영서 지역은 경기도와 연결된 한반도 남방(南方) 계열로 구분됩니다. 이 지역은 충청도와 경기 지역을 장악하였던 마한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횡성 역시 진한이 아니라 마한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진한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신라가 아닌 ‘사로국(騶盧國)’이었습니다. 당시 마한·진한·변한은 각각 수십 개의 나라로 구성된 군장국가(君長國家)였습니다. 왕이 없고 각 지역의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 수십 명이 모여

정치체¹²를 형성한 것이지요. 즉 사로국은 진한에 속해 있는 수십 개 나라 중 하나였고, 박혁거세는 사로국의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초기의 사로국은 진한의 소국 중에서도 힘이 아주 약한 편이었습니다.

‘신라(新羅)’라는 나라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는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세운 지 약 500년이 지난 지증왕 시기였습니다. 사로국이 진한의 국가들을 완전히 정벌하고 신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박혁거세가 죽은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황성에서 전해지는 태기왕 전설은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기왕 전설이 오늘날 황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태기왕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태기왕 전설을 통하여 우리는 삼한 시대 당시 황성 지역으로 새로운 집단이 이주하여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와 황성 지역과 인근에 많이 전파했다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 황성의 토착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지요. 그 증거로 황성에서 출토된 삼한시대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정교한 접시, 항아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황성에 자리 잡은 세력이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황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 기원후 1~3세기경에 조성되었다. 삼한시대와 시기가 겹치지만 삼한과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 황성에서 출토된 삼한시대 유물. 굽다리접시(위), 짧은 목 항아리(왼), 항아리(오).
©국립중앙박물관

12) 정치적 권위의 행사를 통해 조직된 사회.

태기왕 전설이 실화가 아니라고 하여 실망하였나요? 그러나 태기왕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전설이 정말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기왕 전설이 황성 문화의 일부로서 황성인들의 마음속과 황성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등하교하며 무심코 지나갔던 길, 평소에는 보지 않던 표지판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은 쉬고 싶은 주말,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역지로 끌려갔던 뒷산의 이름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황성에 신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태기왕이 황성 곳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밝은 웃음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4절 황성은 언제부터 황성이었을까?

황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

황성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金富軾)이 저술한 책인데, 고려시대 이전의 고구려·백제·신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성과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천현(橫川縣)’은 ‘어사매(於斯買)’라고도 한다. ...
- 『삼국사기』 잡지 제6권, 지리4 고구려(高句麗) - ”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당시 황성은 고구려에서 ‘횡천’ 혹은 ‘어사매’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황성의 도로명 주소 중 하나인 ‘어사매로’가 바로 『삼국사기』 기록 ‘어사매’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 5세기 전후 삼국시대
©대한민국국가지도집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형성



▲ 9세기 전후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
©대한민국국가지도집

이 시기 강원도 영서 지역은 9주 중 삭주(朔州)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황성은 삭주에 직접 속해 있는 현으로, ‘황천현(潢川縣)’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통일신라는 주 밑에 군(郡)을 두고, 군 밑에는 다시 현(縣)을 두어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이라고 하더라도 군에 속하지 않고 주에 직접 속해 있는 지역이 존재했는데, 그중 하나가 황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 황성은 삭주 도독이 직할¹³하는 황천현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시기 황천이라 부르던 것을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이 황천현이라 고친 것입니다.

“ ‘황천현(潢川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황천현(潢川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

- 『삼국사기』 잡지 제4권, 지리2 신라(新羅) -

13) 중간에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함.

고려시대의 형성

고려시대에 들어 황성의 이름은 황천에서 다시 ‘횡천(橫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명칭이 다시 횡천으로 바뀐 시기는 고려 태조 왕건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사(高麗史)』 태조 23년(940년) ‘봄 3월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이름을 고쳤다.’라는 기록과 조선시대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고려 태조 23년에 횡천으로 고쳤다.’라는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즉위한 해(1389년)에 ‘횡천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감무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군과 현에 파견되었던 지방 관직입니다. 따라서 ‘횡천에 감무를 설치하였다.’라는 말은 통일신라 때처럼 황성을 상위 지역에서 직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해 독립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성은 이때부터 횡성이었다.

1392년,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여 태조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조는 고려 말의 ‘강릉도’와 ‘교주도’의 영역을 통합하여 ‘강원도(江原道)’라 하였는데, 이는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취하여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후 조선시대가 전개되면서 여러 사정으로 강원도의 명칭은 10여 차례나 바뀌었



▲ 11세기 전후 고려시대 중부 지역 지도.
교주도에 속한 횡성(횡천)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가지도집



▲ 17세기 중반 조선 중부 지역 지도.
강원도에 속해 있는 횡성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국가지도집

지만, 결국 고종 33년(1896년)에 마지막으로 ‘강원도’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조선 초까지 횡성은 고려 때와 같이 계속하여 ‘횡천(橫川)’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다 조선 태종 14년(1414년), 횡천의 지명을 바꾸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
군현(郡縣)의 칭호를 고치었다.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靑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
‘횡천(橫川)’은 ‘횡성(橫城)’이라 하고 ...
-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2권 -
”

횡천이라는 지명의 발음이 인근의 홍천과 비슷하여 혼란을 가져오니 ‘횡성(橫城)’으로 바꾸어 부르라 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횡성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조선시대에는 횡성‘현(縣)’이었다는 것이지요.

‘횡성현’이 오늘날과 같이 ‘횡성군’으로 바뀐 것은 조선 말 고종 시기였습니다. 1895년, 고종은 대대적인 지방행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도를 23부로 나누고 그 밑에 336개의 군을 두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횡성현도 횡성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횡성 지도
©횡성군청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횡성군의 행정구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인근 지역을 점진적으로 횡성군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횡성군에는 횡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이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횡성이 언제부터 횡성이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나요?

횡성군민의 날

1895년 5월 26일(양력 6월 18일), 고종은 지방 제도 개편의 내용을 담은 칙령(칙령 제98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을 8도로 나누던 기존의 지방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이 23부로 나누어졌지요. 이때 횡성도 횡성‘현(縣)’에서 횡성‘군(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2005년, 횡성군의회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횡성군민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만 해도 횡성군

민의 날은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인 4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 기념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여론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횡성군의회는 횡성군민의 날을 6월 18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날짜는 횡성군이 처음으로 탄생한 일자(음력 1895년 5월 26일)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18일은 오로지 횡성군민을 위한 ‘횡성군민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18일 제17회 ‘횡성군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모습
©강원일보

2장

천주교 박해와 횡성 풍수원성당

1절 천주교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2절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와 외세의 침략

3절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성당, 횡성 풍수원성당

2장

천주교 박해와 횡성 풍수원성당



▲ 풍수원성당.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당의 모습이 고즈넉한 풍경과 무척 잘 어울린다.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강원지사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유적이 횡성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유적은 바로 횡성군 서원면에 위치한 풍수원성당(豊水院聖堂)입니다.

1920년부터 매년 6월, 이곳 풍수원성당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신께 신앙을 고백하고 영광 올리는 성체현양대회가 열리는데요. 풍수원성당의 성체현양대회 행사 시기를 전후하여 이곳을 찾는 전국의 천주교 신도들만 해도 매년 1,500여 명이 훌쩍 넘는

다고 합니다. 특별히 2023년에 개최된 100번째 풍수원 성체현양대회에는 4,6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하여 현장을 가득 메우기도 하였습니다.



▲ 2023년 제100차 풍수원 성체현양대회 미사.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는 6·25 전쟁 시기 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강원도민일보

천주교에서 성체라고 불리는 빵과 포도주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와 피를 의미하며, 평소에는 감실이라는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1년에 한 번 있는 성체현양대회 때만 감실에서 성체를 꺼내 야외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성체현양대회는 풍수원성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종교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횡성 풍수원성당이 한국 천주교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매년 이곳을 찾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와 횡성 풍수원성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풍수원성당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감실

©풍수원유물전시관

- 1) 성당 내부에 고정된 상자 형태의 용기로, 그 안에 성찬례를 위한 성체를 넣어 모셔둔다.
- 2)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종교적 박해이다.

1절 천주교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 조선에 들어온 『천주실의』 번역본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서양에서 탄생한 천주교는 1600년대 초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라는 이탈리아 선교사에 의해 중국 명(明)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천주교 교리서 『천주실의』를 작성하였는데, 이 책은 이후 조선에도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라 ‘서학(西學)’³이라는 학문 형태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인들이 천주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조선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유교(유학)·성리학 문화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서학의 본질이 천주교라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18세기 후반 정조 시기가 되어, 남인(南人)⁴을 중심으로 한 일부 양반 계층과 학자들에 의해 천주교는 점차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종교로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조는 이에 대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조는 “정도(正道)인 유학이 흥하면 사교(邪敎)인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고 말하며 천주교의 확산을 묵인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탄생과 신해박해

178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⁵를 받은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입니다. 이승훈은 1783년 당시 남인 계통의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베이징으로 향하는 사절단에 합류하여 천주교 서적을 입수하던 중이었습니다.

3) 서학은 넓은 의미에서 서양의 종교, 과학, 지리, 물건(안경·망원경·자명종 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4) 조선 선조 시기에 조정의 신하들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갈라져 정치적 무리(당파)를 이루었는데, 이후 동인은 다시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갈라졌다.
5) 기독교에서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천주교에 강한 끌림을 느꼈고, 예수회⁶ 선교사 그라몽(Jean Grammont)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승훈은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친척 친지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당시 지식인으로 덕망 높던 이벽(李穡), 권일신(權日身) 등이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승훈의 소개로 정약용(丁若鏞) 형제들도 천주교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중인⁷이었던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모여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천주교회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천주교가 확산함에 따라 조선의 유교·성리학 문화와 천주교 교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돌 지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천주교의 평등사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에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조선 사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이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신분제·가부장적 질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양의 제사 문화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11세(Clemens PP. XI)는 동양 사회의 제사 문화를 우상 숭배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황의 발언으로 인해 조선의 장례 문화와 천주교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제사 금지 방침은 유교 사상에서 중시하는 부모에 대한 효(孝), 더 나아가 효로부터 나오는 임금에 대한 충(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1791년 진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의 천주교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 이승훈 베드로 초상화



▲ 클레멘스 11세의 초상화. 그가 동양의 조상 제사 문화를 금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 청나라는 강하게 반발하며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6) 가톨릭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 중 하나로, 동양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다.
7) 양반과 상민 사이에 놓여 있던 신분으로 사회적인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 중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인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8) 우상은 신이나 사람, 영혼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물건이다. 우상을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



▲ 신주(위패). 신주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머문다고 인식되는 나무패이다. 조선,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신주를 모시고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

©국립민속박물관

1791년 여름, 전라도 진산군에 사는 선비 윤지충(尹持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지충은 선비로서 마땅히 유교식으로 신주를 모셔 장례를 치러야 함에도, 천주교 의식에 따라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진산 사건)

사실 윤지충은 정약용의 고종사촌으로서 정약용을 통해 천주교를 접한 뒤, 1787년에 이미 세례를 받은 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교가 아닌 천주교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는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도 급제한 양반이자 선비였습니다. 윤지충의 행동에 대하여 조선의 선비들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같은 천주교인이자 윤지충의 외사촌이었던 권상연(權尙然)이 자신의 집 안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아예 불태워 땅에 묻어버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진산에서의 소식이 곧 조정에 전해지면서 천주교 확산 문제는 당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윤지충과 권상연은 남인에 속해 있었는데, 반대파인 서인들이 윤지충의 행태를 문제 삼아 남인 전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한편 남인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여, 천주교를 묵인해야 한다는 입장(신서파信西派)과 탄압해야 한다는 입장(공서파攻西派)으로 분열하였습니다.

곧 윤지충과 권상연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아버지와 임금을 배척하는 사교를 신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죄명으로 전주 남문 밖에서 사형되었습니다. 이때 윤지충이 참수되는 과정에서 그의 피가 전주성의 돌에 튀었는데, 이후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 전주에 전동성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연고지였던 전라도 진산군은 5년 동안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되었고, 지역 책임자인 진산군수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더 많은 천주교도를 처벌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정조가 정약용을 대표로 하는 남인 세력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조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건은 어찌저찌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개된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1791년 신해년에 발생



하였다고 하여 신해박해(辛亥迫害)라 칭합니다.

▲ 전동성당
©한국관광공사 포토
코리아-김지호

정조 사후 발생한 신유박해

신해박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봉합은 정조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으로는 어느 정도 천주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부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해박해 과정 중 당파는 더욱 분열·대립하였고, 천주교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펴오던 정조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천주교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800년 8월 18일, 정조가 종기⁹⁾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자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조는 너무 어려 직접 국정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왕실의 어른이 왕을 대리하여 정치를 이끄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수렴청정을 이끈 인물은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로 정조에게는 할머니, 순조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조선시대에 어떻게 순조의 증조할머니였던 정순왕후가 멀쩡히 살아서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을 까요?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릉(元陵).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쌍릉 합장릉이다. 정순왕후가 승하한 이후 영조의릉에 합장하며 조성되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과거 영조는 정비인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사망하자,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왕비가 바로 정순왕후로, 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세

9) 오늘날의 증기는 피부에 고름이 나는 질환이지만, 과거 조선시대의 증기는 피부 고름을 비롯하여 각종 염증, 암 등을 모두 포괄하는 큰 개념이었다.

에 불과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무려 51세 연상의 남편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지요.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는 당시 8세였습니다. 정조는 졸지에 고작 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할머니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러한 사정으로 순조가 즉위한 이후까지도 정순왕후는 불과 50대의 나이로 건강하게 생존하여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의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순왕후의 천주교 탄압 사건을 1801년 신유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신유박해(辛酉迫害)라 칭합니다. 정순왕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조와 남인 세력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영조 재위 당시 정순왕후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제거에 앞장섰고, 이후에는 정조의 즉위에 반대했던 바 있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즉위 직후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귀주(金龜柱)를 귀양보내고 그녀의 집안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얼마 후 김귀주가 귀양지에서 사망하기까지 하자, 정순왕후는 정조와 남인 세력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증오심은 정조 사후 피의 복수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순왕후의 천주교 탄압 명령 발표 이후 천주교와 가까이 지내던 남인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먼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이가환(李家煥)이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가환은 당시 남인 세력의 큰 어른으로서 정순왕후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정약중(정약용의 셋째 형) 등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정약용의 둘째 형) 역시 천주교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당시 청(淸)나라로부터 밀입국하여 선교 활동에 힘쓰던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는 자수하였지만, 결국 사형되었습니다.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초상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개혁 사상가.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에서 활약하였다. 천주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정조 사후 탄압받아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 『자산어보』. 손암(巽庵) 정약전(丁若銓)은 정약용의 둘째 형으로 신유박해 시기 흑산도로 유배형을 받았다. 이후 귀양지인 흑산도의 어류 생태계를 집대성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편 당시 천주교 세력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황사영(黃嗣永)은 조정의 대규모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을 빠져나와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선 정부는 약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겨우 황사영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황사영의 옷 속에서 편지(백서)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조선 팔도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렸습니다. 1만 3천여 자가 적힌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황사영 백서.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전말과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중국 베이징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고자 한 밀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1. 조선에서 대규모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수많은 천주교도와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다.
3. 중국이나 서양 군대의 무력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달라.

편지의 수신인은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던 구베아(Alexander de Gouvea) 주교였습니다. 편지에는 외국의 군대를 동원해 조선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대역 모반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결국 황사영은 능지처참형

을 선고받고 서소문¹⁰밖에서 온몸이 찢겨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는 ‘토사교문(討邪敎文)’이라는 명령을 통해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천주교를 믿는 무리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801년부터 시작된 약 1년간의 신유박해 동안 처형된 천주교도의 수는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천주교 관련자가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신유박해를 전후하여 약 1만 명에 달하던 국내의 천주교도들은 배교¹¹하거나 본래 거주지를 떠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강원도 및 경상도의 깊은 산골로 피난하여야 했습니다.

1802년(혹은 18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천주교를 믿던 40여 명의 신자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들은 신유박해 이후 8일 동안 피난처를 찾다가 황성의 두메산골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풍수원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천주교 신자들은 이후 80여 년 동안 성직자 없이 자신들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고 키우며 신앙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풍수원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는 3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어서 한국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와 외세의 침략

홍선대원군의 집권과 병인양요

신유박해 이후 1800년대 중반까지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천주교 탄압 사건¹²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1831년 정식으로 천주교 조선교구가 창설되었고, 1849년 철종 즉위 이후에는 철종의 온화한 성품과 더불어 집권 세력인 안동 김씨가문의 천주교 유화 정책으로 인해 천주교의 교세는 성장하였습니다.

10) 숭례문 옆에 위치하였던 4소문 중 하나.

11)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12) 1827년에는 정해박해(丁亥迫害), 1839년에는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났다. 그리고 1846년에는 병오박해(丙午迫害)가 발생하여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처형되었다.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철종이 아들 없이 죽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의 힘을 빌어 자신의 둘째 아들 이희(李熙, 제26대 고종)를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후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을 제거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 펠릭스클레르 리델(Félix-Clair Ridet) 신부(원)와 피에르 구스타브 로즈(Pierre-Gustave Roze) 제독(오)

하지만 1864년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고종 대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는 천주교와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쇄국 정책¹³을 펼쳤습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은 전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신부) 12명 중 9명이 참수되었고, 불과 수개월 만에 국내 천주교도 약 8,0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도망에 성공한 사람들도 첩첩산중의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굶어 죽거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주교 서적과 성물은 모두 압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전국에서 배교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렇게 1866년(병인년)부터 1872년까지 약 6년간 지속된 조선 역사상 최대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병인박해(丙寅迫害)라 부릅니다.

프랑스 선교사 리델 역시 병인박해 시기 조선 정부의 서슬 퍼런 감시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처형된 9명의 선교사와 달리 리델은 다행스럽게도 박해를 피해 1866년 5월 무사히 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도착한 리델은 텐진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즈에게 현재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주교 박해 상황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처형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 남아 있는 두 명의 프랑스 신부를 구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즈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반드시 조선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866년 10월 11일, 마침내 로즈는 군함 7척, 병력 1,000여 명을 이끌고 조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병인년(1866년)에 프랑스가 침입하였다고 하여 병인양요(丙寅洋擾)라 부릅니다. 그는 “조선이 우리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가로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강경하게 보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상륙할 곳은 서해 강화도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부랴부랴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한 부대를 편성하고 대장에 이정하(李景夏), 휘하에 한성근(韓聖根), 양헌수(梁憲洙) 등의 인물을 임명하였습니다.



▲ 병인양요 상황도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침략 초반 프랑스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침략 개시 불과 5일 만에 강화도를 점령하였고, 열흘 뒤에는 한성군이 이끄는 조선군과 문수산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한성군은 분전하며 프랑스군의 진군을 잠시나마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의 재래식 무기로는 프랑스군의 최신 무기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수산성 역시 프랑스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군이 한강을 통해 서울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때 문수산성 근처의 통진에 진을 치고 있

13) 서양 열강 등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거나 거래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던 양헌수는 자신의 군대 마저 패배한다면 조선의 운명이 위험하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최후의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양헌수는 화력 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과 정면으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밀리에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을 기습하는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11월 7일 늦은 밤, 양헌수가 이끄는 549명의 조선군이 프랑스 군대의 눈을 피해 정족산성에 잠입하였습니다. 조선군이 정족산성에 몰래 잠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즉시 공격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160여 명의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결과는 미리 잠입하여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전투 결과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 부상자 60~70명의 큰 피해를 보았으나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조선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11월 10일, 함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인양요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양 제국주의¹⁴ 국가의 침략을 격퇴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은 철수하는 동안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던 외규장각¹⁵을 불태우고 345권의 도서와 무기, 보물 등 문화유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훔쳐 간 외규장각의 도서 중에는 조선 왕실의 의궤¹⁶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규장



▲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분상용(왼), 어람용(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14) 제국주의는 서양 강대국들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사상과 정책을 의미한다.

15) 외규장각(外奎章閣)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이다.

16)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그 전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이다.



▲ 현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 혼인 후 궁궐에서 치르는 잔치의 배치도가 그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 2011년 외규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각 의궤는 대부분 어람용¹⁷이라 매우 높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훔쳐 간 의궤 중에는 딱 한 점밖에 없는 유일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의궤는 프랑스군의 약탈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975년 파리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故 박병선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박병선 박사는 평생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2011년, 빼앗겼던 문화유산이 145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의 침략에 크게 분노한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더럽힌 땅을 천주교인의 피로 씻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며 서울과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천주교인들에 대한 처형을 자행하였습니다.



▲ 故 박병선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17) 임금이 보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의궤로 책의 소장처를 표시하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의궤는 분상용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 변의 잠두봉(蠶頭峰)에서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참수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잠두봉에서 잘린 천주교인들의 목이 한강에 던져졌는데, 이로 인해 한강 물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잘려 나간 머리가 산처럼 높이 쌓였다.’ 하여 이곳을 절두산(切頭山)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정도니, 병인양요 이후 홍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천주교회는 이곳 절두산을 순교 성지로 지정하고 공원과 조각상, 전시관을 건축하여 순교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 절두산 순교 성지
©한국관광공사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도 홍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는 천주교 탄압의 빌미가 될 만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868년에는 홍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독일인 오페르트에 의해 도굴될 뻔한 사건(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페르트는 남연군 묘 도굴을 계획하기 전, 조선 정부와 두 차례 통상¹⁸ 교섭 협상을 했으나 실패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섭 실패 이후 오페르트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남연군 묘지를 도굴하여 시체와 부장품¹⁹을 훔친 다음, 이것들을 이용해 홍선대원군과 재협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밤을 틈타 오페르트와 그가 고용한 일꾼들이 남연군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는 석회 칠이 되어 있어 오페르트의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였고, 결과적으로 도굴은 실패하였습니다.

오페르트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 하였다는 소식은 곧 홍선대원군의 귀에도 들어갔고, 홍선대원군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천주교도들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르트의 도굴에 프랑스 신부 페롱(Stanislas Féron)과 일부 조선인 천주교도들이 참여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노한 홍선대원군은 당시 천주교가 유행하였던 내포 지방과 그 인근의 천주교도들을 대규모로 처형하였습니다.

한편 오페르트 도굴 사건 3년 후에는, 또다시 서양 세력이 강화도로 침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침입해 온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 오페르트(Ernst Oppert)와 충청남도 예산에 위치한 남연군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1871년(신미년),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함에 따라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은 1866년에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 5척의 군함과 병력 1천여 명을 동원하여 강화도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기에 미국은 이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하였을까요?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바로 목전까지 진출했습니다. 통상 교역과 선교 활동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돌아가라고

18)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것. 또는 그런 관계.

19) 장사 지낼 때, 시체와 함께 묻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866년 7월, 평양 대동강을 따라 침입
하였던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제너럴셔먼호는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한편 평양 관민은 제너럴셔먼호의 무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식수와 식량이 떨어진 선원들에게 3차례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너럴셔먼호의 선원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조선 군인을 납치하는 행태를 보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급기야 제너럴셔먼호의 선원들에 의해 평양 주민 7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평양 지역을 관할하던 평안 감사 박규수(朴珪壽)는 군대를 동원하여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운 뒤, 선원 24명 전원을 사살하였습니다.(제너럴셔먼호 사건)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²⁰에서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대어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져가게 하였습니다. ... 군민(軍民)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남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야 온 성안의 소요가 비로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
-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

제너럴셔먼호 사건 직후, 미국 정부는 생각보다 잠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는 대(對)조선 외교 정책을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5년 후(1871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신미양요)

미군은 최신식 군함과 무기를 앞세워 강화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순식간에 강화도의 첫 관문인 초지진이 초토화되었고, 다음날 덕진진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마지막으로 광성보를 점령하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광성보에는 어재연(魚在淵)이 이끄는 조선군 6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재연 부대는 미군에 맞서 분전하였으나 1시간에 걸쳐 이어진 미군의 포격에 큰

20) 조선 후기에 한반도 바닷가에 나타났던 서양의 배를 뜻한다. 당시 서양의 배는 그 모습이 조선의 배와 달랐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뜻에서 이양선이라고 불렸다.



▲ 신미양요 상황도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백병전²¹에서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미군에 패배하였습니다.

미군 측의 기록에 따르면 광성보 전투에서의 미군 측 전사자는 3명, 부상자는 10명에 불과했던 반면 조선군 전사자는 350명, 부상자는 2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전쟁 승리를 자축하며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²²를 빼앗고 성조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훔쳐 간 수자기는 미국해군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년 임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었고,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미국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조선 정부에 통상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이끄는 조선 정부는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미국의 요청



▲ 1871년 6월 신미양요에 참전한
USS 콜로라도 호 선상에 놓은 어
재연 장군 수자기
©강화역사박물관

21) 백병전은 전투에 필요한 칼, 검, 창, 총 등의 장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적군과 몸으로 맞붙는 근거리 전투를 말한다.

22) 군대에서 부대의 대장 혹은 장군이 쓰던 깃발을 의미한다.



▲ 척화비
©국립중앙박물관

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미국은 아무 성과 없이 조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비석, 즉 척화비(斥和碑)를 서울 종로 네거리 및 전국 각지에 세웠습니다. 척화비에는 다시는 서양 세력과 화친하거나 통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그리하여 1866년 병인년에 시작된 대규모 천주교 박해는 이후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등 서양 열강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1872년까지 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절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성당, 풍수원성당

천주교 박해와 풍수원 공동체의 탄생

이제, 1절에서 잠시 소개하였던 횡성 풍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풍수원 신앙 공동체의 출발은 앞서 살펴보았던 신유박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802년(혹은 1803년)에 신태보(申太甫,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40여 명의 신자들이 신유박해를 피해 이곳 풍수원에 정착하면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 형성된 것입니다.(61쪽 참고)

신태보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도들이 풍수원에 정착하게 된 사정은 꽤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본래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조선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강원도 산골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찾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신태보와 천주교도들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산 고개(도둑머리 고개)를 도적 무리가 점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현재 도둑머리 고개의 모습. 과거, 도둑이 많다고 하여 도둑머리 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후 도덕 고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횡성군민의 요청으로 다시 2008년 도둑머리 고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표지판은 도덕고개로 되어 있다.

신태보를 중심으로 한 40여 명의 천주교도들은 도적 무리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길을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군부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 3열 종대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간격을 띄워 실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도적들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감히 신태보 일행을 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둑머리 고개를 무사히 넘은 신태보와 천주교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따라 바로 이어지는 풍수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원 일대를 둘러보자마자 이곳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은 피난처를 찾아 헤맨 지 딱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풍수원(豊水院)은 그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농사가 매우 잘되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더불어 풍수원은 조선시대

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동 지방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풍수원의 ‘원(院)’은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역참(驛站)’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참은 다른 말로 ‘역원(驛院)’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시설은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교통로에 설치되어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횡성 풍수원은 조선시대에 영동-영서를 잇는 역원이 설치되었던 강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수원은 피난 온 천주교도들이 정착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수원 중심부는 당시 천주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원에 이미 국가기관인 관청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이 대놓고 관청 옆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태보와 천주교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풍수원 인근 골짜기 깊숙한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인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조심히 생활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풍수원에 정착하고자 한 이유는 풍수원이 비옥해서도, 물이 좋아서도, 교통이 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수원이 메시아²³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원이 위치한 곳에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 안전하고 먼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가장 빨리 맞이하기 위해 풍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풍수원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 되었습니다.

풍수원 공동체와 성직자 영입 운동

신태보와 천주교도들(이하 풍수원 공동체)이 터전을 마련한 골짜기는 두메산골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두메산골에 숨어 살면서 화전²⁴을 일구고 토기(옹기)를 구워 팔았습니다. 생활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풀뿌리와 나무껍

23) 기독교에서 구원자를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24) 주로 산간 지대에서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리고 그 자리를 파 일구어 농사를 짓는 밭.

질을 삶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수원 공동체는 서로 인정을 베풀며 행복해했습니다. 신태보는 천주교 교리 서적을 베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풍수원 공동체는 신태보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태보는 일반 신자들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이끌어 줄 제대로 된 성직자였습니다. 신태보는 이내 ‘성직자 영입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유럽의 교황께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사정을 알리고 성직자를 보내 달라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이탈리아에 사는 교황에게까지 가는 직행 길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태보는 우선 중국 북경(베이징) 교구에 편지를 전달하고, 선교사들을 통해 다시 그 편지가 교황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811년, 신태보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환경에서 마침내 북경으로의 경비를 마련하였고, 몇몇 천주교도들과 함께 교황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도 없이 삭이 트듯 복음이 전파된 나라, 누구의 설교도 없이 회생적으로 200명이 순교한 나라.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을 보내 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811년에 발송된 이 편지는 이여진(신태보의 사촌)을 통해 다음 해



▲ 신태보 베드로 초상화를 보고 재해석한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백지우

◀ 1811년에 작성된 신미년 서한. 신태보 등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교황에게 성직자를 파견해달라고 보낸 서한이다.

©교황청 복음화부 고문서고
『서소문, 동소문 별곡 특별전 도록』

중국 북경교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편지는 여러 사연을 거쳐 14년이 지난 1825년
에서야 기적적으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Pope Gregory XVI)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교황은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827년, 교황은 드디어 조선으로의 선교사 파견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827년 당시는 조선에서 크고 작은 천주교 박해(정해박해)가 계속해서 이어
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장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계속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시도하였고, 마침내 1831년 9월 9일
교황청으로부터 선교사가 파견되어 천주교 조선교구가 탄생하였습니다. 신태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편 북경교구로 편지를 전달한 이후 한참 동안이나 답이 없자, 이어진 1812년과
1813년 다시금 북경에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보낸 편지들의 향방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편지가 10년 넘게 지나서야 교황에게 전달
되었으니 말이지요.

복자²⁵ 신태보 베드로

신태보는 '성직자 영입 운동'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풍수원 공동체를 나와 전국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경북 상주에 은둔 정착하였
는데, 1827년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정해박해)가 시작됨에 따라 전주 관청에 체포되
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교황이 신태보의 편지를 받고 조선으로의 선교사
파견을 지시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후 신태보는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형벌이 잇따랐
습니다. 신태보가 수감 생활 중 기록한 「옥중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내 다리는 살이 헤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으며, 앉지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내
상처는 끓아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해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25) 가톨릭에서 '성인 바로 아래 단계'를 의미하는 말로, 복자품에 오르면 특정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공경받
을 수 있다.



▲ 신태보가 수감 중 모진 고문을 받는 장면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신태보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고 교회 서적과
동료들이 있는 장소를 끝까지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주교 없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고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신태보는 한국 천주교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
났습니다. 1839년 다시 한번 천주교 박해(기해박해)가 일어나면서 전주 장터로 끌려
나가 참수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이후 170여 년이 지나 2014년,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 발전에 공헌한 신태보의 공
로를 인정하여 그를 복자품에 올리기로 하였고, 신태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
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²⁶되었습니다.

26) 가톨릭에서 어떤 사람을 '복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80년 이상 성직자 없이 신앙을 지키다.

한편 신태보가 떠난 이후에도 풍수원 공동체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곳곳하게 살아갔습니다. 크고 작은 천주교 박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풍수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풍수원으로 유입된 시기는 앞서 알아보았던 병인박해(1866~1872년) 시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으로 갈 곳 잃은 전국의 천주교도들이 풍수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풍수원은 탄압받던 한국 천주교도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²⁷이 시작되자 천주교에 대한 조선 사회의 분위기도 점차 부드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1886년에는 조선과 프랑스 간의 조약(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는 ‘프랑스가 조선 내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내에서의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²⁸ 이에 따라 다수의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고, 드디어 풍수원 공동체도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산골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7대 조선 교구장 블랑(Marie-Jean-Gustave Blanc) 주교는 풍수원의 사정과 역사를 듣고 이곳에 성직자를 보내 성당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함경도 안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르메르(Louis Bon Jules Le Merre) 신부를 초대 풍수원 주임 신부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1888년 르메르 신부가 부임함에 따라 마침내 풍수원에도 종교 지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풍수원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직자 없이 신앙을 지켜 온 지 80년이 훌쩍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르메르 신부는 신도들과 함께 초가집 20여 간(間)을 건축하여 성당 시



▲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 어진
©국립중앙박물관



▲ 제7대 조선 교구장 마리 장 귀스타브블랑(Marie-Jean-Gustave Blanc)

27) 국왕이 직접 정치를 주관하는 것을 이르는 말.

28) 1831년 천주교 조선교구가 탄생했을 때는 조선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지 못했다. 조선 정부는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암묵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1895년에서야 공식적으로 조선교구를 인정하였다.

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의 초가집 성당 시설을 복원한 건물을 현재의 풍수원성당 바로 맞은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후 풍수원성당의 교세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풍수원성당은 강원도 춘천·화천·양구·원주·홍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지역을 관할하였고,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 수는 무려 2,0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 초기 풍수원 성당 초가집 성당을 복원한 모습

정규하 신부와 기적으로 지은 풍수원성당

1896년, 풍수원성당의 2대 주임 신부로 한국인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정규하는 1863년 충남 아산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인박해가 시작되었고 천주교 신자였던 그의 가족들은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주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규하는 무럭무럭 성장하여 어느덧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블랑 주교를 만나 신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1884년, 정규하는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College General in Penang)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난 유학생 21명 중 무려 7명이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선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규하는 국내 최초의 신학교인 예수성심신학교(현 가톨릭대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침내 1896년, 정규하는 제1회로 예수성심신학교를 졸업하여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최초의 사제 서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메이드인 조선 1호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제 서품 직후 정규하 신부는 풍수원성당에 사제 보좌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주임 신부는 르메르 신부였습니다. 르메르 신부는 정규하 신부가 보좌로 부임한 뒤, 꼭 두 달 만에 원주 지역으로 발령받아 풍수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젊은 시절의 정규하 신부의 모습(앞줄 왼쪽에서 2번째)
©풍수원유물전시관

이에 따라 1896년 8월 18일, 정규하 신부가 풍수원성당의 2대 주임 신부로 정식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임 신부가 된 정규하 신부는 온 힘을 다해 풍수원의 천주교 신자들을 돌보며 사목²⁹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만든 초가집 시설로는 풍수원의 신앙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정규하 신부는 부족한 시설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마침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규하 신부는 직접 성당 건물 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모델로 삼은 건물은 서울의 '약현성당'이었습니다. 약현성당은 1893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정규하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약현성당을 설계한 인물은 훗날 명동대성당을 설계하여 '조선 신건축의 아버지'라 불린 코스트(Eugene Jean George Coste) 신부였습니다. 여기서 정규하 신부와 코스트 신부의 기막힌 인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청년 정규하가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로



▶ 코스트 요한(Eugene Jean George Coste) 신부

29) 천주교에서 사제가 신도를 통솔·지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약현성당(藥峴聖堂). 대한민국 사적 제252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유학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선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직항 배편이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를 갈아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규하 신부와 일행은 환승을 위해 나가사키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코스트 신부였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천주교의 성지로, 과거 에도 막부³⁰ 시기에 엄청난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코스트 신부는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진 나가사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마땅히 머물 곳 없던 정규하와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지내는 동안 코스트 신부는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을 아낌없이 축복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천주교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0) 막부란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는 일본 무사 정권을 의미하는 말이다. 에도 막부는 일본사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막부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지속하였다.

그렇게 코스트 신부가 축복하였던 어린 새싹은 어느덧 성장하여 메이드인 조선 1호 신부가 되었고, 풍수원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모델을 코스트 신부가 설계한 약현성당으로 정하였습니다. 정규하 신부와 코스트 신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을까요?

약현성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 교회’였습니다. 정규하 신부는 약현성당처럼 벽돌을 이용해서 성당 건물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건축을 위해 천주교도였던 중국인 건축업자 진(陳) 베드로를 비롯한 중국인 기술자 7명을 풍수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당 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비용, 즉 돈이었습니다. 당시 정규하 신부가 제 8대 조선 교구장 뮈텔(Gustave-Charles-Marie Mutel) 주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풍수원의 절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성당을 짓기 위하여 엽전 15,000냥(兩)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부족한데 교우들은 짓기를 재촉합니다.”

- 1907년 1월 30일 -

이 편지에 등장하는 15,000냥은 풍수원 공동체가 땀과 땀을 팔고 화전을 일구어 모은, 피와 땀이 묻은 돈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부족한 마당에 성당 건물을 짓겠다고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겨우 마련한 돈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비용으로 어떻게 성당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풍수원 사람들의 눈물겨운 기적의 건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규하 신부와 풍수원 공동체는 돈이 없으니 직접 건축 재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건물의 뼈대가 되어줄 목재는 강원도 산골인 풍수원 주변에 널려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산골짜기에서 건물의 기둥이 될 아름드리나무를 베어 건축 터로 옮겼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으니 서너 명씩 짝을 이루어 직접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옮긴 나무를 손으로 대패질하여 말끔하게 다듬었습니다. 또, 기둥이 올라갈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 큼지막한 바윗덩이를 옮겼습니다.

성당의 외벽을 쌓기 위한 벽돌도 풍수원 사람들이 직접 구웠습니다. 진 베드로가 성당 맞은편 산등성이에 쌓여 있던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풍수원 공동체 주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커다란 가마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며 빨간 벽돌을 구워 날랐습니다. 풍수원 공동체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빨간 벽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느라 두피가 벽돌에 쓸려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남자들 또한 살가죽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등에 벽돌을 지고 날랐다고 합니다.



▲ 풍수원 건축 당시 직접 구운 빨간 벽돌
©풍수원유물전시관



▲ 초기 풍수원성당과 신도들의 모습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 쌓여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빨간색 벽돌이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창문이 나고 천장이 없어졌으며 종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건축된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 횡성 풍수원성당이 탄생하였습니다.

정규하 신부를 비롯한 풍수원의 신도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낙성식³¹⁾을 열어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기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현재도 풍수원성당의 원형은 건축되었던 당시의 모습과 거의 다름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인정받아 1982년에는 강원유형문화유산 제6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횡성군은 2002년, 이곳 풍수원성당 유적 인근을 유현 문화관광 단지로 지정해 개발하기도 하였지요. 이곳을 방문해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할 것만 같은,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숲속의 작은 성당 건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풍수원성당은 유럽의 여느 유명한 성당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1)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



▲ 정규하 신부의 생전 모습
©풍수원유물전시관

소박하고 단정한 멋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에게 묘한 감동을 선사하지요. 아마도 풍수원성당 곳곳에 이 성당을 세운 사람들의 순수함과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수원성당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나이는 벌써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풍수원성당과 나이가 같지요. 성당의 건축을 기념하며 정규하 신부가 심은 느티나무 두 그루입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성당 건물과 느티나무 두 그루가 딱 잘 어울립니다.

성당이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을 피탈 당했습니다.(경술국치) 그러자 정규하 신부는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당(三爲學堂)을 세우고 낮에는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우리말과 민족정신을 교육하였습니다. 삼위학당은 이후 광동국민학교로 발전하였는데, 학

생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폐교되었습니다. 풍수원 유현 문화관광 단지 주차장 자리가 그 터입니다.

정규하 신부는 1942년 노환으로 주임 사제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별세할 때까지 47년간 황성 풍수원성당에서만 사목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3년 별세했다는 것입니다. 영면에 든 정규하 신부의 묘소는 풍수원성당 뒤편의 묵주 동산 성직자 묘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정규하 신부가 흐뭇한 미소로 성당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정규하 신부의 묘소

풍수원 유현 문화관광 단지에 방문해 보면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을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수원성당 건물부터 정규하 신부가 거처 하였던 구(舊)사제관, 유물전시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날씨 좋은 주말, 황성 풍수원성당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3장

의병 운동과 황성



▲ 유현 문화관광단지 약도
『강원도 비림에 숨겨진 보물, 풍수원성당』

1절 1단계 을미의병: 양반·유생들의 분노

2절 2단계 을사의병: 평민 의병장의 등장

3절 3단계 정미의병: 의병 전쟁

4절 자랑스러운 황성의 의병 운동

3장

의병 운동과 황성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 대사는 2001년부터 약 2년 동안 방영된 대하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많은 시청자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줬던 명대사입니다. 드라마 ‘명성황후’는 1895년 10월 8일 일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乙未事變)’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상상력을 발휘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위 대사는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자객들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지요.

그런데 왜 왕비인 명성황후는 자신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1895년을 전후한 구한말¹ 개화기²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번 장에서 알아볼 의병 운동과 황성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의병(義兵)이란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을 말합니다. 국가에 위기가 닥치거나 외적의 침략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와 비슷한 민간 무장 조직을 구성한 것이지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개화기의 의병 운동을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의병 운동을 을미의병·을사의병·정미의병의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편 황성 지역은 의병 운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의병 연합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 시기에 황성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시기.

2) 1876년 일본에 의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개화기에는 한국에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기존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 및 풍습이 타파되고 근대적 사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였다.

1절 1단계 을미의병: 양반·유생들의 분노

을미년, 국모가 죽고 머리를 깎이다.



▲ 동학 농민 운동 지도자
독두장군 전봉준
©독립기념관

을미사변이 발생하기 1년 전(1894년), 조선의 백성들은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이 횡포를 부렸고 밖으로는 외세가 침략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생존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동학(東學)³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 부릅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자력으로 진압하지 못하였고, 결국 중국 청(淸)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진압해 달라고 다른 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다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청은 옳다구나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과 일본은 1884년 갑신정변⁴을 계기로 ‘텐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텐진 조약」

대청국(大清國) 특파전권대신 이홍장(李鴻章)과 대일본국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모든 약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

- 『고종실록』권22, 22년 -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은 ‘한 국가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 상대 국가에 알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텐진 조약에 따라 청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였습니다. 일본은 청의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면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역시 청에 대응하여 한반도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 요청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군과 일본군은 한반도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사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부딪히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 청·일 전쟁 당시 벌어진 서해 전투를 표현한 판화

©안산어촌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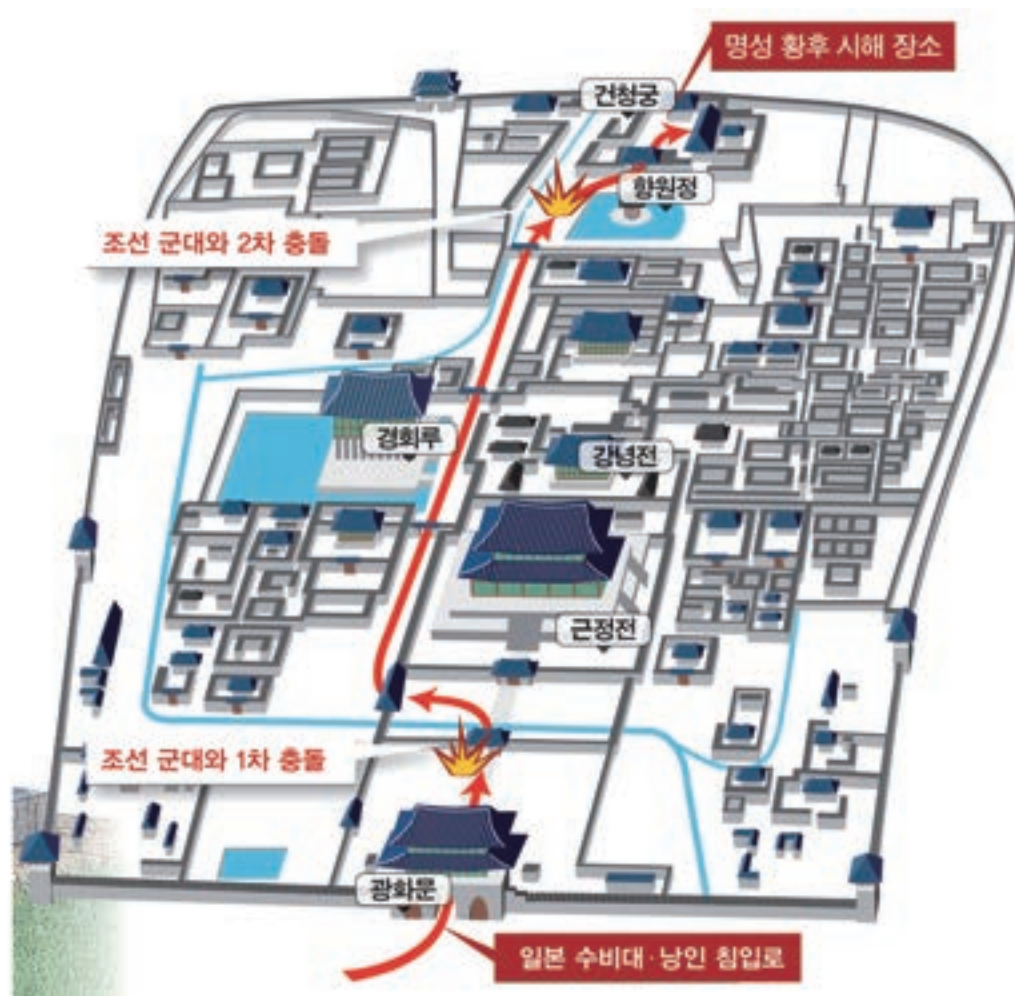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청의 힘이 점차 약화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국력이 강력해지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은 명실상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일인자였습니다. 일본의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전쟁에서 청이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3) 1860년에 최제우(崔濟愚)가 창시한 민족 종교로, 개혁적인 성격을 띠었다.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서학)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졌다.

4) 1884년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다.

한편 당시 조선은 고종과 민씨 세력(명성황후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 민씨 세력은 본래 청과 매우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청이 일본에 패배하면서 민씨 세력은 의지할 곳이 없어졌고, 청을 대신하여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당시 주한공사 미우라 고로(三浦 梧楼)는 야심한 새벽을 틈타 경복궁에 자객을 보냈습니다. 명성황후는 자객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경복궁 내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을미사변)



▲ 을미사변 상황도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을미사변은 우리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개화⁵⁾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조선 내에는 성리학 사상이 매우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리학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모(國母)⁶⁾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 자객에 의해 살해되다니요.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백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공부하는 양반·유생들의 반발이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을미사변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을미개혁’을 통해 조선을 일본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을미개혁에 크게 반발했는데, 개혁 내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단발령(斷髮令)’이었습니다. 단발령은 우리 민족의 고유 머리 모양인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짧게 머리를 깎는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성리학 질서를 바탕으로 성립한 조선에는 전통적으로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신체의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소중히 해야 한다.’는 문화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함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관리하기 위해 남성은 상투를 틀어 망건을 착용하였고, 여성은 혼인 후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들, 특히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유생들에게 단발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불경한 법이었습니다.

단발령의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악화는 당시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 관리 김윤식의 일기 『속음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표지. 'L'ASSASSINAT DE LA REINE DE CORÉE'(조선 왕비 암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5) 새로운 사상·문물·제도 따위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조선 말에 정치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한 일.

6) 임금의 아내나 임금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이다. 과거 군주제 사회에서는 왕을 나라의 아버지란 의미의 국부(國父)라 하고, 그 아내인 왕비는 국모라고 칭했다.



▲ 단발을 하고 있는 고종의 모습.
을미사변 이후 일본으로부터 매우
큰 압박감을 느낀 고종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머리를 깎았다.
©국립고궁박물관

“
여러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차례로 단발을 시행하니 ... (중략) ... 서울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단발 소문을 듣고 지방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 『속음청사』 8권 -
”

또한 구한 말의 유학자였던 황현은 자신의 저서 『매천야록』에 다
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
고종은 긴 탄식을 하며 정병하를 돌아보고 “당신이 내 머리를 깎으시오”라고
하므로 정병하는 가위를 들고 고종의 머리를 깎고, ... 가위를 들고 길을 막고
있다가 사람만 만나면 달려들어 머리를 깎아 버렸다. ... 서울에 온 시골 사람들
은 문밖을 나섰다가 상투를 잘리면 모두 그 상투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통곡을
하며 성을 빠져나갔다. ... 오직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머리를 깎이지 않았다.
- 『매천야록』 제2권 -
”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단발령은 조선 민중들에게 굉장한 반
일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내 전국 곳곳의 양반·유생들은 일
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무력 저항 운동, 즉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을미의병: 양반·유생들의 분노

을미의병의 지도층은 성리학 사상에 뿌리를 둔 전통적 지배 계층, 양반·유생이었
습니다. 양반·유생들은 반일 구호를 외치며 의병을 조직했고, 옛 동학농민군을 포함
한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대규모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을미의병은 목표는 한
반도에서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고종을 보위⁷⁾하는 것이었습니다.

을미의병의 항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적

7) 보호하고 방위함.

극적인 의병 운동 세력으로는 충북 제천을 중심으로 활약한 유인석
(柳麟錫) 부대가 있습니다. 유인석은 전국에 격문⁸⁾을 보내 의병 운동
을 독려하였으며, 부패 관료를 척살하는 등 활약하였습니다. 그 외
에도 강원도 춘천의 이소응(李昭應), 경상도의 허위(許蔭), 전라도
의 기우만(奇宇萬) 등이 활약했습니다.

“
... 아, 저 섬나라 오랑캐의 수령은 조약과 신의의 법리로도 애초에 말할 것
조차 없거니와, 생각하건대 저 국적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머리카락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원통함을 어찌할까. 국모(國母)의 원수를 생각
하며 이미 이를 갚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
고 의관을 찢기는 지경에 이른 데다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였으니, ...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을 깎았으니 이 무슨 변괴인가.
- 유인석의 격문, 「격고팔도열읍」, 『의암집』 -
”



▲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초상화

이후 을미의병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된 이후,
고종은 자신도 언제 일본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더
불러 일본과 친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3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
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6년 2월 11일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사건을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 합니다. 아관파천의 실시 이후 고종의 의도대로 친일 세력



◀ 1900년경 러시아 공
사관(俄館)의 모습. 경
운궁(현재 덕수궁) 인근
에 위치하였다.

8)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군병을 모집하
는 글,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 힘은 다소 약화하였고, 고종은 조선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단발령을 철회했습니다.

고종은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렸습니다. 단발령이 이미 철회되고 친일 세력 또한 약화한 마당에 을미의병도 계속 활동할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종의 조칙 발표 이후 을미의병의 활동은 점차 시들해져 갔습니다.

♣ 을미의병 시기 황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13쪽으로

2절 2단계 을사의병: 평민 의병장의 등장

고종의 환궁과 대한제국 선포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은 그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양반부터 평민까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국왕이 궁궐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머문다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⁹⁾ 등 다양한 단체와 인물들은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고종 스스로에게도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은 주권을 지키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분명 큰 장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고종은 결국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관파천 이후 약 1년 만에 경운궁(현재 덕수궁)으로 환궁하였습니다.

덕수궁 환궁 이후 고종은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지키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수립되었습니다. 고종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황제국으로 만들으로써 일본 및 서양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9) 1896년 7월 2일 서재필(徐載弼)이 창립한 사회 정치 단체이다. 청의 압제로부터 조선이 독립한 것을 기념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 심순택(沈舜澤)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고유제(告由祭)를 지냈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하였다. ... 옥새를 올리니 상(高宗)이 두세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왕후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1897년) -



◀ 1900년대 덕수궁의 모습



▶ 현재 덕수궁의 모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 대한제국 국기 '태극기'(위)와
대한제국 황실의 문양 '이화문'(아래)



▲ 러·일전쟁 당시의 정치 풍자 그림엽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대한제국이 압사당하고 있다.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세우거나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여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양전 사업¹⁰을 실시하고, 근대식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며 토지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지지부진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다시 커졌습니다. 러시아 또한 남하 정책을 펼쳐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기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르러 결국 한반도 내에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이미 세계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청·일 전쟁의 결과가 발표됐을 때 처럼 1905년 5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트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민들은 오랜 전쟁에 매우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내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러·일 전쟁 와중 사회주의 혁명¹¹을 일으켰습니다. 혁명 이후 러시아 내에서는 반전(反戰) 여론이 더욱 들끓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러·일 양국은 적당히 타협하였습니다.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가졌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제거했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오직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협상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선적 지배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 정부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특사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였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늑약¹²(乙巳勒約, 제2차 한일협약)」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온전하게 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국의 외교권 박탈)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은밀히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 (통감부 설치를 통한 한국 정치에 대한 간섭)

- 『고종실록』 46권 -



◀ 한일협약도. 이 그림은 을사늑약을 묘사한 만평으로 조약이 일본에 의해 위협적으로 체결되었음을 풍자하였다. 좌측 밑에는 '일본이 한황(高宗)을 위협하여 조약을 체결함'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조약이 체결될 당시 고종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생생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풍자화에 고종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10) 토지의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 조사(측량) 사업이다.

11) 제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른다.

12) 늑약(勒約)이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한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마땅히 '조약' 보다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다.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의 요직을 거쳐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등을 역임하였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 을사늑약 체결에 적극 협조한 을사오적. 왼쪽 위부터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이근택.

이와 같은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우리의 주권을 제한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게도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 인사들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조약의 체결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고종은 아예 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궁궐과 서울 시내에 무장한 군대를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신들을 회의에서 쫓아내고, 친일파 인사들을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결국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의 친일 인사들이 조약의 체결에 동조하면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종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옥새¹³⁾를 가져와 조약 체결에 협조하였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 인물들은 이후 ‘을사년(乙巳年)에 나라를 팔아먹은 다섯 명의 도적’이라 하여 ‘을사오적’이라 불렸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갔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어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습니다.



▲ 을사늑약 체결 기념사진. 첫째 줄 가운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이다.

13) 왕조시대에 왕, 황제 등 국가 지도자가 사용한 도장으로 명령문이나 책임을 저야 하는 각종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찍는 용도로 사용했다.

을사의병: 평민 의병장의 등장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제국 신료 민영환(閔泳煥)은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민중을 각성시키고자 한 선택이었습니다.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 동조한 대신들을 비판했습니다.



▲ 대한제국 대신 민영환
©독립기념관



▲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 1, 2면 기사

“우리 대황제 폐하의 강경하신 뜻으로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 조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지위와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두려움에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였다.”

을사늑약의 체결은 을미의병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의병 운동, 즉 을사의병(乙巳義兵)을 촉발하였습니다. 앞장서서 대규모 의병을 일으킨 계층은 을미의병 때와 같은 양반·유생들이었습니다. 먼저 황성과 가까운 원주·제천·단양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을미의병 당시 제천의 유인석 휘하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다시 한번 의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의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 최익현 초상(보물 제1510호)
©국립제주박물관

을사의병 시기 의병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익현(崔益鉉)이 있습니다. 그는 양반·유생 신분으로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유교의 성리학 전통을 지키자’라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최익현은 의병대를 조직하여 전북 일대를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대는 전주·남원 부근에서 관군에게 패배하여 와해하였고, 최익현 자신은 체포되어 일본 쓰시마섬(對馬島)으로 3년간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일본인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며 쓰시마섬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 병을 얻어 순국하였습니다.

한편 을사의병의 특징적인 점은 을미의병 때와는 달리 평민 의병장이 활약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신돌석(申堧石)이 있습니다.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매우 용맹한 기질과 탁월한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을미의병 때부터 평민들을 모집하여 의병대를 이끌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미의병은 대체로 양반·유생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당시 신돌석 부대의 세력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신돌석은 다시 한번 의병대를 조직하여 활약하였습니다. 을사의병 시기 그가 이끄는 군사는 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돌석은 경상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강원도 지역까지 진출하여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905년에 촉발한 을사의병 운동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하며 의병에 합류하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1907년의 국내 상황과 정미 의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을사의병 시기 황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15쪽으로



▲ 신돌석 초상화
©신돌석 장군 기념관

3절 3단계 정미의병: 의병 전쟁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 7조약, 그리고 강제 군대 해산

을사늑약 체결 이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고종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로부터 비밀리에 고종에게 전해졌습니다. 고종은 국제 사회에 일본의 불법적·폭력적 침략 행위를 알리고 을사늑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이상설(李相畠), 이준(李儔), 이위중(李緯鍾)을 특사로 임명하여 헤이그에 파견하였습니다.(헤이그 특사 사건)

세 명의 특사는 고종으로부터 친서와 신임장을 받은 뒤, 비밀리에 헤이그로 향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사정을 알리는 연설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특사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했고, 조선에 만국평화회의 개최 소식을 알린 러시아 측 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세 명의 특사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준 열사는 애통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의 퇴위를 압박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의 외교권 제한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종이 퇴위를 거부하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고종은 1907년 7월 20일 대한제국 황제 자리를 아들 순종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민중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민중을 설득하기는커녕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무력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 즉위 불과 나흘 후인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헤이그 특사. 좌측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중 열사.

「정미 7조약(제3차 한일협약)」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

제4조 한국의 고등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않는다.

- 『순종실록』 1권 -

정미 7조약의 주요 내용은 을사늑약 때 설치된 통감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의 허가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미 7조약의 체결 이후 우리 민족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제국 군인들이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한제국 군인들이 시위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일본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1907년 7월 31일, 일본은 순종을 위협하여 늦은 밤중에 군대 해산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군대 해산 명령은 순종이 직접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한제국 황실이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 1일, 서울에서부터 군대(시위대侍衛隊) 해산이 시행되었습니다.



▲ 군대 해산 당시 일본군에 의해 무장 해제 당하고 있는 대한제국 군인들의 모습

군대 해산 명령에 서울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권총으로 자결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박승환의 죽음에 분개한 서울 시위대 장병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200명이 넘는 대한제국군이 남대문과 서소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초반에는 일본군 감시 병력이 많지 않아 대한제국군이 우세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일본군은 기관총 부대를 앞세워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였고,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인해 대한제국군은 진압되고 말았습니다.(남대문 전투) 이 전투로 인해 대한제국군은 무려 전사자 68명, 부상자 100여 명 등의 피해를 보았고, 51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8월 3일부터는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진위대鎭衛隊)가 차례로 해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산 명령이 떨어진 곳 중 하나는 횡성과 인접한 원주 지역이었습니다. 원주진위대는 민궁호(閔肯鎬)의 지휘하에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장봉기를 감행하였습니다.



◀ 대한제국군 시위대의 봉기를 진압하고 병영을 점령한 일본군



▲ 대한제국 육군 참령(소령) 박승환



▲ 프랑스 언론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남대문 전투.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의 소란’이다. 일본군이 대한제국군을 학살하고 있다.



▲ 민공호 의병장 초상화

사실 민공호는 해산 명령이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일본군이 대한제국군의 무기를 회수하는 것을 보고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 해산 명령이 발표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민공호는 300여 명의 해산 군인들을 이끌고 외쳤습니다.

“나라에 병사가 없으면 무엇으로서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군대를 거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민공호 의병 부대의 활동은 4절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력으로 저항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발생하였던 남대문 전투 와중에 500명 이상의 대한제국군이 탈출에 성공하여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인천 강화, 경남 진주 등 지방에서도 군인들이 원주진위대처럼 군대 해산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해산 군인들이 기존의 의병 부대에 합류하거나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함에 따라 희망과 저항의 불씨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정미의병: 의병 전쟁의 단계로 나아가다.

해산 군인들이 기존 의병대에 합류하면서 1907년 정미의병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정미의병의 규모는 이전까지 발생했던 을미·을사의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을미·을사의병 운동은 대부분 양반·유생들이 지휘하고 일반 백성들이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부대원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고, 호미·낫·죽창 등 보잘것없는 무기로 일본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해산 명령이 발표된 이후 합류한 해산 군인들은 오랜 시간 훈련을 받으며 활동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해산 과정에서 탈취한 총 등의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 실린 '조선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기사 사진. 경기도 양평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 부대이다. 사진의 중앙에 대한제국군 육군의 제복을 입은 의병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미의병 시기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전국 각지의 의병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규모, 전투 방식, 화력 등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군대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군대 해산 이듬해(1908년) 의병 수는 1.5배 이상 늘었으며 일본군과의 전투 횟수도 약 5배 늘었습니다.¹⁴⁾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의병 운동은 양반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저항 운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미의병 시기에 들어 우리나라의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의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14) 1907년 약 44,000명에 불과하던 의병 수는 1908년에 들어 약 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1907년 323회에 불과하던 전투 횟수 역시 1908년에 들어 약 1,500회로 증가하였다.



▲ 원주시 치악체육관 내에 세워져 있는 민공호 의병장 기념상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미의병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양반·유생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인 일본의 침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일본 세력을 아예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병장들은 일본

의 최대 근거지인 수도 서울(한성)을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작전을 ‘서울진공작전(서울進攻作戰)’이라 칭합니다.

서울진공작전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은 강원도 원주에서 활약하였던 이은찬(李殷瓚)과 이구재(李九載)였습니다. 이은찬과 이구재는 개별 세력으로는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전국 각지의 의병대를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은찬과 이구재는 이인영(李麟榮)을 지도자로 모시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인영은 본래 양반 출신으로서 정직한 인품으로 유생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을미의병 시기에는 원주에서 직접 의병을 일으켜 봉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미의병 당시, 그는 병든 부친을 간호하기 위해 은퇴 후 문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두 의병장은 이인영을 찾아 의병 연합 부대의 총대장이 되 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인영은 아픈 부친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눈물겨운 호소에 결국 총대장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인영은 강원도의 의병 대장 격인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직에 올라 원주로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영의 출진 이후 정미의병은 새로운 전 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영은 서울진공작전의 성공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각국에 의병 연합군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서울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 관동창의대장 이름으로 격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격문에는 ‘한반도의 의병은 순수한 애국 단체이니 의병을 국제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병은 단순한 반란 세력이 아니고 전쟁 단체이다. 따라서 의병은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쟁할 수 있고, 의병이 일본군에게 승리했을 시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 13도창의군(13도연합의병부대) 총대장 이인영(李麟榮)

두 번째는 각기 따로 활동하는 전국의 의병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의병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여 서울진공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이인영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의병에게 격문을 보내 경기도 양주로 모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격문이 발송된 이후 이인영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고모곡이라는 지금의 황성군 서원면 지역에 진을 치고 대대적인 저항 활동을 하였습니다.

1907년 11월경에 이르러 이인영이 이끄는 의병의 규모는 8,000여 명(최대 1만여 명으로 추산됨)에 달했습니다. 이 중 화승총¹⁵ 등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해산 군인도 3,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각지의 의병장들은 회의를 통해 의병 연합 부대의 편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13도창의군(13도연합의병부대)이 탄생하였습니다. 총대장에 이인영, 군사장에 허위(許薦), 관동창의대장에 민공호, 호서창의대장에 이강년(李康季)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황성 출신의 의병장 한상열(韓相烈)도 자신이 이끌던 250여 명의 의병 대원들을 이끌고 13도창의군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반·유생 출신이었습니다.

한편 신돌석, 홍범도(洪範圖)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은 힘을 합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연합 전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뿌리 깊게 존재하던 성리학 사상의 신분 질서와 차별이 아직 남아 있어 모든 세력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한 당시 의병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은 13도창의군을 경기도 양주로 집결시키고 서둘러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1908년 초순, 13도창의군의 선발대가 현재의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미 의병 연합 부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길목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력과 물자, 무기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일본군은 창의군을 압도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3도창의군의 선발대를 선제공격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후속 부대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창의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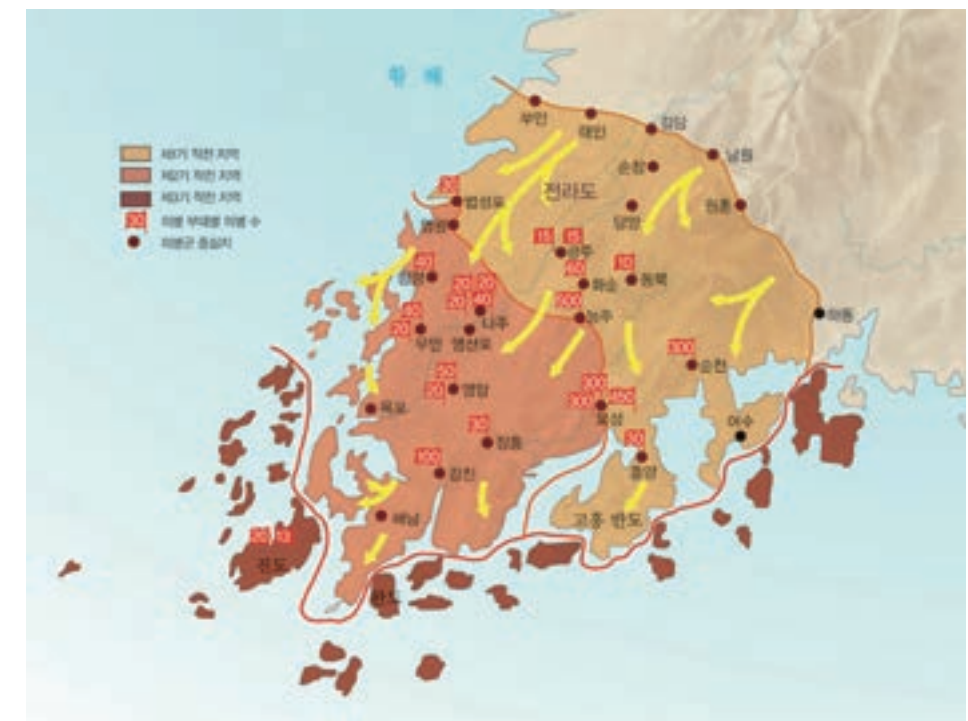
이 와중에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08년 1월 28일,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부고 소식을 전해 받은 이인영은 그날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뒷일을 군사장 허위에게 맡기고 본가인 문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친의 장례 이후 각지의 의병들은 다시 이인영을 찾아 복귀할 것을 간청했으나, 의병장이기 이전에 양반·유생이었던 그는 “부친에게 3년 상의 효도를 다 한 후에 복귀하겠다.”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인영의 뒤를 이은 허위는 서울진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대장의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후속 작전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3도창의군은 해산하였고 의병장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정미의병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지방의 의병 부대가 지리산과 전라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식민 지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남부 지방의 의병 부대들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1909년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본이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칭한 학살이 이



▲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의 상황도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15) 불이 붙은 화승(도화선)을 점화구에 갖다 대어 총알을 발사하는 방식의 총이다.

루어졌습니다. 의병들은 나름대로 분전하였으나 1909년 초·중순에 이르러 대부분 전사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토벌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병들은 대부분 만주 등지로 터를 옮겨 독립 전쟁에 참여했고, 일부는 한반도 내에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 1909년을 전후로 시행된 일제의 의병 대탄압. 일제는 체포된 의병들을 처형한 뒤 걸어두어 본보기로 보였다.

♣ 정미의병 시기 황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18쪽으로

4절 자랑스러운 황성에서의 의병 운동

4절에서는 앞서 1~3절에서 살펴본 을미·을사·정미의병의 순서대로 당시 황성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내용은 황성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활동과 관련 역사 유적을 함께 알아보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황성에서 일어난 을미의병

① 을미의병 시기 황성의 역할

의병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황성 지역은 의병을 일으키자는 분위기가 가장 적극적인 곳 중 하나였으며 의병 운동 연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성과 동서남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대규모 의병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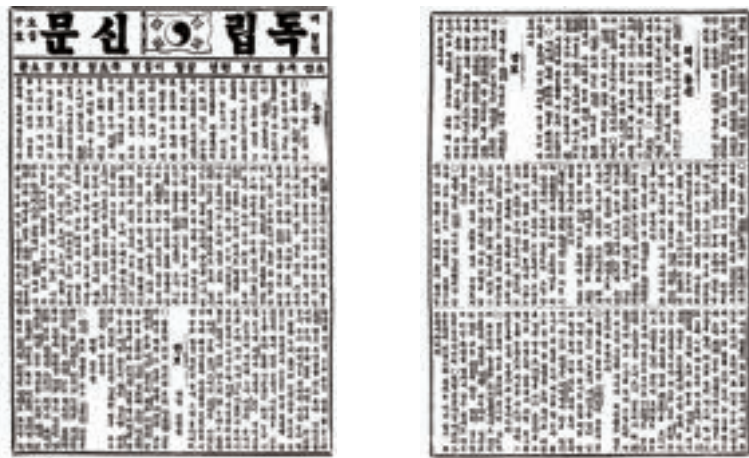
을미의병 시기, 황성의 동쪽에서는 강릉에서 민용호(閔龍鎬)가 의병을 일으켰고, 북서부에 위치한 춘천과 가평에서도 이소응 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황성 남쪽으로는 제천의 유인석 부대와 충주 의병이 대규모로 봉기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횡성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원주 지역에서도 의병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을미의병 당시 횡성 지역은 다양한 의병 운동 세력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횡성 지역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구성해서 활동했다기보다는 횡성을 둘러싼 각 지역의 의병 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② 강원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 권대형

을미의병을 비롯한 의병 운동 초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횡성 출신 의병으로는 권대형(權大亨)이 있습니다. 권대형은 앞서 언급한 강릉의 민용호 부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기록이 적어 정확히 어떤 시기에 그가 민용호 휘하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권대형은 1896년을 전후로 하여 민용호와 함께 강원도 영동 지방의 고성, 양양 등지를 점령하고 친일 군수를 처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는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면서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자 1, 2면 기사

“ ‘팔월 칠일 사령 겸 양양군수 조관현씨가 군부에 보고 하였는데 비도 괴수 민용호, 민동식, 성익현, 차운옥, 권대형 등이 강능 영서로 패하여 달아나다 소대장 유성원 씨에게 쫓긴 바 되어 회양 금성으로 달아났다 하기로 소대장 이규갑씨로 치게 하고 소대장 박제범씨 이상준씨로 삼척 비도를 치고 강능 비도를 칠 때에 말 일곱 필을 얻었다고 하였더라.’ ”

횡성에서 일어난 을사의병

① 죽음 앞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은 원용팔

을사의병이 봉기하였던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횡성 지역에서 활발한 의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횡성에서 의병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용팔(元容八)이 있습니다.

원용팔은 을미의병 시기부터 의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을미의병 당시 여주의 심상희(沈相禧) 의병 부대에서 후군장으로 임명되어 크게 활약하였고, 여주 의병 부대가 해산하자 제천의 유인석 의병 부대에 합류하여 짧은 기간(약 15일) 중군장 직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치가 발표되자 낙향하였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4개월여 전인 1905년 7월, 원용팔은 다시 횡성·원주·영월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더 이상 묵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월에 들어 그는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며 의병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원용팔 의병 부대의 병력은 1905년 10월 초가 되어 1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주의 군대(원주진위대)는 원용팔의 활동을 주시했습니다. 원용팔 부대와 연합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원주진위대는 대한제국군으로서 (정부 입장에서) 불법으로 병력을 모으는 의병을 진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진위대가 보기에 당시 일본의 침략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에 원용팔 의병 부대와 연합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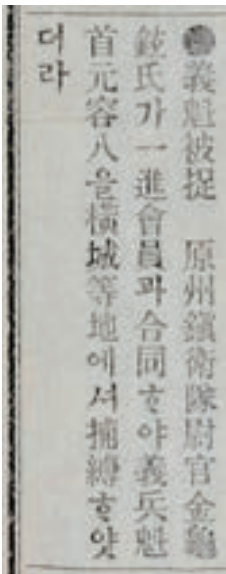
그러나 원용팔 의병 부대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일본군 헌병대가 진압 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원주진위대에 전해졌습니다. 일본군이 직접 진압에 나서면 횡성·원주 인근의 마을은 초토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원주진위대는 원용팔과의 연합안을 폐기하고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일본군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원용팔을 체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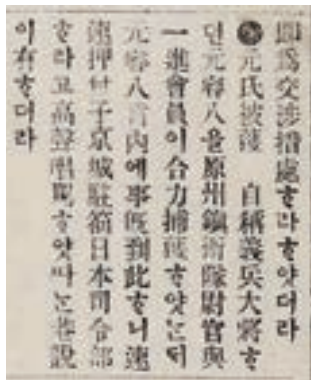
▲ 횡성군에 위치한 원용팔 생가의 모습.(2023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친 모습이다.
©독립기념관

자 한 것입니다.

원주진위대는 원용팔을 체포하기 위해 친일 단체인 일진회(一進會)¹⁶를 동원하여 합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용팔은 횡성에서 체포되었고, 대장을 잃은 그의 부대도 해산하였습니다. 원용팔은 이후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 『황성신문』
1905년 10월 3일 자 2면 기사



◀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3일 2면 기사

“원주진위대 위관 김구현씨가 일진회원과 합동하여 의병괴수 원용팔을 횡성 등지에서 포박하였더라.”

“자칭 의병대장이라하던 원용팔을 원주진위대 위관과 일진회원이 힘을 합쳐 포획하였는데, ...”

그러나 체포된 이후에도 원용팔의 기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이 주는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이후에 이어진 심문에서 원용팔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16)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친일 단체로,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될 때까지 일제의 군부나 통감부의 배후 조종하에 앞잡이 행각을 벌였다.

“나를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동대문 밖에만 나가면 나는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안사람들과 함께할 것이고, 집안사람들도 호응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의병을 일으킬 것이다.”

원용팔의 기세와 용기에 질린 일본군 육군 대장 하세가와(長谷川好道)는 결국 회유를 포기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원용팔은 수감 중에도 식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영양실조로 병을 얻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순국하였습니다. 원용팔의 공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② 김인즙, 눈물로 상소하다

횡성 출신 인물이 을사늑약 체결에 분개하여 시위를 전개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횡성 출신 김인즙(金仁즙)은 동지들과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1월 27일, 김인즙은 고종 황제에게 전할 상소문을 들고 덕수궁 대한문(大漢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와 동지들의 등 뒤에는 도끼가 둘러 메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잡혀갈 때까지 눈물로 상소할 결심이었습니다.

▼ 덕수궁 대한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을사늑약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한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김인준과 동료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시위도 잠시, 곧 일본 헌병 경찰대가 진압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김인준과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횡성에서 일어난 정미의병

① 강원 최대의 의병 부대를 이끈 민공호

앞서 3절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1907년, 민공호는 일본에 의해 강제 군대 해산이 발표되자 원주진위대를 이끌고 즉시 봉기하였습니다. (106쪽 참고) 그의 부대는 초기에 우편 취급소를 습격하는 등 원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저항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과 경찰의 감시가 극심해져 원주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에 그는 횡성으로 이동하여 봉복사를 주둔지로 삼았습니다.



▲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민공호 의병대장의 묘소와 충혼탑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민공호 의병 부대는 횡성 봉복사를 거점으로 하여 9월 초순에는 북쪽으로 홍천, 춘천 지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민공호 부대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홍천에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민공호의 활약 소식이 전해지자, 이강년 의병 부대 등이 봉복사로 합류하였고 부대 규모는 순식간에 수백 단위로 커졌습니다.

일본군에게 있어 민공호 의병 부대의 활약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대규모 공격을 벌여 이들의 근거지 봉복사를 아예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횡성 봉복사와 의병 운동

16세기 조선 중기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의하면 봉복사(奉福寺 혹은 鳳腹寺)는 신라 선덕여왕 16년(647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었습니다. 이후 봉복사는 승려 100여 명이 수도 생활을 할 정도로 크게 번창하였지만,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며 몇 번이나 불에 탔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복사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1900년대 초반이 되어 봉복사는 의병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봉복사가 위치한 태기산은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산성까지 자리하고 있어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고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단계에서부터 강원도 지역의 많은 의병장은 봉복사를 근거지로 삼아 일본군에 맞서 싸우거나 다른 의병 세력과의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정미의병 시기, 민공호도 이러한 이유로 봉복사를 주둔지로 삼고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 봉복사 옛 터와 현재 봉복사의 모습(한국관광공사).
지금의 봉복사 건물 위치는 의병 운동 시기 봉복사가 자리 잡았던 곳과 다르다.



였습니다. 1907년 9월 23일, 일본군은 비밀리에 특별부대와 기관총을 동원하여 봉복사를 공격하였습니다.(봉복사 전투) 민궁호 부대는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투에서 부대원 50여 명이 전사하였고, 봉복사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던 도중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이때 불타 없어진 봉복사 건물은 일제강점기 시기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다시 지어졌으나, 6·25 전쟁 중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봉복사는 전쟁 이후 다시 한번 소규모로 중건한 것입니다.

민궁호는 이후 영월·홍천·제천·고성 등지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가다가 1907년 11월, 13도창의군에 합류하여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진공작전이 무산되고 13도창의군이 해체하자 민궁호도 다시 원주 지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11쪽 참고) 원주로 돌아온 그는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의병부대를 이끌며 1908년 1~2월까지 맹활약하였습니다.

민궁호 부대의 활약이 커질수록 일본의 견제 또한 심해져 갔고, 그의 부대는 일본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2월 29일,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민궁호가 일본군에 체포된 것입니다.



▲ 횡성군 강림면 의병대장 민궁호 전적비. 민궁호가 체포된 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908년 2월에 들어 민공호 부대는 혹독한 강원도의 겨울에 대비하고 일본군의 감시를 피하고자 원주 치악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석경사(石逕寺)라는 절에서 민공호를 만나고 싶다는 강원도 선유사¹⁷ 박선빈(朴善斌)의 요청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2월 27일, 민공호는 박선빈을 만나기 위해 의병 90명을 이끌고 석경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뜻하지 않게 강림(講林, 현재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박달산 부근에서 일본군과 마주치게 되었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민공호 부대는 전투 끝에 일본군을 물리쳤지만, 이로 인해 위치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전투 이후 잠시 숨을 고르고자 민공호 부대는 강림 동쪽 10리 방면에 위치하였던 횡성 궐덕리(蕨德里)에 숙영¹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민공호의 행방을 쫓던 일본군 정찰 부대가 그의 숙영지를 찾아냈습니다. 민공호 부대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 심 씨가 일본군에 그의 위치를 밀고한 것입니다. 그 즉시 일본군은 대대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민공호 부대를 기습하였습니다.

2월 29일, 일본군은 횡성 궐덕리를 동쪽과 남쪽 방면에서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민공호 부대는 필생즉사 사즉필생의 각오로 3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일본군의 병력과 화력 앞에서 의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결국 의병 20여 명이 전사하였고 민공호 또한 사로잡혀 강림 주재소(현 강림초등학교 뒤편)로 압송되었습니다.(궐덕리 전투)

민공호가 체포되자 남은 그의 부하들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대장을 구출해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2월 29일 밤, 민공호 의병 부대 60여 명이 강림을 습격하였습니다.

“우리 대장 민 씨는 어디 계시는지 소리를 치시오!”

부하들의 외침에 민공호가 답하였고, 의병들은 민공호의 포박을 풀어 주었습니다. 민공호는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있는 힘껏 뛰어나갔지만, 금세 일

17) 선유사(宣諭使)는 전쟁 등 병란이 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살피던 임시 벼슬이었다. 정미의병 당시에는 의병들을 회유하는 역할을 했다.

18) 군대가 훈련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영 밖에서 머물러 지내는 일.

본군에 다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민공호를 생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 대장은 결국 그를 강림 주재소 옆 건물에서 사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목을 잘라 원주로 보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민공호와 11명의 의병이 목숨을 달리하였습니다. 민공호 의병 부대는 이제 대장을 잃고 북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횡성 강림중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강림리 의병총은 궐덕리 전투에서 희생된 민공호 의병 부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전투 이후 의병들의 시신은 강림면 일대 10곳에 초라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1984년 횡성군은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이 묘소들을 한데 모아 묘역을 조성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조성된 의병총을 보고 있자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뜻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듯합니다.



▲ 강림리 의병총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② 횡성 출신의 전국구 의병장 한상열

횡성 출신으로 정미의병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던 의병장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한상열(韓相烈, 혹은 한상렬)입니다. 한상열은 횡성군 우천면 출신으로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민공호가 원주진위대 군인들을 이끌고 봉기하자, 고향인 횡성에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끌

던 의병 부대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200~250명이었는데, 세력이 가장 강성하였을 때는 1,2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한상열 부대는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지평(양평)·홍천·원주·평창·영월 등지에서 500여 차례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활약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미 한상열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일본군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1907년 말에 이르러 이인영의 부름을 받은 전국의 의병 부대가 횡성 고모곡(현재 횡성군 서원면)으로 집결하자, 한상열 또한 자신이 이끄는 의병 부대를 이끌고 합류하였습니다. 한상열 부대는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이 시행될 때 횡성 지역을 무대로 일본군과 대치함으로써 연합 의병 부대의 후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황성신문』 1907년 11월 10일 자 「의도행동」 기사

“... 10여 일 전부터 점차 모여 횡성~지평간 모고곡(고모곡을 오표기 한 것, 현재 횡성군 서원면)이라 칭하는 큰 땅에 모여서 ... 그 곳에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수가 8,000명 이상이라 한다. ... 민공호 등 200여 명, 한상열 등 250여 명, 이인영 등 200여 명 ...”

이후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13도창의군이 해산하자 한상열은 다시 횡성·홍천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병 부대를 재정비하여, 1908년 2월 홍천에서 일본의 대규모 부대를 격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한상열 부대는 4월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에 패퇴하였는데, 이때 일본군은 한상열의 아내와 자식들을 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판을 흔들고자 하는 치졸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열은 일본의 비겁한 수법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횡성을 습격하는 등 엄청난 기개와 용기를 보였습니다.

한상열 부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의병 탄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특히 강원도 최대의 의병 부대를 이끌던 민공호가 체포된 시점에 들어서는 더 이상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한상열은 1908년 8월을 전후하여 만주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무장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한상열은 1919년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에 들어가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김좌진(金佐鎭)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적극적으로 광복을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1926년 9월 19일 공산당원의 총탄에 맞아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상열 의사의 고향인 횡성 우천면에 위치한 횡성참전기념공원 한편에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은 한상열 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혼백을 위로하고자 일 년에 한번씩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 한상열 의사 추모비.
횡성참전기념공원 안에 세워져 있다.



▲ 2024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모습. 의병을 포함한 횡성 출신 호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횡성군청

③ 이름 없는 이들의 무덤, 금대리 의병총



▲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
©독립기념관

횡성에는 강림리 의병총 외에도 지역의 이름을 딴 의병총이 하나 더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에 위치한 ‘금대리 의병총’입니다. 무덤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무덤의 주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무덤의 주인들은 왜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였을까요?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덤의 주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정미의병 단계에서 이은찬과 이은구의 설득으로 이인영이 합류하여 강원도 지역에 의병 연합 부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109쪽 참고) 이때 이인영이 이끌었던 부대는 고모곡에 자리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입니다. 이후 이인영은 전국의 의병 부대를 하나로 규합하여 13도창의군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시기 강원도에서 의병 부대를 이끌고 있던 방관일(方觀一) 또한 이인영이 전국 각지의 의병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907년 11월 경, 자신이 의병 부대 700여 명을 이끌고 이인영 부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방관일은 이인영을 도와 의병 부대의 주둔지인 횡성 고모곡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방관일 부대가 맡은 주요 임무는 주둔지인 고모곡 방면을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횡성군과 고모곡. 횡성에서 시선을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면 고모곡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고모곡(서원면)은 조선시대까지 원주군에 포함되어 있다가 1895년(고종32년) 횡성군으로 편입되었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한편 횡성 방면에서 거대한 의병 연합 부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은 일본 정부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사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이들을 소탕하고자 대규모 군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병 연합 부대의 주둔지를 지키던 방관일 의병 부대와 일본군 제51연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부대에는 보병뿐만 아니라 포병¹⁹⁾과 공병²⁰⁾대가 포함되어 있어 화력과 규모 면에서 방관일 부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관일 부대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바쳐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19) 포병(砲兵)은 대포 종류로 무장한 병과 또는 그에 딸린 군인을 의미한다.

20) 공병(工兵)은 군사상의 건설, 파괴, 측량, 위장, 길이나 다리 가설 등과 같은 기술적 공사를 맡아 하는 병과 또는 그에 딸린 군인을 의미한다.

전투 도중 많은 의병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적어 방관일 부대가 승리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진공작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방관일 부대가 방어에 성공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횡성군 서원면에서는 당시 고모곡 주민들이 전사한 의병들의 시신 일부를 수습하여 작게나마 6기의 무덤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발견된 무덤은 3기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신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 횡성군은 순국한 의병들의 뜻을 늦게나마 기리기 위해 흩어져 있던 3기의 무덤을 하나로 합쳐 묘역을 정비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금대리 의병총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의 금대리 의병총 모습은 2009년에 한 번 더 묘역을 정비한 것입니다.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에서는 지금까지도 매년 가을 금대리 의병총에 묻힌 무연고 의병의 넋을 기리는 제례²¹⁾를 열어, 그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마을회가 금대리 의병총에서 제례를 지내는 모습
©강원도민일보

21) 제사를 지내는 의례(儀禮).

의병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시험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 알아본 의병들의 항쟁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의병들은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글을 쓰고 있는 선생님 역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편하게 잠에 들 수 있는 이유는 100여 년 전 의병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어쩌면 의병들이 흘린 피로 단단하게 다져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의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이번 장에서 잠시나마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장

3·1운동과 황성군민만세운동

1절 일제의 군대식 지배, 1910년대 무단통치

2절 3·1 운동, 한반도에 울려 퍼진 우리 민족의 절규

3절 황성군민 만세운동, 황성 시장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4절 3·1 운동의 의의

4장

3·1운동과 황성군민 만세운동



▲ 3·1 운동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일본인들은 일본 땅으로 물러가라!”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구슬픈 외침이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3·1 운동’이라 부르고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3월 2일부터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단순히 겨울 방학이 하루 더 길어지는 것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3월 1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 황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거국적, 민족적 운동이었던 3·1 운동과 황성군민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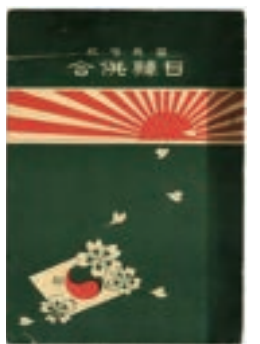
1절 일제의 군대식 지배, 1910년대 무단통치

‘경술국치(庚戌國恥)’, 일본 제국(이하 일제)의 침략으로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가슴 아픈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제는 1800년대 중반부터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 조선의 문을 열었고, 이후 본격적인 식민 침략을 자행하였습니다. 3장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은 의병 운동을 벌이며 저항하였지만, 일제의 침략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경술국치 9년 후인 191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3·1 운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기 전에 먼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창덕궁 대조전에 위치한 흥복헌(興福軒). 이곳에서 이완용(李完用) 등 친일파와 일본 관료들의 주도로 한일병합조약에 찬성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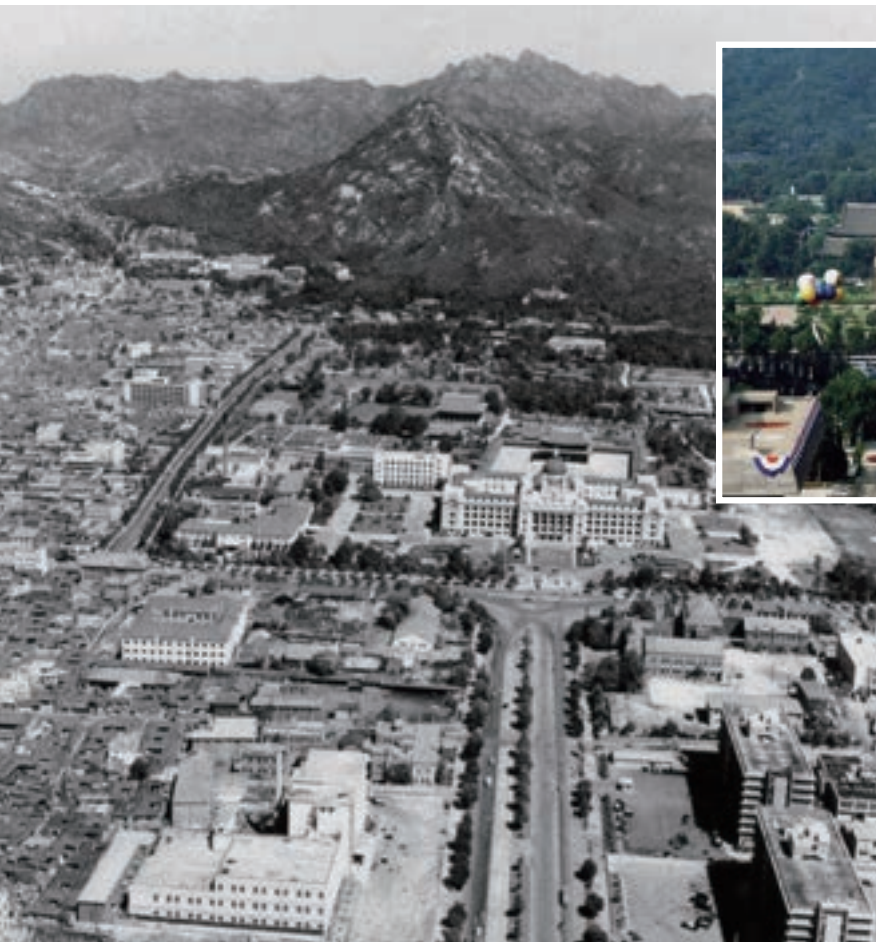


▲ 경술국치 당일에 발간된 소책자 「國民唱歌 日韓併合(국민창가 일한병합)」. 표지에 벚꽃잎에 스러지는 듯한 태극기와 뻗어오르는 욱일기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지에는 한일병합을 기념하는 노래 2곡의 악보와 가사집이 수록되어 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을 흔히 ‘무단통치(武斷統治)’라 부릅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해 한국인을 압박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지요. 일제의 입장에서 식민 지배의 첫 단계부터 한국인들의 기를 죽이고 길들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식민 지배가 더욱 단단해지고 쉬워질 테니 말이지요. 이러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주목해 볼만한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나타납니다.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헌병 경찰

먼저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최고 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경복궁 앞, 현재의 광화문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 조선총독부 건물. 경복궁 앞 광화문 자리에 지어졌다. 왼쪽 사진에서 건물의 각도가 약간 비스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북한산으로부터 경복궁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흠어 버리고자 비스듬하게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 1995~1996년,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모습.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 조선총독부 철거 이후 현재 경복궁의 모습(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이성우)
북한산부터 경복궁, 광화문까지 탁 트인 전경이 아름답다.





▲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 正毅).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며 1910년대 무단통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조선 총독 퇴임 직후 일본 총리에 취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 총독은 일왕에 직속되어 있었고 한반도에서 입법권, 행정권, 군사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조선 총독의 말 한마디에 산이 옮겨지고 강이 만들어지며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조선 총독은 일본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임명하였으며 35년 동안 10대에 걸쳐 8명의 총독이 존재했습니다.

조선 총독 밑으로는 여러 개의 정치·행정 조직이 있었는데 고위직에는 대부분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예외적으로 소수의 친일파 한국인이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로는 재판소가 독립되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소의 재판관, 직원 등을 모두 조선 총독이 임명하였으므로 사법부 또한 총독부의 보조 기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통해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헌병은 오늘날 ‘군사 경찰’로 불리는데, 말 그대로 군대 내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질서 유지, 군기 확립 등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헌병이 무단통치 시기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일제가 한국인들을 마치 군대식으로 억압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전국의 도(道)에는 육군 소좌(오늘날의 소령 격) 지위의 헌병 대장이 존재하였습니다. 헌병 대장은 ‘범죄 즉결례(犯罪即決例)’라는 법에 따라 3개월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 정식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모습이다. 1935년의 사진으로 헌병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 일본 헌병이 한국인을 공개 처형하고 있다.

「범죄즉결례」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태형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형법 제208조의 죄
3.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는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17절 및 제20절의 죄
4.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 3월 이하의 징역·금고·금옥이나 구류·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행정법규 위반의 죄

오늘날에는 아무리 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이 권리는 막대한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헌병들은 많은 경우에 위생 상태, 불성실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한국인들을 재판 없이 즉결 심판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억압받고 상처 입어야만 했습니다.

도 이하 군(郡)에는 헌병분견소가, 면(面)에는 헌병파견소가 설치되어 경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헌병분견소와 헌병파견소에는 일본 헌병이 배치되었고, 헌병을 보조하는 헌병보조원이 존재하였습니다. 헌병보조원은 지역 사회의 정보를 헌병에게 전달하고 지역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보통 친일파 한국인이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황성 지역은 지방행정 조직상 군에 속했기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황성 헌병분견소의 위치는 현재의 황성군청 뒤편 보훈 공원에서 3·1 공원으로 올라



▲ 현 황성군청 뒤편 보훈 공원 주차장에서 3·1 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일제강점기 시기 이곳에 황성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언덕은 황성을 내에서 고도가 높은 편으로 군민들을 감시하고 봉기에 대비하기 편리했을 것이다.

가는 언덕 인근이었습니다.

한편 황성군의 행정기관으로는 군청이 존재했고 책임자는 군수였으나 실제 권력은 헌병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¹⁾

헌병분견소장은 ‘조선태형령(朝鮮答刑令)’이라는 법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징역까지 최대 90대의 태형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 1원, 징역 1일당 태형 1대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태형은 ‘때리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정식 재판 없이 죄인의 영당이 좌우 부분을 길이 약 55cm, 너비 약 0.8cm의 대나무 매로 때리는 전근대적·폭력적인 제도였습니다.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고 헌병 기관에서 비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조선태형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 제 1 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 태형에 처할 수 있다.
- 제 4 조 이 영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1태로 계산하며 ...
- 제 6 조 태형은 태로 불기를 때려 집행한다.
-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로 집행한다.
-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태형 도구

©서대문 독립 공원 역사전시관



▲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

1)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당시, 황성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는 심상준(沈相俊)이라는 한국인이었으나 친일적인 색채가 강했다.

태형을 맞게 되면 한두 대만으로도 살가죽이 찢어지는 등 극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운이 나쁜 경우에는 장애가 생기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맞은 부위의 상처가 감염되거나 태형 집행 중 척추 신경이 손상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태형을 통해 조선인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심음으로써 조선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한편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한국인의 집회, 결사²⁾, 언론·출판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인들의 불만이 커져 분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반포하여 한국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의 교육 연한을 일본인은 6년, 한국인은 4년으로 다르게 적용하여 한국인들이 제대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차별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지방의 사정에 따라 1년까지 교육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초등 교육 기간을 축소하였습니다.

「조선교육령」 칙령 제229호

-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 목포공립학교(현 북교초등학교) 교원 사진. 일본인 교장이 1907년에 설립하였다. 학교 교원들이 군인처럼 제복 및 칼을 착용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함. 또는 그렇게 조직된 단체.

이에 더하여 한국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제복을 입고 큰 칼을 찬 상태로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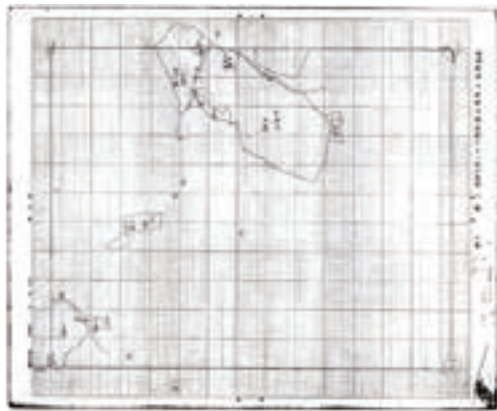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강압적인 무단통치와 더불어 일제는 경제적으로도 대규모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공산품의 생산 및 도시 노동자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촌락의 농업 인구와 쌀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쌀로 하는 일본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는 발전하는데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고,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1.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여 일본 본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2.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혈값에 원료를 수입한 뒤, 일본에서 상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3.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한반도의 식량 생산을 높인다.
- ”



▲ 일제가 토지 조사를 위해 땅을 측량하는 모습.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관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독립기념관



▲ 1916년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에서 작성한 토지 조사 문서. 일제는 토지를 측량한 뒤 통계용 용지에 기록하였다. 이 지도에 표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최영원, 이종호, 이월봉, 김택경, 최백심 등이었다.
©국가기록원

경제 수탈 계획의 첫 단계로서 일제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강행하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겉보기로는 한국의 토지 제도를 근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한국의 토지 제도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의 토지를 근대적으로 정비해 주려 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주장은 사업의 명분을 세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목적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토지를 수탈하고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토지조사사업(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한 바 있었습니다.(98쪽 참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땅 주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땅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본인이 땅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농민들의 생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로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한국 농민이 패배하여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하는 토지의 경계 문제나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는 소유권 문제는 대부분 한국인과 일본인 혹은 개인 소유 땅과 국가 소유의 땅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진 1910년대 당시 토지 분쟁은 약 3만 3천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화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만 2천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조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분쟁에서 한국 농민들은 패배하였고 토지를 총독부에 빼앗기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둘째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과정 중에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소작농³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경작권이란 토지 소유권과는 달리 ‘내 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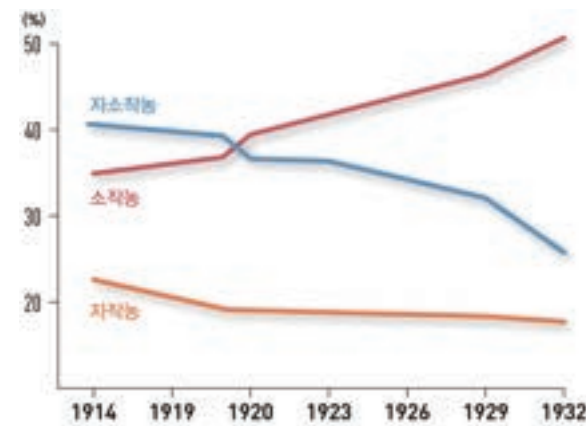
▲ 1904년 대한제국 시기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급된 지계.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대한제국은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발행하였다.

3) 땅 주인(지주)으로부터 농사지를 땅을 빌리고, 수확량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을 말한다.

아니지만, 특정 토지를 빌려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대로 땅 주인과 그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의 관계가 긴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의 양반 집안 땅을 그 마을의 소작농 집안에서 대대로 빌려 농사지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경작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소작인이 집안 대대로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 일제강점기 한국인 소작농의 불우한 생활 모습



▲ 일제강점기 자작농⁴과 소작농 비율 변화. 그래프를 보면 자작농과 자·소작농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작농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

결과적으로 토지조사사업 이후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과 공공 기관의 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빼앗은 땅을 다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되팔았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일본인 농사 경영자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유 면적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땅은 1.5배 이상 증가했고, 실제로 세금을 걷은 양(지세 징수액) 역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인 자작농은 몰락하였고 일본인이나 친일파 지주 밑에서 일하는 소

4) 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민이나 농가.

5) 자신의 땅과 빌린 땅에서 동시에 농사짓는 농민이나 농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소작을 해야 했다.

작농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일제는 1910년 12월 ‘회사령(會社令)’을 공포하였습니다. 회사령의 내용은 한반도 내에 회사를 설립할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계도 한국인이 회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조선총독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령을 통해 한국 기업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일제는 식민 지배 이후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단순히 일본의 식량·원료 공급지이자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만 기능하도록 억제하였습니다.

2절 3·1 운동, 한반도에 울려 퍼진 우리 민족의 절규

우리 민족은 일제의 1910년대 무단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항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민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의병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밀결사⁶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외에서는 만주와 연해주, 중국 관내, 미주 등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압적 통치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식민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그 날은 멀게만 느껴졌고 분노는 화산 밑의 용암처럼 쌓여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드디어 10년간 쌓여왔던 우리 민족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3·1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3·1 운동의 구체적인 배경 및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1910년대 당시, 세계 각국은 제

6) 소재지나 구성원, 행동강령 혹은 그 조직의 존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단체나 모임 등을 말한다.



▲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미국 제28대 대통령



▲ 미국 「시애틀 데일리 스타」에 '14개조 평화 원칙'을 보도하는 기사가 실렸다.

1차 세계대전⁷⁾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의 3국 동맹(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연합국)이 부딪히는 형태로 발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일본 등의 국가가 추가로 연합국 측에 가담하였습니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14개 조 평화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14개 조 원칙에는 공개적인 평화조약을 맺을 것, 군비를 축소할 것 등의 내용과 함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라는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당시 만연하였던 서양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자, 한국의 민족주의자들도 크게 흥분하였습니다. 민족자결주의에 의하면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는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한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동맹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즉, 민족자결주의는 승전국(연합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었지요.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 하나였으므로 한국에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민족운동가 중에서는 이 점을 인지한 사람도,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18년 11월, 드디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승전국의 대표들

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파리강화회의) 이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국제 사회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김규식(金奎植) 등이 파리에 파견되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한청년당의 활약은 이후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이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한 연합국 정상들의 모습. 왼쪽부터 조지(David Lloyd George) 영국 총리, 오를란도(Vittorio Emanuele Orlando) 이탈리아 총리,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프랑스 총리, 윌슨 미국 대통령.



▲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과 한국대표단.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규식,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조소앙이다. 김규식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외친 2·8 독립선언

국제 정세의 변화와 신한청년당의 활동은 당시 일본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국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의지를 자극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자 하였고 그 뜻을 신한청년당에도 알렸습니다. 김규식은 유학생들의 뜻에 호응하여 급히 조소앙(趙素昂)을 도쿄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소앙의 지도에 따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이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일본 수도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당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이광수(李光洙)가 2·8 독립선언서의 원문을 작성했습니다.



▲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생전 모습. 일제강점기 초 독립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1930년대 말 친일파로 변모하였다.

7)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이어졌다.



▲ 2·8 독립선언 주도 인물들이다. 가운데 줄 왼쪽에서 4번째 인물이 백관수(白寬洙)이다.
사진 속 몇 명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1919년 2월 8일, 도쿄에 위치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조선청년독립단 단원과 약 400명의 유학생이 모였습니다. 시위대의 지도자 격인 백관수(白寬洙)가 앞으로 나서서 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전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가 승리를 거둔 세계 여러 나라의 앞에서 기필코 독립을 이루겠다는 뜻을 널리 알리노라...!”



▲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인 도쿄 히비야 공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 유학생들은 도로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화들짝 놀란 일본 경찰은 무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고, 약 60명의 유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당초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중심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이들 중 시위를 주도한 최소의 인원(8명)만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 유학생들은 이후 일본 본토 내에서 2월 내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로 빠져나간 이광수에 의해 한반도와 해외에 2·8 독립선언이 보도되며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민심 악화

2·8 독립선언이 있기 며칠 전, 1919년 1월 21일에 우리 민족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애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강제 병합 전 1907년,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별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것이었지요.

따라서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민족에게 슬픔과 동시에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종독살설은 날이 갈수록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고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으며 반일 감정은 극도로 커졌습니다.



▲ 『매일신보』 1919년 1월 23일 자 보도. 조선총독부는 고종이 1월 21일이 아닌 1월 22일에 죽었다고 잘못 발표했다. 이에 한국인들의 민심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종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이 양산되었다.



▲ 1919년 3월 1일 아침 서울 시내에 배포된 「국민회보」 필사본. 이 기사에는 국민회의 명의로 ‘이완용 등이 궁녀들을 끌어들이고 고종에게 독이 든 식혜를 먹였고, 이에 고종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고종의 장례 행렬 모습. 수많은 민중이 거리로 나와 고종의 죽음을 애도했다.

3.1 운동의 발생

1918년 말부터 1919년까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다양한 세력의 움직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는 천도교(옛 동학),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와 학생·청년층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각 세력은 점차 따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거족적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월 중하순 경 3·1 운동의 주도 세력이 단일화되었습니다.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 등 천도교 세력 15인과 이승훈 등 기독교 계열 16인, 한용운 등 불교계 2인이 거사 계획에 서명하여 민족 대표 33인이 결성된 것입니다.



▲ 민족 대표 33인. 서울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림 안에 모인 인물은 33명이 아닌 29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길선주,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 등 4명이 당시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민족 대표 33인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거족적 민족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3월 3일로 예정된 고종의 장례일에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서울 탑골공원(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거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들은 이후 만세 운동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과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인지한 것입니다.

첫째는 거사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까지 한반도에는 아직 성리학 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장례일(3월 3일)에 만세 운동을 거행하게 되면 양반·유생 계층은 반감을 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대표들은 계획을 이틀 앞당겨 3월 1일 오후 2시에 만세 운동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한 번에 많은 인파가 모이면 이를 진압하려는 일제 경찰 및 군대에 의해 유혈사태가 발생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선언 주체와 장소를 변경하여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민족 대표들끼리만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한 후 민족 대표 측은 독립 만세운동 준비를 위해 독립선언서 원고 21,000여 매를 인쇄한 뒤, 서울과 각 지방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방으로 배포된 독립선언서는 3월 11일경 황성에도 전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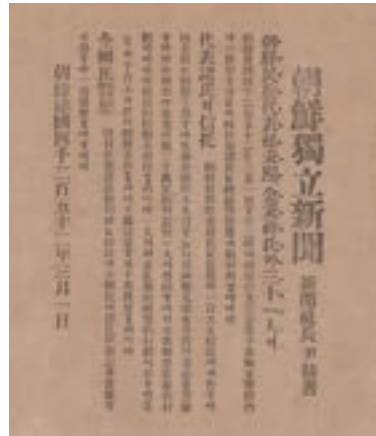
▲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 1919년 3월 민족 대표 33인이 공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좌측면에 조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선언서 본문에는 독립의 의지와 당위성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선언서의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여 점심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가까워진 시각,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태화관에 “대한독립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조선총독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자수함으로써 유혈사태

▶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 창간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와 함께 인쇄되어 배포한 지하신문⁸⁾이다. 기사에는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뒤 체포된 사건과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일본 경찰 수십 명이 태화관 주위를 포위하였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연행되었습니다.

3월 1일 같은 시각, 서울 탑골 공원에는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는 학생 등 민중 5천여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변경된 날짜와 시간만 공지했을 뿐 나머지 사항들은 민중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한 오후 2시가 되어도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민중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탑골 공원의 팔각정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의연하게 큰 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정재용의 낭독이 끝나자 탑골 공원 인근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가 흔들렸고 독립선언서가 온 하늘을 매우며 쏟아졌습니다. 고종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자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 공원 문을 나와 해가 저물도록 거리에서 시위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3월 1일에 이루어진 서울에서의 만세 운동에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이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단 1건의 폭행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일제에 보여준 것입니다.



▲ 정재용(鄭在鎔) 선생의 생전 모습. 민족 대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숨어서 발행하는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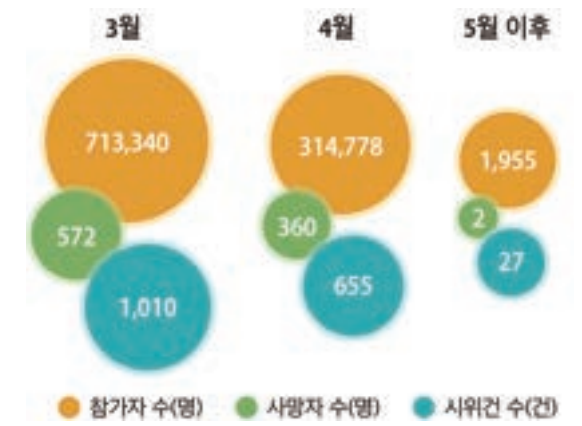
▲ 탑골 공원(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
©독립기념관



▲ 한국인들이 대한문 앞 공원에 모여 만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무장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전개된 3·1 운동에 대하여 일제는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경찰과 군부대를 동원하여 칼과 총을 들이민 것입니다. 무자비한 진압 작전에 1919년 3월에만 500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3.1운동 월별 총 시위·참가자·사망자 통계(1919년 3~5월)
©금성출판사



▲ 3.1운동 당시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열해 있는 일본 군경



▲ 일본 경찰과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조선인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얼굴과 복부 등의 상처를 보면 일본군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했는지 알 수 있다.



▲ 조선인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채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

그러나 일제의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 만세 운동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로 확산하였습니다. 3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전국 13도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세 운동은 주로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에 의해 지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고종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간 유학자들에 의해 시위가 확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으로 만세 운동이 확산하는 데에는 학생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왔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만세 운동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단독으로 시위를 전개한 지역도 전국에서 10여 곳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의 소식은 만주와 연해주, 미주 지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이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먼 타지에서 본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만세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제의 무력 진압 이후 3·1 운동의 성격도 점차 변화하였습니다. 비폭력적·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일제가 총과 칼을 들이밀자, 우리 민족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으로 3·1 운동이 확산하는 시점에는 3·1 운동의 성격이 점차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절 황성군민 만세운동, 황성 시장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 일제강점기 황성 시가지 전경. 지금 황성읍의 모습과는 다르게 높은 건물이 없고 대부분 초가집과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기념관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의 소식은 곧 황성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황성 시가지에서도 1919년 3월 27일과 4월 1~2일에 걸쳐 대규모 만세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성 지역의 만세 운동은 주로 천도교 계열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강원도 유일의 천도교 대교구가 황성군에 설치되어 있었기에 천도교 신자들의 수가 많았고 활동 또한 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도교만 황성군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은 아니고 감리교⁹⁾, 유교 등 다른 종교와 일반 민중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의 활동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황성군민 만세운동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3·1 운동 중 가장 초기의 것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조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황성과 인접한 다른 지역 사회에서 연쇄적으로 만세 운동이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내 독립 만세 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황성의 3·1 운동에 대하여 지금부터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1단계: 황성군민만세운동의 준비

1919년 3월, 전국의 여느 지방처럼 황성에도 수십만 명의 학생·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성에는 도내의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의 3·1 운동 소식이 비교적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황성 천도교회 출신 이동구(李東求)가 지속적으로 황성과 연락하며 서울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동구는 당시 서울 천도교 본부에서 의사원(議事員)이라는 직책의 간부로 일하면서 3·1 운동의 전국 확산에 직접 관여하며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는 서울에서의 3·1 운동 소식을 접한 뒤, 황성군민들과 함께 거족적 만세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이에 강달회(姜達會), 강만형(姜萬馨), 김인경(金麟卿), 신재근(申在根), 장도훈(張道勳) 등 황성 천도교회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황성군민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헌

9) 기독교 개신교의 한 교파이다



▲ 최중하 생전 모습. 최종하는 횡성 출신으로 당시 횡성에 설치되어 있던 강원도 천도교 대교구를 이끌고 있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 장도훈의 생전 모습. 장도훈은 평안남도 성천 출신으로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의병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1907년에 횡성 안흥면으로 이사하여 1919년 만세 운동 당시까지 횡성에 거주하였다. 횡성군민 만세운동 당시 장도훈은 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 3·1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태극기
 ©독립기념관

병의 감시를 피해 교회 사무실과 신재근의 집에 몰래 모여 만세 시위 준비를 위한 은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1. 서울로부터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해 온다.
 2. 횡성군민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다.
 3. 횡성군민들이 시가지에 많이 모이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여 만세 운동을 벌인다.
- ”

이들은 계획의 첫 단계로 서울에 가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해 오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인물은 장도훈이었습니다. 장도훈은 횡성 천도교회에서 마련해 준 3원을 가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가 서울로 도착하여 찾은 인물은 이동구였습니다. 이동구는 반갑게 그를 맞았고, 장도훈에게 큰 태극기 1폭, 창호지로 만든 태극기 20매, 독립선언서 40매를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3월 11일, 장도훈은 서울에서 구한 물품들을 가지고 횡성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장도훈의 복귀 이후, 횡성에서의 독립 만세운동 계획은 급전전 되었습니다. 횡성 천도교회 인물들은 계속해서 신재근의 집에 모여 회의하는 한편 횡성 곳곳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포는 장도훈 복귀 다음 날인 3월 12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월 12일(음력 2월 11일)은 횡성 장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가지에 많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좋았습니다.

한편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에서는 고종 황제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을 모아 학생들이 옷깃에 삼베로 만든 표식을 달고 등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제의 억압적인 무단통치와 교육적 차별에 대한 항의의 시위이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감시를 강화하고자 당시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군 병력 일부를 횡성 인근과 원주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경계가 강화됨에 따라 횡성·원주 일대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 현재 횡성초등학교의 전경. 횡성초등학교는 1911년 11월 1일 횡성(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횡성초등학교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삼엄해진 일제의 감시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신중히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어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시위하는데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단계: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전개

횡성군민 만세운동은 3월 27일, 4월 1~2일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중 4월 1일에 횡성읍에서 발생한 만세 운동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도 매년 4월 1일에 진행되는 것이지요. 한편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도 4월 12일에 독자적으로 만세 운동을 거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횡성에서 발생한 독립 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3월 27일의 만세 운동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의 고종 추모 운동 이후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3·1 운동 준비 세력은 더욱 신중하게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거사일은 3월 27일(음력 2월 26일)로 잡았습니다. 3월 27일은 황성 시장의 장날로, 황성 시가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거사 장소는 황성 시장터였습니다.

거사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황성 천도교회 인물들은 계속해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황성 및 원주에 배포하는 한편, 가능한 많은 상인과 군중들을 포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갑천면과 둔내면에는 김인경과 안경춘(安敬春)이, 원주 소초면에는 그곳 출신인 강만형이 나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황성 감리교 인사들과 유학자, 청년회원들이 합세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 황성 시장터의 위치. 오늘날 사거리 로터리가 자리 잡고 있다.
©독립기념관

3월 27일 거사 당일 아침, 당시 64세의 노인이었던 황성 천도교회 신재근은 대형 태극기를 접어 소중히 가슴에 품고 황성 시장터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22세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을 만나 대형 태극기를 건넸습니다. 이내 신재근과 윤태환을 포함한 만세 운동 지도자 12명이 모두 장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경이 되자 황성 시장에 모인 군중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후 1시 무

렵에는 모인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고 일제에 항의하는 철시 시위에 들어갔고 민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먼저 윤태환이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섰습니다.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나머지 11명 또한 윤태환을 따라 선두에 섰습니다. 곧이어 신재근이 군중 앞으로 나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일제 헌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황성 헌병분견소에서 사전에 시위를 눈치채고 급히 원주에 연락하여 감시 태세를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헌병과 군인들은 곧바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저지하고 군중들을 해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마경찰¹⁰⁾이 출동하여 군중 사이를 헤집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결국 신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끝까지 낭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당황하기보다는 그 즉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황성 시장에 모인 군중 300여 명도 이에 호응하여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황성을 전체가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일제 헌병과 군인들은 군중들의 시위를 멈추기 위해 지도자들부터 먼저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일 황성 시장에서 12명이 옛날 한국기를 흔들며 운동을 개시하기에 관계자 8명을 검거하였는데, 시장의 각 상점은 문을 닫고 있다. 원주에서 헌병 3명, 보병 4명이 응원차 왔다.’

- 당시 헌병 사령관(경무총감)의 비밀 보고문 -

‘오늘(3월 27일) 오후 1시 황성 읍내 시장에 약 3백 명이 집합하여 천도교도 8명과 그 외 4명이 한국 국기를 세우고 독립 만세를 부르기에 천도교도 8명을 포박하다.’

- 1919년 3월 27일 강원도 장관이 조선 총독에게 보낸 전신 보고문 -

‘... 이렇게 하여 3월 27일 황성 장날 윤태환이 큰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나섰으며 그 외 모두가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 3월 27일 주동자 판결문 중 -

10) 말 탄 경찰.



▲ 신재근의 생전 모습. 사진은 체포된 이후에 찍힌 것이다. 카드 뒷면에는 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결국 만세 운동 지도자 12명 중 8명(모두 천도교회 인물)이 체포되면서 3월 27일의 만세 운동은 해산되었습니다. 3월 27일에 체포된 인물 8명 중 현재 판결 기록이 확인되는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일제는 이들에게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보안법¹¹⁾을 적용하여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재근 징역 2년, 장도훈 징역 2년, 강만형 징역 8개월, 안경춘 징역 8개월, 윤태환 징역 6개월 등)

체포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매우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고 변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상급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요구도 서류 심사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재근은 상고과정 중 “나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正義)·인도(人道)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월 27일의 만세 운동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만세 운동 소식은 곧 황성군 내 마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만세 운동이 더욱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② 4월 1~2일의 만세 운동

3월 27일의 만세 운동을 지도하였던 천도교 주요 인사들이 헌병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은 천도교 신자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11) 1907년 일제가 한국인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일제는 보안법을 적용하여 항일 운동을 하는 인물과 단체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만세 운동을 일으키자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황성 천도교회는 3월 27일 만세 운동의 실패 원인을 밝힘으로써 계획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1. 헌병 경찰과 일본군이 만세 시위가 벌어질 것을 사전에 예측하였다.
 2. 만세 운동의 참여한 민중 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
 3. 만세 운동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
- ”

이에 황성 천도교회는 헌병 경찰과 일본군에 발각되지 않게 더욱 은밀히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활동 범위를 넓히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만세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황성 천도교회는 만세 운동 주도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황성 감리교회의 지도자 정해경(鄭海璟), 탁영재(卓英才) 등에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만세 운동 주도 세력을 더욱 조직화 및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황성 우천면, 안흥면, 갑천면부터 원주 소초면 둔둔리까지 사흘 밤낮 동안 산과 하천을 넘어 다니며 있는 힘을 다해 만세 운동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번 4월 1일 장날에 구경거리가 많다.”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넣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거사일은 4월 1일(음력 3월 1일)로 정하였는데, 이날 역시 3월 27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황성 장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1일 황성 장날, 아침 일찍부터 비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황성 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면면에는 그동안의 나라 잃은 슬픔, 10년 가랑 이어진 억압으로 인한 고통, 차별에 대한 분노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일제가 남긴 기록을 보면 4월 1일 황성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탁영재의 생전 모습. 황성 감리교회의 지도자 격 인물로 황성군민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후 철원애국단(대한독립애국단강원도단)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4월 1일 오후 일곱 시경 횡성 읍내에서 약 1천 명의 폭민이 봉기하여 ...’

- 4월 1일 횡성의 상황을 전하는 헌병 사령관의 보고문 -

‘횡성 읍내에서 어제 오후 다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사이에 전후 2회에 걸쳐 약 1천3백 명의 폭민이 집합하여 ...’

- 4월 2일 강원도 장관의 보고문 -

이렇듯 당시 일제 기록에서 약 1,000~1,300명의 군중이 횡성 장터에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의도적으로 만세 운동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는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 외에 장사꾼들이나 구경꾼들도 있었을 테니, 4월 1일 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총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오전부터 시장 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만세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에 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횡성 한치고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황소 아줌마 김순이는 술판에 어울리며 만세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의 3·1 운동에 참여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던 최양옥(崔養玉)도 군중 속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의 곳곳에는 천도교회 인사들이 배치되어 이날의 계획을 은밀히 군중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오후 시간대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고 시위 도중 해가 지면,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진압 작전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만세 운동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습니다. 오후 4시경, 군중들은 그동안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



▲ 횡성 3·1 공원에 위치한 황소 아줌마 김순이 여사 동상. 김순이 여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20살에 횡성으로 시집온 뒤로는 쪽 횡성에 거주하였다. 김순이 여사는 횡성 한치고개에 주막을 차려 생계를 꾸렸는데, 6척(약 180cm)의 거구에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힘이 세서 ‘황소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김 여사는 3월 초 자신의 주막에 찾아온 최양옥 지사를 만났는데, 이때 최양옥 지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해 왔던 일제 헌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에 서까래, 장작, 곤봉 등을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쌀 가게를 하던 조홍렬은 집을 고치려고 마련해 두었던 나무를 잘라서 군중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까지 시위에 참여하여 자진해서 상점과 술집 문을 닫고 장사를 거부했습니다.

드디어 1,300여 명이 넘는 군중들이 집결하였을 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연이어 만세 소리가 군중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며 순식간에 온 횡성 읍내의 하늘과 땅을 뒤덮었습니다.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시위대는 횡성 시장을 벗어나 횡성군청 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양옥(崔養玉) 지사. 최양옥 지사는 횡성군 갑천면 출신으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한 뒤, 고향 횡성으로 내려왔다. 이후 4월 1일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만주로 이동하여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일러스트레이터 배시연

성난 군중들에 의해 당시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일하며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이규화는 매를 맞고 혈레벌떡 도망쳤습니다. 엄청난 시위대의 행진에 기마경찰 고지마(小島)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군중 사이를 헤집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말을 달렸습니다. 군중들은 “저놈 죽여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최동수(崔東壽)가 말 위에 직접 뛰어올라 고지마를 끌어내렸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때려눕히고는 실컷 매타작하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백지우

그렇게 시위대가 황성군청 앞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이미 황성 시장에서부터 시위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군청 뒷산에 잠복해 있던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멈칫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쌓인 우리 민족의 분노와 울분을 그깟 총알 몇 발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재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는 총소리에 놀라 도망 온 몇몇 남정네들을 꾸짖어 다시 시위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군중들이 다시 집결하여 목이 터져라 만세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해져 갔습니다. 이제 시위대의 목표는 황성군청 뒤에 위치하였던 헌병분견소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일제 헌병들과 친일파들에게 본패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위대의 발걸음이 헌병분견소로 향하자, 아직 뒷산에 잠복해 있었던 헌병과 일본군은 다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헌병과 일본군 입장에서선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좋았습니다. 누가 총을 쏘았는지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려웠을 테니 말입니다.

헌병과 일본군이 쏜 총에 사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오늘날 황성군의회 앞 느티나무 자리 부근에서 강달희, 강성순, 전한국, 하영현 등 4명이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1명(김치정)은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중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뒷산에서 내려와 만세 운동 지도자들과 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군중들은 울음을 삼키며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사망한 4구의 시신은 거적매기로 대충 덮인 채 버려져 있었는데, 그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이웃들이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일 날이 새자, 200여 명의 군중들이 다시 헌병분견소로 몰려갔습니다. 군중들은 독립운동을 허가할 것과 전날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병분견소장은 강압적인 태도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군중

들은 자신들도 체포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 현 황성군의회 건물 사진.
황성군의회 앞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1919년 4월 1
일 밤, 이 느티나무 앞에서 일
제 헌병의 총탄에 맞아 만세
시위대 5명이 사망하였다.
©독립기념관



4월 2일에 황성분건소로 찾아가 항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황성 시장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한 일제 헌병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월 2일부터 7일까지 상점 문을 닫는 철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철시 시위는 4월 7일 친일 황성군수와 헌병 분건소장이 제발 상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나서야 중단되었습니다.

황성군민 만세운동 과정 중 수많은 사람들이 헌병에 붙잡혔습니다. 시위 도중 헌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 4월 2일부터 이루어진 헌병의 대대적인 조사로 발각되어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체포된 대다수의 사람에게 헌병은 태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즉결 처분 최대형인 90대의 태형을 맞고 크게 다쳐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세 운동의 주도자들은 모진 고문을 받은 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성 감리교회 지도자인 정해경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 역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도 3개월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인물들은 이후에도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고향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③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의 만세 운동

한편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현재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에서도 독립적으로 만세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래 서원면은 행정 조직상 대대로 원주에 속해있었는데, 1895년 조선 고종 시기에 황성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¹² 그러나 황성 읍내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에 1919년 당시에는 황성 시가지와의 교류가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분일리는 4개의 작은 마을이 합쳐져 이루어진 곳으로, 중간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당시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 위성 사진. 마을 중간에 작은 동산이 있다.

12) 2024년 현재, 옛 서원면 중 일부는 원주시 호저면으로, 일부는 황성군 서원면으로 분리되었다.



▲ 김옥봉(金玉鳳)의 생전 모습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서원면 분일리의 만세 운동은 인접한 원주 문막, 지정, 부론 등의 지역에서 4월 8~9일에 발생한 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분일리에 거주하던 송병기(宋秉箕), 김옥봉(金玉鳳) 등은 원주에서의 만세 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그의 가족 및 이웃 등과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송병기 등 주도 세력은 4월 12일 분일리 주민 50여 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동산에 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동산에서 내려와 분일리의 4개 마을을 돌며 밤새도록 만세를 외쳤습니다.

분일리는 원주나 횡성 시가지로부터 외진 곳에 있었기에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분일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나마 진짜 독립하였다는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곧 일제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만세 운동의 주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송병기 등 주도 세력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의 옥살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3단계: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도내 확산 - 원주시 소초면과 평창군의 만세 운동

횡성군민 만세운동은 총, 칼을 앞세운 일제 헌병과 군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소중한 생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그들의 희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횡성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횡성과 인접한 원주 소초면과 평창군에서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독립 만세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소초면은 지방행정 조직상으로는 1919년 당시에, 그리고 현재도 원주에 속하지만, 횡성 시가지와의 거리가 가까워 횡성읍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과 4월 1~2일 사이에 발생한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다수의 소초면 주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초면 둔둔리 출신의 강달회와 하영현이었습니다. 강달회는 3월 27일 횡성 만세 운동 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위를 주도하였고 4

월 1일의 대규모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하영현 역시 4월 1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안타깝게도 4월 1일 밤, 나란히 일제 헌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횡성읍의 만세 운동이 진압된 이후, 소초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만세 운동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강달회와 하영현의 뜻을 이어 만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강달회와 하영현의 삼일장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 원주시 소초면 둔둔2리에 세워진 강달회 묘소
『횡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

4월 5일, 수백 명의 소초면 주민들이 소초면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찬 일과 면장을 끌어내 분노를 표출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소초면에서 발생한 만세 운동 소식을 뒤늦게 들은 일제는 헌병을 파견하여 주도자들을 색출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태형을 맞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평창군의 만세 운동은 횡성 천도교회가 평창에 독립선언서를 전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평창군에서는 천도교 계열과 유학자 계열 두 세력이 각자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횡성 천도교회에서 평창 천도교회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평창의 천도교 계열과 유학자 계열은 힘을 합쳐 4월 4~5일 평창 장날에 맞춰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3일에 이르러서는 태극기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일 밤, 첩보를 접수한 일제 관리들이 주동자들의 거처를 기습함에 따라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국 평창군의 독립 만세 운동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절 3·1 운동의 의의

4장에서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1 운동은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진압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으로 인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국으로 확산한 3·1 운동의 열기에 일제는 화들짝 놀랐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내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통치 방식에 한계를 느꼈고, 3·1 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문화통치(文化統治)’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였습니다. 3·1 운동은 분명 일제에 우리 한국인의 저력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 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가운데 인물이 안창호이다.

둘째로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였음에도 실패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총·칼을 들이민 일제의 탄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을 이끄는 통합 정부가 존재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3·1 운동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하였던 정부들을 합쳐 단 하나의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탄생
©금성출판사

마지막으로 3·1 운동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해 결코 한국인들이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 5·4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1919년에 발생한 중국 5·4운동. 학생들과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 중이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황성 역사 4. 3·1운동과 황성군민 만세운동 171

5장

6·25 전쟁과 황성

일제강점기 초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과 우리 선조들의 저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우리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개와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성인들의 활약은 대단했고, 황성군민 만세운동은 주변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황성에 사는 우리는 순국하신 선열들께 감사함을 느끼는 한편 황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을 읽고 있을 황성의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시험과 학교, 학원, 어른들의 통제 때문에 종종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태동할 때 학생들은 탑골 공원에서 만세 운동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은 고종 황제를 추모하는 시위를 벌여 어른들보다도 먼저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이루어지자, 황성의 어른들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분명 황성군민 만세운동이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역사는 학생들이 미약한 존재, 단순히 어른들의 말만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순수함, 열정,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큰 힘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절 기쁨의 광복, 눈물의 분단

2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다

3절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시작

4절 국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5절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는 왜 황성에 세워졌을까?

6절 전선의 고착화와 휴전

5장

6·25 전쟁과 황성



▲ 황성참전기념공원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 황성참전기념공원 올라가는 길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에는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황성참전기념공원입니다. 고즈넉한 공원의 풍광을 즐기며 여유로운 산책을 하다 보면 공원 중간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비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은 1975년에 국방부가 건립한 ‘황성 네덜란드참전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왜 이 기념비에 네덜란드라는 국가 명칭이 들어갈까요? 도대체 강원도 황성 산골 지역과 이역만리 북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의문을 해결하면서,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지점 중 하나인 6·25 전쟁과 황성 전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북위 38도선을 넘어 대대적인 남침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학살극을 벌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한반도와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6·25 전쟁 발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전쟁, 네 개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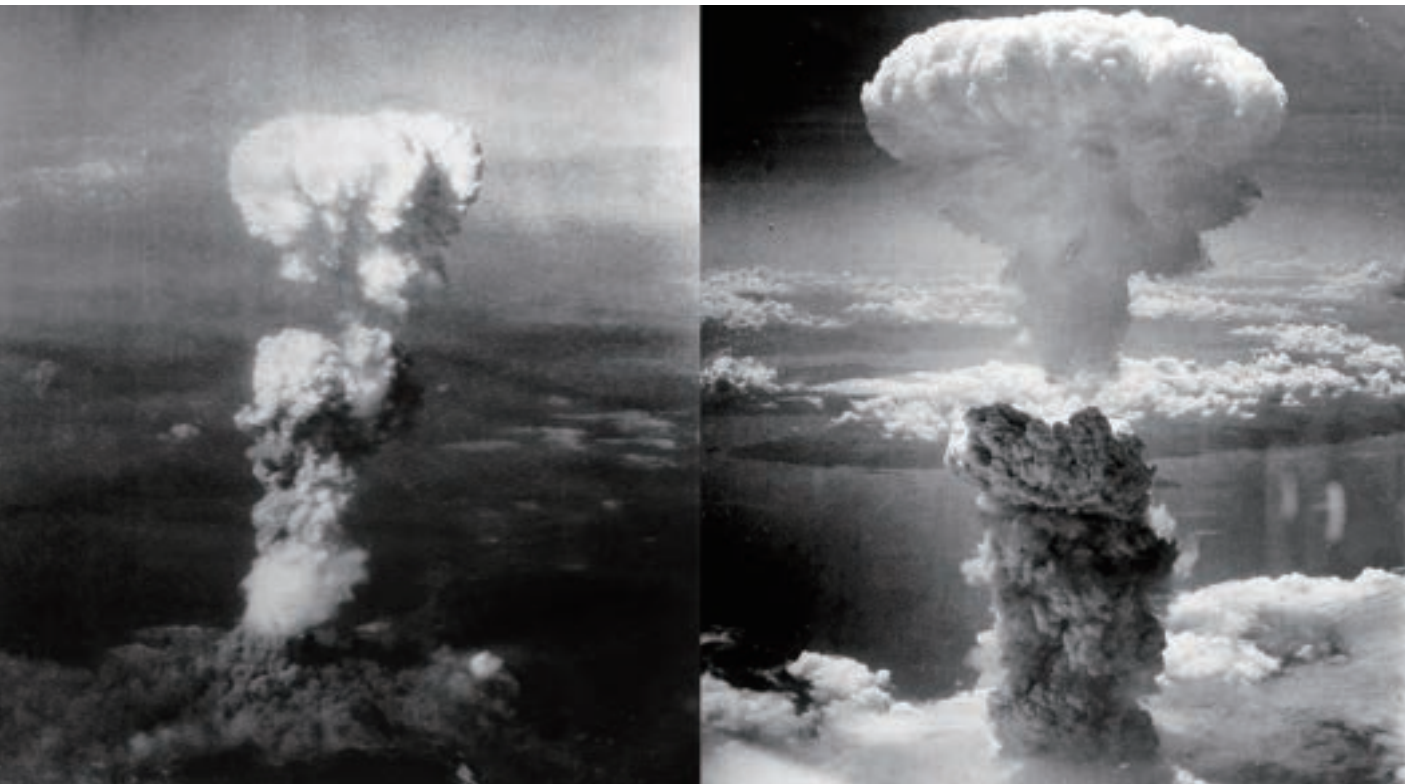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맺기까지 남한과 북한이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살육을 벌인 전쟁, 우리는 이 전쟁을 6·25 전쟁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해외에서는 한국 전쟁(Korean War),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 부릅니다. 전쟁의 명칭이 이렇게 국가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격을 지금까지도 역사적·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에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이유로 전쟁 발발 일자에서 이름을 따와 6·25 전쟁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1절 기쁨의 광복, 눈물의 분단

일제의 무조건 항복과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 마지않던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이어졌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드디어 조국이 해방된 것이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 제국(이하 일제)은 연합국의 항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왼),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 맨'(오)

1)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지속되었던 전쟁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의 연합국 측과 일본 제국,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등의 추축국 측이 맞서 싸웠다.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원자 폭탄 투하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죄 없는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제국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애꿎은 민간인들이 대신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연합국을 상대로 끝까지 버티던 일제는 그제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꽤 들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비에트 연합(이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점차 양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세력을 중심으로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우리 민족이 상상한 그림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다.

©금성출판사

미국은 태평양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기를 바랐습니다. 소련 역시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발표 직후 한반도 분할점령 방안을 소련에 제안하였습니다. 소련은 이 제

안을 군말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 세력이, 남쪽에는 미국 세력이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분단과 정부 수립

한반도에 통일 독립 국가를 세우겠다는 민족의 염원과 달리 남과 북의 분단은 점차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정치 이념,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남과 북으로 이동 혹은 정착하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UN, 국제 연합)은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한반도 전체의 총선거를 결정하였지만,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²⁾의 입북을 거부하면서 한반도 전체 총선거는 무산되었습니다.



▲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해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포에 설치된 환영 조형물 뒤로 환영 인파가 길가에 줄지어 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시행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李承晩)이 선출되었습니다.

▲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 총선거의 벽보용 선거 홍보물. 중앙에 '총선거로 독립문이 열린다', '중앙정부수립', 좌우로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등의 표어가 인쇄되어 있다.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7년 11월 한반도의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다. 1948년 1월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 1948년 5월 10일 당시 투표하는 모습

북한 또한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金日成)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金九)를 비롯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노력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 김일성과 소련군 장교의 모습
©국가보훈부

3)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는 뜻으로, 보통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장면.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 청사(중앙청)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 사용된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이 감격스럽다.



◀ 1948년 4월, 38선에 서 있는 김구의 모습. 가운데 인물이 김구이다. 김구, 김규식 등의 인물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며 북한 김일성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북협상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남·북한 정부의 수립 이후 한반도 내 갈등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벌을, 김일성은 적화통일⁵을 각각 주장하며 상대방 정부를 같은 민족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지도자는 심지어 각각 미국과 소련을 설득하여 군사 지원 및 전쟁의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내에서의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요청을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다

남·북한 군사 충돌과 황성 태기산 전투

한편 38선에서는 이미 1946년부터 간헐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해 왔습니다. 원인은 모호한 38선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일어난 일종의 헤프닝이었습니다.

남북한의 소규모 군사 충돌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 시기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본격화된 1947년부터였습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남과 북에서는 각각 국방경비대⁶와

38선 경비대를 창설하여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충돌은 주로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정⁷의 통계에 따르면 1948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38선 인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만 해도 56건에 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충돌 사건 중 황성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전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1948년부터 황성, 홍천, 평창 지역의 경계에 있는 태기산에 유격대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는 남한의 민심을 악화시키는 한편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2년간 태기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를 ‘태기산 전투’라 칭합니다.

북한군 유격대는 1948년 10월 초, 불법으로 38선을 넘은 뒤 남쪽으로 이동하여 11월 14일 태기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우리 경찰대에 발각되었고, 경찰대는 이들을 급습하여 총 4명을 사살하였습니다. 북한군 유격대는 혼비백산하여 태기산으로 흩어져 도주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황성군 갑천면(현 청일면) 신대리 방면의 황성경찰서 대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황성경찰서 대원들은 도주한 북한군을 추격하였고, 다음날인 11월 15일에 북한군 주력 부대를 발견하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적군 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1년 후 1949년 8월경 북한군 유격대가 다시 태기산으로 침투하였습니다. 황성과 인접한 평창 방림면 계촌리의 경찰대는 첩보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북한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 대원이 휴식을 취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급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대원은 적군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계촌리 경찰 대원들은 용맹하게 북한군과 전투를 벌여 적 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강원 경찰이 북한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임에 따라 태기산으로 침입한 적군의 동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부대가 북한군을 섬멸하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군대와 경찰의 합동작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4) 남북협상의 정식 명칭은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全朝鮮諸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 단체 대표들이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5) 공산국가 측의 주도로 분단의 상대방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식 명칭은 남조선국방경비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경비대 설치 이전까지 한반도의 치안 및 군사 활동은 경찰이 도맡았다.

7)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미군이 38도선 이하의 한반도(및 그 부속 도서)를 통치했던 시기를 말한다.



▲ 횡성 경찰 전적비. 1948~1949년에 침투한 북한군 유격대와 교전하다 순직한 경찰대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횡성경찰서가 1992년 횡성군 둔내면에 건립하였다.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남쪽으로 이동하려던 북한 유격대를 전멸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반대로, 1949년 1~2월경에는 우리 측 병력이 38선 경계를 넘어 북측을 여러 차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로 1~2개 소대(약 30~40명)의 소규모 경찰 부대가 강원도 화천, 철원, 양양 및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북측 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교전이 이어졌고, 남북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하였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남한 지역의 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꼭 한 달 만인 1948년 9월 15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내 정식 정부가 수립되자 계속해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국제적 명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아시아 동쪽 끝의 작은 나라인 한국보다는 유럽의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터키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12월, 소련군이 미군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철수를 완료하자 미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는 완료되었지만,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소련 타르 통신 1948년 12월 25일 기사 -



▲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 (Harry S. Truman)

결국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더욱 서둘렀고, 1949년 6월 29일 마침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한에는 500여 명의 미 군사고문단(KMAG,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만 남아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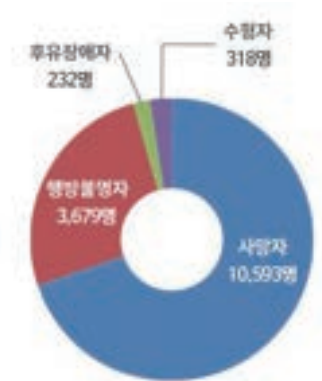


▲ 1948년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떠나는 미 제24군단 병사들의 모습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는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무기를 수입하고 훈련 지원을 받는 한편, 김일성이 직접 소련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련의 지도



▲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1924년 1월 21일부터 1953년 3월 5일까지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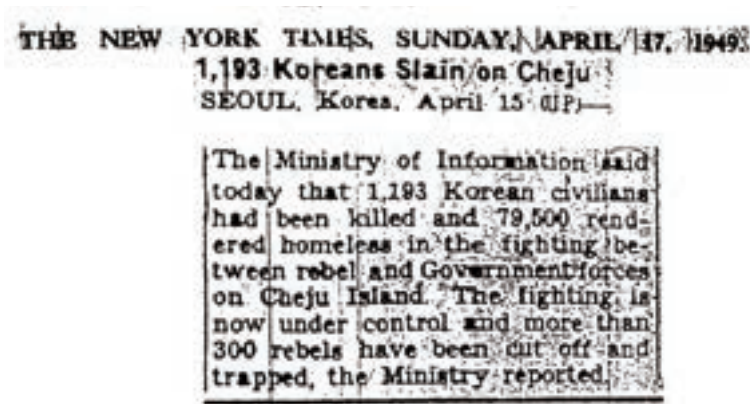
▲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 현황 통계이다. 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24년 현재 14,822명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수치일 뿐, 진상 조사보고서는 4·3 당시 발생한 인명 피해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한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

자인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소련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허가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반면 미군 철수 이후 남한의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국군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지원으로 남한의 군사력이 강력해지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무기, 전쟁 물자, 훈련 상태 등 모든 부분에서 북한보다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 좌익 운동을 벌이던 남조선로동당(남로당)⁸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 1949년 4월 17일 뉴욕타임스 기사이다. 제주도에서 폭도들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인하여 1,193명의 시민이 살해당했고 7만 9,5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보도하였다.

©제주4·3 아카이브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만 무려 25,000~30,000명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제주 중산간 지역의 300여 마을, 주택 4만여 채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제주 중산간 마을의 95%가 소실된 것이었습니다.



▲ 제주 4·3 사건 때 학살을 피해 산으로 피신한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산속 한가운데 모여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에 더하여 1948년 10월 19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여순 사건) 반란 군인들은 순식간에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겨우 진압에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 남조선로동당은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당 조직으로, 38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 여순 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체포된 반란군의 모습.

▼ 반란군 진압 작전 도중 시행한 포격으로 인해 불타는 여수 시내의 모습.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 모두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국제전을 벌이는 것은 미·소 양국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치슨 선언과 전쟁 분위기의 고조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 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이 전 미국 신문기자 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애치슨 선언)

이 연설에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애치슨 라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와 타이완(대만)섬, 인도차이나반도가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치슨 라인의 발표는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은 대응하

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애치슨 선언 이후 북한과 소련 측은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련을 설득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승인받고자 하였습니다.

1950년 1월 30일,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부는 드디어 스탈린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1950년 4월 직접 모스크바로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전쟁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므로 중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작전도 시작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북한으로 귀환하자마자 중국 베이징으로의 방문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이미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이 국민당과의 전쟁(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중국 국민당(중화민국)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는 작은 타이완(대만)섬으로 정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가 베이징에 방문하여 만나야 할 인물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귀환한 직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연락을 넣어 마오쩌둥과의 회담을 성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한 테이블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무력 통일 주장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만일 향후 미국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해 지원하겠다.”라고 까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문제일 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은 자명했습니다.



▲ 애치슨라인
©금성출판사



▲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공산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오늘날 중국)을 건설하고 초대 주석 자리에 올랐다.

3절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시작

6·25 전쟁의 시작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북한군은 38선상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침략 행위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로, 당시 국군의 4분의 1가량은 휴일을 맞아 외출을 나가거나 휴가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군의 국경선 방비 태세는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국군의 군사력 또한 북한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였습니다. 전차(탱크)는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병사는 소총 한 자루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앞장세웠고,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전차 등 각종 중장비를 동원하였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군	북한군
육군	병력	8개 사단 94,974명	10개 사단 175,200명
	무기와 장비	전차 0대 장갑차 27대 대전차포 57mm 140문	전차 T-34, SU-76 등 242대 장갑차 59대 대전차포 552문 모터사이클 500대
해군	병력	6,956명(해병대 포함)	10,297명(육전대 포함)
	무기와 장비	함정 36척	소형 경비정 3척 어뢰정 3척
공군	병력	1,897명	28,000명
	무기와 장비	전투기 0대, 훈련기 등 항공기 22대	전투기 84대 등 항공기 226대
총병력		103,827명	188,297명

▲ 6·25 발발 당시 국군과 북한군 전력 비교
『통계로 본 6·25전쟁』

북한 불법 남침 소식은 곧 미국 워싱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즉시 미국의 주도로 두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7일, 유엔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이 유엔평화유지군(이하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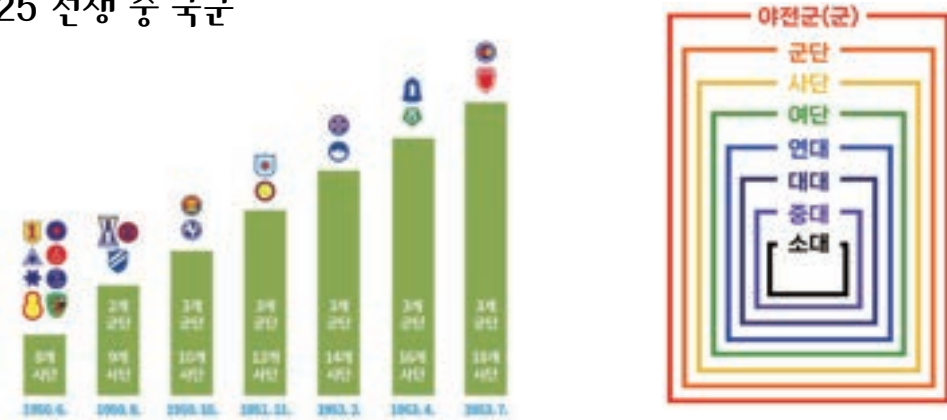
5개국(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이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0여 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엔군의 지휘는 미군 사령관이 통일적으로 맡기로 하였고 체계도 미군의 편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애치슨 라인의 발표 이후 미국의 참전은 없을 것이라던 북·중·소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 6·25 전쟁 유엔군 참전 규모
©국가보훈부

6.25 전쟁 중 국군



↑ 6.25 전쟁 기간 중 육군 부대 창설 및 확장 추이 및 군 편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 및 일제강점기 시기 활동하였던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46년 미 군정 시기에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가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에 공포됨에 따라 육군과 해군이 정식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이 독립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는 국군의 전력의 육군 위주였습니다. 육군의 가장 큰 부대 단위는 사단⁹⁾이었고, 그 규모도 8개 사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와중 계속해서 징집이 이루어지고, 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단 위로 군단¹⁰⁾ 및 (야전)군¹¹⁾ 사령부가 증설되었습니다.

6.25전쟁 중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¹²⁾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으로 임명되었고, 유엔군은 미군의 지휘 체계 및 편제를 따랐습니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다시 미군(미 제8군)에 이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6.25전쟁 중 국군 또한 미군 편제 아래에 있었고 미군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군의 후퇴와 서울 피탈

미국과 유엔의 군사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급속도로 악화하였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군이 단독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군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견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바로 앞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서울을 빠져나가 6월 27일 급하게 정부를 대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국군은 벼랑 끝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 대교(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군의 한강 대교 폭파는 당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그 과정은 상당히 성급하고 무리했습니다.

당시 한강 대교에는 수많은 군 병력, 경찰,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작전 실패로 북한군의 서울 입성을 막지 못한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蔡秉德)은 심각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채병덕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보다 이르게 한강 대교를 폭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대교가 폭파되었습니다.

▼ 한강 인도교 폭파 장면.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다리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폭파 작전이 시행되었다.



9) 사단은 10,000~2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4개의 여단 또는 연대를 둔다
10) 군단은 20,000~8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2개 이상의 사단을 둔다.
11) (야전)군은 80,000~40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2개 이상의 군단 또는 사단을 둔다.
12)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인, 경찰, 민간인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병력과 군수 물자가 미처 한강 남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군사력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이제 막 서울 외곽에 들어온 상태로 이들이 한강 대교까지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북한군 (1950.06.28.)
©국가보훈부

국군이 서울을 포기하고 빠져나가자, 북한군은 순식간에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북한은 점령지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반동분자(反動分子)¹³⁾’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人民裁判)¹⁴⁾’을 통하여 반동분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였습니다. 대중을 위협하고 선동할 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13) 개혁이나 변화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는 의미로, 북한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을 반동분자라 부르며 탄압하였다.

14)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 시행된 공개 재판을 말한다. 재판은 변론 없이 즉심으로 이루어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자에게 사형 등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 1950년 7월 2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벌어진 인민재판 광경. 사진 중간의 양복 입은 이가 재판을 받는 김기진(金基鎭)이다. 김기진은 작가로서 일제강점기 시기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 가담하였다. 김기진은 사진의 인민재판에서 즉결 처분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민간의 신문 잡지의 발행은 모조리 금지되었고, 오직 북한 정부가 발간하는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노동신문》 등 3종만이 발행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켰고, 인민군은 이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 남한을 해방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민심을 선동하였습니다.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

6월 25일 아침, 북한의 불법 남침 소식은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자 맥아더는 6월 29일 도쿄에서 수원으로 날아가 전장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황을 둘러본 맥아더는 남한의 병력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워싱턴 DC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락해 미국 지상군 투입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미군 투입 명령이 떨어지자 곧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제8(야전)군¹⁵⁾ 예하 4개 사단¹⁶⁾이 한반도에 전격 투입되었습니다.

15) (야전)군은 80,000~40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2개 이상의 군단 또는 사단을 둔다. 미 제8군은 6·25 전쟁 기간에 한반도에 파견된 미군 부대 중 가장 큰 단위의 부대였다.

16) 사단은 10,000~2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4개의 여단 또는 연대를 둔다.



▲ 전선을 시찰 중인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베테랑 명장으로, 태평양 연합군 총사령관을 역임하였다. 이후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국가보훈부

그러나 빠르게 한반도에 군사 투입을 결정하였던 판단과는 달리, 미국은 전쟁 초반 북한군의 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만으로도 충분히 북한군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미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남한에 파견된 미 제8군의 전투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경험은 고사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기 또한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었던 낡아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제8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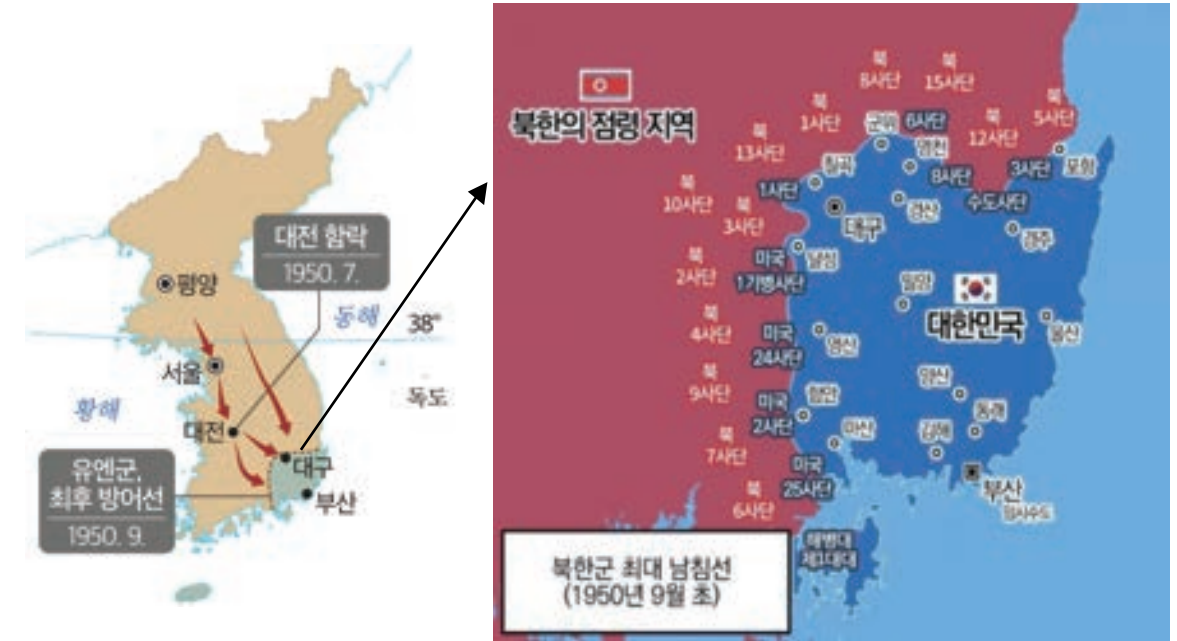
미국은 계속해서 병력을 추가 투입하였지만, 북



▲ 부산에 상륙하는 미군의 모습 (1950.07.01.)

©국가보훈부

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진군하여 경기·강원, 충청, 전라도 전체와 대구 이북의 경상도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벼랑 끝에서 최후의 저지선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펼쳤습니다.



▲ 6·25 전쟁 초기 상황과 낙동강 전선

©금성출판사

태백산맥을 따라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 동부와 그 일대의 험준한 산맥을 천연의 요새로 삼아 부산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당시 한국 정부는 대구를 임시 수도로 삼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쪼그라든 힘까지 짜내어 필사적으로 북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국군과 유엔군은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낙동강 방어선을 한 달 넘게 사수한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방비 태세가 안정화되자,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군 병사를 대량 징집하는 한편 유엔군의 편제를 정비하고 병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당초 미 제8군 예하에는 4개 사단 병력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제를 확대하여 미 제8군 예하에 제1·9·10군단¹⁷⁾을 두었고 그 밑으로 6·25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총 9개 사단(7개 보병사단, 해병사단, 기병사단 등)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기갑대대¹⁸⁾ 등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최신 미군 전차가 투입되었고 그 규모는 북한군의 5배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군으로 참전을 선언한 국가들의 병력이 속속들이 한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미 공군의 활약 또한 눈부셨습니다. 미 공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이미 7월 20일경 북한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방으로 식량과 무기, 탄약을 전달하는 북한군 보급 부대는 미 공군의 폭격 대상 1순위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의 보급로는 미 공군의 폭격에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탄약과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언제 폭격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 충주시 인근에서 폭격 중인 미 공군의 페어차일드 C-119 플라잉 복서 폭격기

김일성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성과 없이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8월 말, 9월 초를 기해 최후의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전선 전체에서 2주간의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철통같은 수비로 2주간 이어진 최후의 결전은 북한의 패배로 귀결되었습니다.

17) 군단은 20,000~80,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2개 이상의 사단을 둔다.

18) 기갑은 군대에서 전차, 장갑차와 같은 기갑차량들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전투 병과를 말한다. 대대는 300~1,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5개의 중대나 포대를 둔다.

6·25 전쟁 중 미군

1945년 8월 해방 이후 한반도에 처음 상륙한 부대는 미 육군 제24군단 예하 제7사단이었습니다. 미 7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한 시기(1948년)를 전후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183쪽 참고)

하지만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철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한반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반도에 파견된 미군은 미 제8(야전)군 예하 부대였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미 제8군에는 제1기병사단, 제7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 등이 속해있었는데, 이 중 24사단 병력이 1950년 6월 30일에 전격 투입된 것입니다.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참전도 이루어졌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에는 미군 장성이 임명되었는데, 초대 사령관이 바로 그 유명한 맥아더 장군입니다. 유엔군은 미군의 편제 및 지휘를 따랐습니다.

미 제8군은 6·25 전쟁 중 한반도에 파견된 유일한 야전군으로 가장 큰 단위의 부대였습니다. 추가 파견된 미군과 유엔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미 제8군의 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하에 사단만 두었었는데, 사단 위로 3개의 군단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 제8군은 예하에 제1군단, 제9군단, 제10군단을 두게 되었습니다. 3개 군단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식 당시 일본을 점령한 이후 해체되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창설된 부대입니다.

미 제1군단은 전쟁 기간 중 예하에 미군 사단과 국군 사단을 혼합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위해 많은 수의 포병을 보유했습니다. 미 1군단은 주로 전선의 서쪽을 담당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평양 지역을 무대로 활약했습니다.(209쪽 참고)

미 제9군단은 재창설 직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미 9군단 역시 미군 사단과 국군 사단을 혼합 편성하여 운영했고 강력한 포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 9군단은 강원도 내륙지역부터 동해안까지 주로 전선의 중동부를 담당했습니다.

미 제10군단은 일본 점령군 중 가장 먼저 해체된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긴급 재창설되었습니다. 10군단은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이끌며 한반도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1군단과 9군단이 재창설 이후 바로 제8군 예하에 편입된 것과

다르게 10군단은 1950년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 때까지 독립된 지휘 체계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1·4 후퇴 이후 북쪽으로 재반격

하는 시기에 8군 예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207쪽 참고) 10군단은 횡성, 양평, 홍천 등의 중부 전선에서 주로 활약하였습니다.

명칭	병력	종속 부대	지휘관	6·25 전쟁 참전 부대	
				상징	부대
야전군(군) (Field Army)	80,000 ~ 400,000명	2개 이상의 군단 또는 사단	★★★★(대장) ~ ★★★(중장)		미 제8군
군단 (Corps)	20,000 ~ 80,000명 20,000 ~	2개 이상의 사단	★★★(중장)		제1군단
					제9군단
					제10군단
사단 (Division)	10,000 ~ 20,000명	4개의 여단 또는 연대	★★(소장) ~ ★(준장)		7개 보병사단 (2, 3, 7, 24, 25, 40, 45)
					제1기병사단
					제1해병사단
여단 (Brigade)	3,000 ~ 5,000명	4~6개의 대대	★(준장)	여단 이하 생략	
연대 (Regiment)	1,000 ~ 3,000명	3개 이상의 대대 또는 직할 중대	대령 ~ 중령		
대대 (Battalion)	300 ~ 1,000명	5개의 중대나 포대	중령 ~ 소령		
중대 (Company)	60 ~ 250명	3개의 분대	소령 ~ 대위		
소대 (Platoon)	20 ~ 50명	3개의 분대	대위 ~ 원사		

4절 국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 인천상륙작전 노선도

이즈음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군의 배후를 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자 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초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해병대 측은 상륙 작전 자체에는 찬성하였지만,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¹⁹⁾가 매우 크고 지형이 복잡하여 상륙 작전을 진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 해수면이 최고조에 달할 때를 만조(滿潮, 밀물),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干潮, 썰물)라 하며,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조차, 潮差)라 한다.

그러나 맥아더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천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 또한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기습 효과가 더 커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맥아더는 9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고, 작전 시행일은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차는 만조일 9월 1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박 260척, 병력 7만여 명이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지상군(육군)으로는 미 제10군단 병력이 가장 많았고 한국 해병대와 육군 부대도 투입되었습니다. 해군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함정이 동원되었습니다.

맥아더의 예상대로 북한군의 방어 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천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규모가 2,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륙 부대는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를 함락하였고, 다음날 인천을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동쪽으로 진군하여 서울을 포위하였고, 9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였습니다.



▼ 미 제1해병사단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인천 레드비치(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일대)에 상륙한 후, 방조제를 기어 오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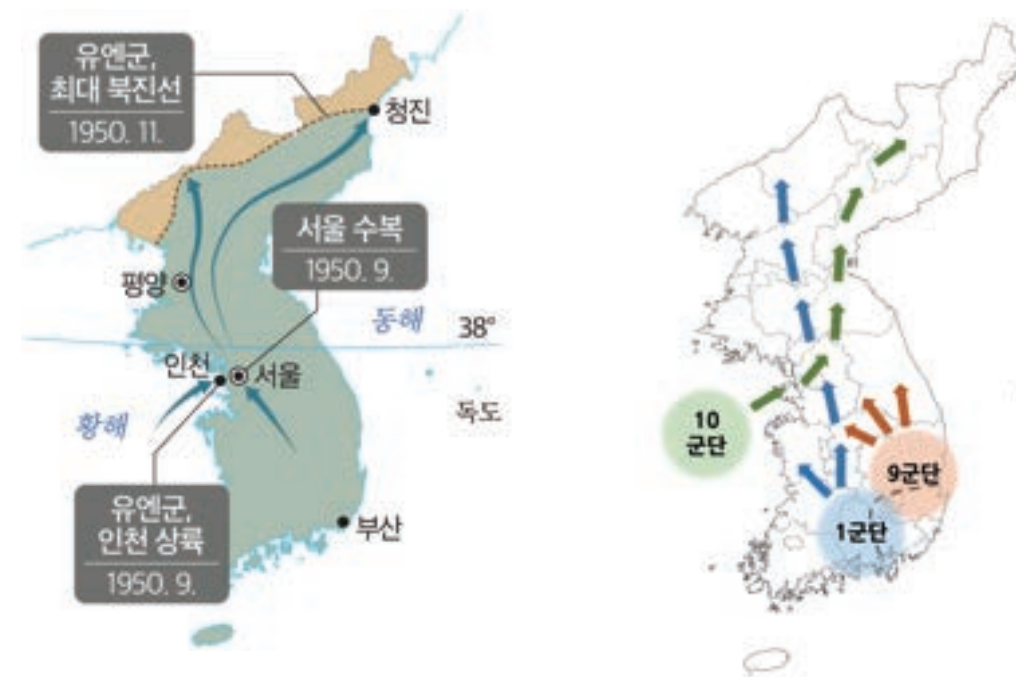
▲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이즈음 낙동강 전선에서도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 상륙 부대와 발맞춰 북쪽으로 적 전선을 돌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군의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개시 후 불과 보름 만에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북한군 약 10만 명이 전사하였고 북으로 약 3만 명이 도주하였으며 일부는 한반도의 중동부 산악지대로 도피하여 빨치산²⁰이 되었습니다.



▲ 1954년 9월 28일 서울수복 4주년 기념행사 때 촬영된 사진이다. 1950년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미군 군단 상황도
©금성출판사

20) 정규부대에 속하지 않은 무장 전사를 지칭하는 말로, 1940~1950년대 한반도 이남에 있었던 공산당 조선인민유격대를 흔히 '빨치산'으로 불린다. 당시 국군은 이들을 무장공비(武裝共匪)라 부르기도 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으나, 맥아더는 중국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마침내 맥아더는 유엔군 전 부대에 전면적인 북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군의 사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보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쾌속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는 평양을 점령하였고, 11월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중국의 개입과 흥남 철수 작전

1950년 11월 말, 국군과 유엔군이 국경 눈앞까지 진군하자 마침내 중국은 공식적으로 참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군이라고 칭함, 이하 중공군)의 병력은 자그마치 30개 사단, 총 38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공군 총사령원(총사령관)으로는 펑더화이(彭德懷)가 임명되었습니다. 중국의 참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맥아더의 판단은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6·25 전쟁은 맥아더의 표현처럼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은밀히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중국이 참전을 발표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정말로 참전했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병력 규모인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수시로 정찰기를 띄워 중공군의 개입과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공군은 미군 정찰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십만의 병력이 추운 겨울에 불도 피우지 않은 채 숨죽이며 밤에만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압록강을 넘은 중공군은 국경 지대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지도부는 이때까지도 중공군의 정확한 병력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였습니다.

11월 25일 밤, 중공군은 평양 인근 청천강 유역까지 비밀리에 접근하여 국군과 유엔군 부대를 일시에 기습했습니다.(청천강 전투) 한밤중에 갑자기 수십만의 중공군

병력이 팽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대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군은 당황함을 넘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1950.10.14.)
©재한유엔기념공원



▶ 청천강 전투 당시 유엔군을 공격하는 중공군의 모습.

12월 2일까지 청천강 전투로 인해 국군 3개 사단이 거의 전멸하였으며 미 제2사단도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였습니다. 청천강 전투 패배의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국군과 유엔군은 이후 한동안 중공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무조건 후퇴하고 보자는 심리를 보인 것입니다.



▲ 펑더화이(彭德懷)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원. 중국 10대 원수 중 한 사람이다.

청천강 전투에서 승리한 북한군과 중공군(이하 공산군)은 12월 6일 평양을 재점령 하였습니다. 맥아더는 모든 병력을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병력은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에게 포 위되어 남쪽으로 후퇴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맥아더는 아직 남쪽으로 철수 하지 못한 동부전선의 병력에 대하여 홍남에서 배를 이용해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0군단은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중공군과 2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장진호 전투) 엄청난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공세에 미군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해병사단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적들의 포위를 뚫고 홍남까지로의 퇴로를 간신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술한 위기 끝에 드디어 미 제10군단 휘하의 모든 병력이 홍남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남 항구에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친 철수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193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군인 10만여 명, 차량 1만 8천여 대, 화물 35만 톤, 피난민 8만 6천여 명이 차례로 철수하였습니다. 홍남 철수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동부전선의 병력과 물자를 보전하여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진호 전투 당시 전황도
『끝나지 않은 전쟁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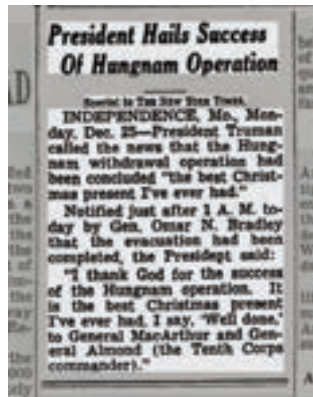
▲ 중공군의 인해전술²¹ (1950.12.27.) 중공군이 장진호 부근에서 인해전술을 펼쳐 미 제1해병사단을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다.

©재한유엔기념공원



▶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전선을 돌파하는 미 제1해병사단 병력과 M46 패튼 전차

21) 인해전술(人海戰術)이란 전투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곳에 쏟아부어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말한다.



▲ 1950년 12월 25일 자 신문 1면 뉴욕타임스 보도. 뉴욕타임스는 흥남 철수 작전 성공을 대서특필하였다. 이 기사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Nelson Bradley)에게 흥남 철수 작전 성공에 대하여 “내가 여태껏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 최고다.(It is the best Christmas present I've ever had.)”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1950년 12월 19일 흥남 철수 당시 상륙함에 오르기 위해 늘어선 피난민들. 일부는 소달구지로 끌고 온 하찮은 물품들을 어선에 싣고 있다.



1·4 후퇴

38선까지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북방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어떻게든 서울을 사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북한군의 연합 공격으로 사실상 서울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Ridgway, M. B.)는 서울에서 60km 남쪽으로 오산과 삼척까지 후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공산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군이 서울을 되찾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다시 서울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 시민 약 120만 명 중 95%가량이 공산군을 피하여 다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남쪽으로 힘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다시 부산으로 철수하였습니다.(1·4 후퇴)



▲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금성출판사



▲ 1950년 12월 3일, 중공군의 남하를 피해 얼음같이 찬 대동강을 맨발로 건너는 피난민들. 이들은 고향인 평양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퇴는 6·25 전쟁 초반의 후퇴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쟁 초반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러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수와 피난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 리지웨이(Ridgway, M. B.) 장군. 1950년 12월 사고로 사망한 월턴 워커(Walton Walker) 장군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재량권을 허가받아 중공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반격을 위해 잠시 후퇴하여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1·4후퇴 당시 전선 배치도. 국군과 유엔군은 북위 37도 선까지 후퇴하였다.
©KFN-TV 역전다방

유엔군의 반격

대대적인 공세로 공산군은 서울을 다시 차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막심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수만 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보았고 계속되는 미 공군의 폭격으로 탄약, 식량 보급 또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공군 총사령원 펑더화이는 상황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2~3개월 정도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중요 지역에만 부대를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병력을 뒤로 물려 숨을 고르기로 한 것입니다. 펑더화이는 국군과 유엔군 역시 계속된 패배로 사기가 떨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반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펑더화이의 예상과는 달리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리지웨이는 먼저 울프하운드 작전²²을 통해 빠르게 적의 위치를 수색하였습니다. 작전 결과 중공군이 경기 남부(수원-이천-여주) 지역 이남에는 부대를 거의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지웨이는 중공군 병력이 뒤로 물러나 있는 바로 지금이 공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1·4 후퇴 이후 서·중·동부전선 미군 배치도

1951년 1월 25일, 리지웨이의 명령으로 서부전선에서 선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 전개되었습니다. 선더볼트 작전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대응하여, 유엔군의 최신 무기와 월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천둥번개와 같이 강력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리지웨이는 전군에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적을 섬멸하되 부대 간의 간격을 좁혀 최대한 안전하게 진격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2) 울프하운드는 사냥개의 한 품종으로 미 제27연대 전투단의 별명이다. 리지웨이는 27연대를 투입하여 공산군의 위치를 수색하는 작전을 펼쳤다.



▲ 선더볼트 작전 상황도. 서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이남까지 진출하였다.

©KFN-TV 역전다방

리지웨이의 명령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의 본격적인 반격이 개시되었습니다. 화력전에 밀린 공산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약 2주 만에 경기 남부 지역을 방어하던 중공군 35,000명 중 25,000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선더볼트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엔군은 2월 초 한강 이남까지 다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는 왜 황성에 세워졌을까?

홍천 라운드 업 작전의 시행

서부전선의 연이은 선전소식에 당시 중·동부전선의 지휘관이었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도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알몬드는 양평 지평리를 공격하여 전황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한편 황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찰 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찰 결과, 예상과는 달리 황성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적들은 이미 후퇴하여 홍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알몬드는 홍천을 둥글게 포위하여 적들을 섬멸하는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 up)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는 우수한 전력의 미군 부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몬드는 홍천을 공격하는 라운드업 작전에 국군 제3·5·8사단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부전선에서 강력한 미군 부대를 앞세워 선더볼트 작전을 시행한 것과는 180도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알몬드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Mallory Almond). 6·25 전쟁 기간 중 미 제10군단장을 역임하였다.

‘황성·홍천 부근은 산악 지대이고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 기동성이 뛰어난 미군보다 지형과 지리에 익숙한 한국군이 선두에 서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중·동부전선에서는 홍천 방향으로 국군 제3·5·8사단이 선두로 나서는 라운드업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 홍천 라운드 업 작전 상황도. 국군 3·5·8 사단이 선두로 나서 홍천을 공격하고 있다.

©KFN-TV 역전다방

그런데 당시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은 진격 과정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각 부대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후방의 지원을 받기에도 부대 배치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최영희 준장은 알몬드 군단장에게 “잠시 이동을 멈추고 부대를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지만, 알몬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라운드업 작전은 곧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공군 총사령원 평더화이는 홍천 방면을 포위하는 유엔군의 라운드업 작전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평더화이는 미군 부대가 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서부전선보다는 국군 부대가 선두로 나서는 중·동부전선에 집중하여 싸우는 전략의 승산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라운드업 작전을 무산시키고 홍천·횡성·원주까지 중공군이 장악한다면, 서부전선의 측·후방까지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더화이는 가용할 수 있는 중공군 및 북한군 부대를 홍천 인근으로 전부 집결시켜 맞불을 놓았습니다.

횡성으로의 후퇴와 학살의 계곡

적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군은 계속하여 홍천 방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선두에 나선 국군 제8사단은 곧 대규모 중공군 부대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8사단 병력보다 약 7배나 많은 중공군이 쏟아졌고, 국군 3사단과 5사단이 진출하고 있던 방면도 공산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적들은 두 겹으로 국군 부대를 둘러쌌고, 8사단 병력 사이사이의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8사단 전방부터 전멸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곧 8사단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미군 병력 또한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국군과 미군은 유일한 퇴각로인 횡성 방면으로의 후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중장비는 전부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국군과 미군의 필사적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 라운드업 작전 도중 공산군에 의해 포위된 국군과 미군 부대

©KFN-TV 역전다방



▼ 횡성 방면으로 후퇴 중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차량이 파괴된 채 버려져 있다.

▲ 횡성 방면으로 후퇴하는 국군과 미군의 모습이다.





▲ 현재 삼마치 고개(학살의 계곡)의 모습. 꽤 가파른 경사의 고개이다.
©독립기념관

후퇴하는 국군과 미군 부대 뒤로 공산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공산군의 공격으로 당시 횡성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삼마치 고개는 아군이 흘린 피로 가득 찼습니다. 삼마치 고개에서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쟁 당시 미군은 이곳을 ‘학살의 계곡’이라 불렀습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후퇴 과정 중 아군의 사상자 수는 국군 8사단 8,524명, 국군 3사단 4,330명, 국군 5사단 4,060명, 미군 지원부대 약 1,30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8사단이 입은 피해는 거의 궤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아 이후 전장에 재투입된 8사단 병력은 겨우 3,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장교가 사망하여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한 것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치달게 되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로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군의 유일한 퇴각로를 지키고 국군과 미군의 철수를 도운 부대는 바로 네덜란드 대대였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참전

▼ 6·25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의 감사장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 대대.
©전쟁기념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네덜란드의 군사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점령당한 이후 1945년에서야 해방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국민의 6·25 전쟁 참전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이 연합국의 도움으로 비로소 해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1950년 7월, 먼저 인도네시아에 정박하고 있던 네덜란드 해군 에베르센(Evsrten)호가 우리 서해상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에베르센호는 유엔군 산하 영국 극동함대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네덜란드 본토에서 본격적인 지상군(육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지상군 모집에는 총 1,217명의 네덜란드 국민이 지원하였고, 이 중 636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무려 2: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입니다. 파병 시기는 10월로 확정되었고, 부대 규모는 대대로 정해졌으며, 대대장에



▲ 네덜란드 해군 함정 에베르센(Evsrten)호
©국가보훈부



▲ 6·25 전쟁 참전을 위해 헤이그에서 시가 행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대대의 모습(1950.10.24.)
©국가보훈부

는 덴 오우텐(Den Ouden) 중령²³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네덜란드 대대는 1950년 10월 24일, 헤이그 시가에서 행진하며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수송선 주더크루스(Zuiderkruis)호에 탑승하여 약 한 달간의 항해 끝에 11월 23일 부산항에 도착하였습니다.



▲ 네덜란드 대대를 부산항까지 수송한 주더크루스(Zuiderkruis)호
©국가보훈부



▲ 부상병을 후송하고 있는 네덜란드 대대 병사들(1951.01.)
©국가보훈부

1950년 12월 하순에 들어 네덜란드 대대는 본격적인 훈련을 마치고 미 제10군단 예하 2사단에 배치되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중공군의 참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공산군의 무지막지한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4일에는 서울을 포기하였고(1·4 후퇴), 한반도상의 모든 전선에서 공산군을

23) 파견 당시에는 소령 계급이었지만 전사 이후 중령으로 1계급 특진하였다.

막기 위한 필사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원주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를 벌였습니다.

1월 2~3일간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 북쪽의 초현리에서 공산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초현리 전투) 이후에는 원주 부근으로 후퇴하였고, 1월 13~14일간 다시 한번 공산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 원주 325고지를 탈환·방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원주 325고지 전투)

네덜란드 대대와 횡성 전투

1951년 2월, 홍천 라운드 업 작전 시행 당시, 네덜란드 대대는 이동 배치되어 다시 횡성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대대가 국군과 함께 홍천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고 횡성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대 규모나 전력이 애매하여 라운드 업 작전에서 마땅히 맡길 역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공세로 국군 제8사단을 비롯한 아군이 필사적인 철수를 감행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역할이 그 어떤 부대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는 방면에는 예나 지금이나 섬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성댐이 건설됨에 따라 섬강의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횡성 전투 당시는 댐이 건설되기 이전이라 강물이 매우 많았고 물살도 거셌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필사적 후퇴를 감행하던 국군과 미군에게 있어 유일한 퇴각로는 섬강을 건널 수 있는 횡성교였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임무는 유일한 퇴각로인 횡성교를 사수하면서, 아군이 무사히 횡성을 빠져나가 원주 방면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적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 횡성 부근의 네덜란드군(1951.02.)
©국가보훈부



▲ 황성 전투 상황도. 국군과 미군 부대가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 황성 방면으로 후퇴하고 있다.

©KFN-TV 역전다방

당시 네덜란드 대대의 총병력은 약 600명이었고, 무기는 기관총과 로켓포·박격포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투 직전, 장갑차가 배치되어 화력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황성 전투에 참여했던 중공군 부대는 연대²⁴(제39군 117사단 349연대로 특정됨)급 부대였습니다. 연대는 대대 위의 병력 단위로, 통상 1,000~3,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대대는 자신들보다 2~5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황성 전투를 전후(1951년 2월 11~13일)로 황성의 기온은 최저 -12℃에서 최고 -2℃를 보였습니다. 전투 이틀 전까지는 황성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황성 도로 곳곳은 얼어있었을 것이고 날이 추워 병사들의 몸은 굳어 있었을 터였습니다.

24) 연대는 1,000~3,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데, 예하에 3개 이상의 대대 또는 직할 중대를 둔다.

네덜란드 대대의 지휘관은 오우덴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황성을 사수하기 위해 황성교회(오늘날 황성감리교회) 건물을 군 지휘소로 삼고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지금도 섬강 부근에서 황성감리교회 쪽으로 가려면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당시에 황성교회(황성감리교회)는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한눈에 황성 시내와 인근을 내려다보며 전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오우덴 중령은 일단 대대 병력을 A중대와 B중대로 나눈 뒤 섬강 강변을 따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A중대는 전선의 서쪽 방면과 황성교회 방어를 맡았고, B중대는 북·동쪽 방면에서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오우덴 중령은 섬강 강변을 따라 기관총·박격포 부대를 배치하여 적들을 포격했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오우덴 중령이 이끄는 네덜란드 대대는 밀려드는 중공군에게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 오우덴 중령(Marinus Petrus Antonius den Ouden). 황성 전투 당시 소령 계급이었지만 전사 이후 1계급 특진하였다.



▲ 오늘날 황성감리교회 건물. 지금도 황성읍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 횡성 전투 도중 휴식을 취하는 네덜란드 대대 병사들의 모습이다.

후퇴하는 아군을 보호하면서 밀려드는 적들을 막아내야 하는 임무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월 12일 오전부터 산발적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정오를 전후하여 섬강변 전체에서 치열한 혈투가 전개되었습니다. 횡성 시내 곳곳에 적들이 쏜 포탄과 총알이 박혔습니다. 지휘소로 쓰던 횡성교회 건물은 적들의 포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지휘소에 있던 오우덴 중령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우덴 중령은 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앞으로 나서서 부하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9시경, 오우덴 중령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대대 지휘소 앞으로 50~60명이나 되는 정체불명 병력이 접근해 왔습니다. 당시 지휘소 앞의 경계병은 이들을 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사격을 가했습니다.

‘탕! 탕! 탕!’

그러자 이들이 외쳤습니다.

“Okay, Okay, ROKS! (괜찮아, 괜찮아, 국군이다!)”

경계병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사격을 멈추었습니다. 오우덴 중령은 통역관을 보내서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역관이 접근하던 그때, 정체불명의 병력이 본색을 드러내며 네덜란드 대대 지휘소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공군 기습 부대였습니다. 순식간에 지휘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작전 장교는 무전으로 위급한 상황을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공군이 투척한 수류탄이 지휘소 내부로 날아왔습니다.

‘펑!’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오우덴 중령은 수류탄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지휘소 요원도 크게 다쳤습니다. 지휘관이 전사한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대대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오우덴 중령이 전사한 시점은 국군과 미군 부대의 철수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즉각 네덜란드 대대 예하 A중대와 B 중대에도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전기 고장과 통신 불량으로 철수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발생했지만, 밤 11시경에는 대부분의 병력이 무사히 횡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대대는 철수가 시작된 1951년 2월 12일 이른 오전부터 그날 자정까지 무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횡성을 사수하였습니다.

횡성을 지키는 하루 동안 네덜란드 대대에서는 지휘관 오우덴 중령이 전사한 것을 비롯하여 47명의 사상자(전사 10명, 부상 28명, 실종 9명)가 발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국군과 유엔군은 그나마 전멸을 피하고 남은 병력을 보존하여 원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 1951년 3월 8일, 부산 유엔묘지에서 거행된 오우덴 중령의 장례식 모습.

아군이 횡성을 빠져나가자 엄청난 규모의 공산군이 횡성에 입성하였습니다. 마치 갯벌에 밀물이 들어차는 듯했습니다. 이제 공산군의 다음 목표는 원주였습니다. 그들은 원주를 수중에 넣은 뒤 수도권 서부전선의 측·후방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주 지역으로 철수한 아군 병력은 공산군의 후속 공격에 대비하여 이미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공산군은 원주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그들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횡성 철수 작전의 성공이 이후의 전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중공군 측에서는 횡성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 횡성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했으며, 후퇴한 적이 다시 원주 지구에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輯委員會) -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와 공훈

횡성 전투 이후에도 6·25 전쟁 내내 네덜란드 대대는 한반도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활약상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전투	내용
1951.5.16. ~ 5.22.	가리산 전투	홍천·인제 부근에서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함.
1951.5.31. ~ 6.8.	인제 전투	전술적 요충지인 인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함.
1951.7.15. ~ 8.6.	대우산 전투	미군 대대를 지원하여 양구 대우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함.
1951.10.3. ~ 10.15.	문등리 전투	북한군과 고지전을 벌여 양구 북쪽 문등리 '단장의 능선'을 점령함.
1952.2.18.	별고지 전투	강원도 철원·평강 인근 별고지를 기습하여 적을 격퇴하고 점령함.
1953.7.13. ~ 7.27.	묵곡리 전투	서방산 남쪽 묵곡리·하진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방어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힘.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네덜란드 대대는 바로 본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휴전선 인근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진지²⁵를 건설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대대는 1954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작전 임무를 완료했고, 10월 17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24일 참전을 위해서 본국을 떠난 지 꼭 3년 11개월 20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 연인원²⁶으로 총 5,322명이 참전하였고, 초대 대대장 오우덴 중령을 비롯한 6명의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전쟁 기간 중 네덜란드 대대가 입은 피해 규모는 총 768명이었습니다. 오우덴 중령을 비롯한 120명이 전사하였고, 64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명이 공산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부상자 중 91명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25)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설비 또는 장비를 갖추고 군부대를 배치하여 둔 곳.

26)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신고하는
네덜란드 대대의 모습. (1954. 10.) ©국가보훈부

이러한 네덜란드 대대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 유엔에서는 수많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남구에 자리한 유엔기념공원에 네덜란드 묘역을 조성하고 참전 용사 유해 117구를 봉안하여 그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기념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표창 및 훈장 종류		회수
부대표창	대한민국 대통령		1
	미합중국 대통령		2
무공훈장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18
		화랑무공훈장	22
	미합중국	Silver Star	14
		Bronze Star	64
		Legion of Merit	4
	네덜란드	Military Willemsorde 4th Class	3
		Bronze Cross	19
		Bronze Lion	5
		Cross of Merit	4
종군기장	국제연합	유엔종군기장	부대원 전원
	대한민국	6·25종군기장	
	네덜란드	The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	

▼ 재한유엔기념공원
네덜란드 묘역
©재한유엔기념공원



오늘날 황성에 사는 우리는 네덜란드 대대와 황성 전투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덜란드 대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황성 땅에서 지금처럼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황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황성참전기념공원에 방문해 보면 네덜란드를 형상화한 풍차 모양의 기념비와 함께 오우텐 중령이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주말에 한 번쯤 이곳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역만리 타지에 와 일면식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숭고하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6절 전선의 고착화와 휴전

기적의 지평리 전투와 서울 재탈환

황성 전투에서 승리한 중공군은 기세를 몰아 수도권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원주와 양평 지평리를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에는 이미 미군의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대대의 활약으로 황성에서 무사히 후퇴한 미군 부대가 신속하게 방어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공군의 원주 공격은 허무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중공군은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만 입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터화이는 마지막으로 양평 지평리만은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터화이는 지평리 방면에 동원 가능한 중공군 3개 사단 50,000여 명의 병력을 총집결시켰습니다.

중공군의 총공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평리를 지키는 미 제10군단 예하 2사단 23연대 미군과 프랑스 대대의 병력은 5,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평리를 공격하는 중공군은 50,000여 명에 달했으니 10배의 병력 차이가 났습니다.

▶ 1951년 2월 13일, 지평리 전투가 발발하기 직전 미 제23연대 전투단 장병들이 진지에 기관총을 배치하고 대기 중이다.



하지만 미군과 프랑스군은 원형방어진을 만들어 철통같이 지평리를 방어했고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혈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미 제9군단 특수임무대가 지평리에 추가 투입되자 중공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전략과 병사들의 기적과도 같은 활약에 힘입어 아군이 지평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군의 피해는 사망 52명, 부상 259명 등에 불과하였지만 중공군의 피해 규모는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원주와 지평리를 사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병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북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험한 강원도 산악 지대에서 중간중간 큰 위기도 있었지만, 국군과 미 제1해병사단, 영국군의 활약에 힘입어 아군은 마침내 횡성과 평창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동부전선에서 미 제10군단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자, 서부전선의 사기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서울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 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강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서부전선 병력이 직접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한강 폭은 1km 이상으로 건너기 매우 힘들었고, 이미 적들이 방어기지를 다수 건설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구상하였습니다. 리퍼는 우리말로 ‘절단자(짚는 사람)’라는 뜻으로, 작전의 핵심은 서울 동쪽의 중부전선에서 가평·춘천까지 전선을 찢고 올라간 뒤 고립된 서울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3월 7일, 본격적으로 리퍼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리지웨이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중부전선의 춘천까지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안전하고 천천히 북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지웨이의 작전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적들을 섬멸하며 북상하였습니다. 적들은 전선에 파고들 틈이 없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14일, 홍천을 탈환하였고 3월 20~21일에는 목표했던 춘천까지 점령에 성공하였습니다.

중·동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에 중공군은 이미 3월 11일 서울을 포기하기로 하고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3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별다른 저항 없이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입성하였고, 이로써 서울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이후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루먼 대통령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진지하게 휴전을 고려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지자 국내외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맥아더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맥아더는 아군이 중국 영토까지 진출하면 중공군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맥아더의 이러한 행동은 트루먼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 서울 재수복과 정전 협정의 조인
©금성출판사

▲ 지평리 전투에서 미군과 프랑스군이 구축한 원형방어진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 개입에 대한 오판과 월권적 행위를 이유로 1951년 4월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에서 전격 해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유엔군 사령관에는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임명되었습니다.



◀ 서울 재탈환을 위해 한강을 건넌 뒤 마포로 진격하는 제1사단(1951.3.14.)
©재한유엔기념공원



▶ 서울 재탈환에 감격하여 노파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1951.3.15.)
©재한유엔기념공원

전선의 고착화와 휴전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한 이후 크고 작은 전투들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전선은 대개 38선 부근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1951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경계선(국경선)을 정하는 문제, 이후에는 포로를 석방하는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공산군 측은 포로의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습니다. 포로의 국적에 따라 당사국으로 바로 송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엔군 측은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포로가 원하는 나라로 송환하는 자유 송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1953년까지 휴전 논의는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도층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 국경의 병사들은 1보 전진 1보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 양측의 병사들은 의미 없는 전투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고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을 오래 끌어 이익을 볼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 3월에 들어 휴전회담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포로 송환에 관해서는 일단은 자동으로 송환하되, 자동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에 맡겨 관리하자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소련은 이미 휴전에 동의했고 미국 또한 휴전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 송환 협상은 물론이고 휴전회담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휴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처럼 휴전에 반대하였던 이유는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중국·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향후 북한이 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생각 등 때문이었습니다.



▲ 2011년 개봉한 영화 '고지전'. 1953년 2월,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부전선의 최전방 애록 고지에서 아군과 북한군이 한 뼘의 땅을 탈환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역시 전쟁을 끝까지 해서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부는 아예 휴전회담의 한국 측 대표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휴전 협상이 지속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3년 6월 18일부터 이틀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 반공포로²⁷의 석방을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휴전 협상에서 포로 송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측과 아무런 논의 없이 포로들을 그냥 석방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였습니다.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반공포로들은 경비병의 목인 아래 수용소를 순조롭게 탈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석방된 반공포로만 27,0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휴전에 반대하였던 한국 국민은 포로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숙식을 제공해 주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포로들을 영웅으로 대우하기도 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공산군 측은 큰 분노를 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이 사건이 관련 없음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 반공포로 수용소를 시찰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의 모습. 포로들이 만세를 부르며 이승만 대통령 부부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27)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북한 출신의 전쟁 포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치열한 협상과 설득 끝에 7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장기간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며, 한국군 증강을 위해 지원한다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휴전 협정(정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유엔군 대표가 서명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휴전협정의 조인(1953.7.27.)

©재한유엔기념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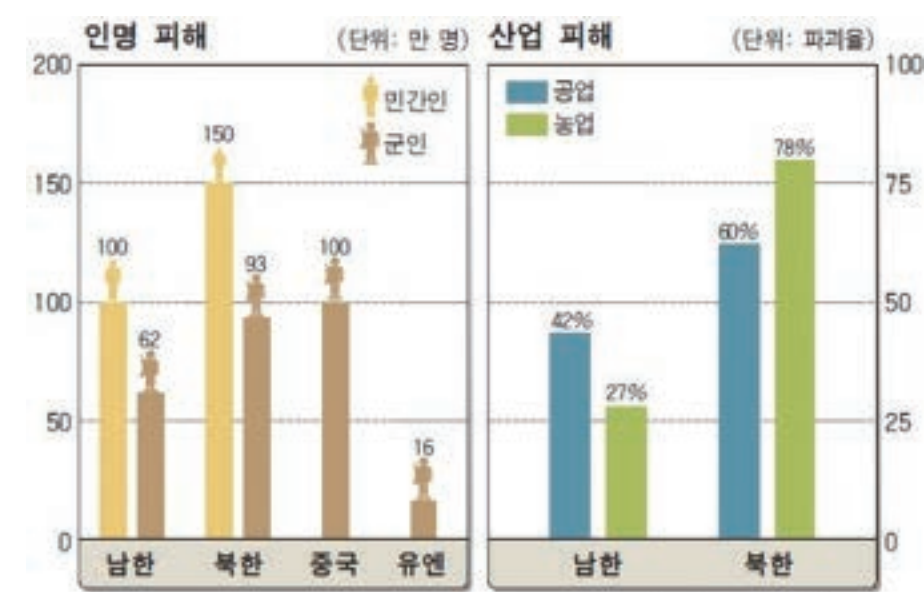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정전 협정)이 체결되며 드디어 3년 1개월에 걸친 비극적인 동족 산장의 전쟁이 중지되었습니다. 협정문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이 서명하였습니다.



▶ 군사 분계선(휴전선)

©금성출판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쟁



▲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산업 피해
©국방부 군산편찬연구소

전쟁이 비로소 중단되었지만 3년 1개월여에 걸친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4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의 피해는 전사, 부상, 실종 등을 통틀어 621,479명에 달하였습니다. 유엔군의 피해를 보면 153,959명이 죽거나 실종, 혹은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는데 사상 및 실종 등 피해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산군의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북한군 60~8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민간인 손실은 150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중공군의 경우에도 100만 명 가까운 병력이 죽거나 다치는 인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3년 만에 한반도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물적 피해도 심각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학교, 병원, 교회, 민가 등 무수히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로, 다리, 공장 등의 사회 경제 기반

시설(SOC)²⁸이 소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사람들은 지역을 이동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 편리하게 이동하기 힘들었고, 작은 하천 하나도 건너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습니다. 남한만 해도 휴전 직후 거리에 떠도는 부랑자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 6·25 전쟁 중 파괴된 송례문(남대문)의 모습

▼ 포격과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전쟁기념관



28)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 붕괴된 평양 대동강 철교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주민들

▼ 미군의 M46 패튼 전차 앞에 서 있는 피난민의 모습. 6·25 전쟁을 상징하는 사진이다.



▼ 북쪽으로 진군하는 국군과 남쪽으로 피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 폭격 직후 평양 시내의 모습. 잿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 KBS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전쟁 중에 어진 가족들이 만나 부둥켜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방송공사(KBS)

인적·물적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신적 피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난 과정에서 휴전선을 넘지 못해 남과 북에 가족이 따로 살게 되거나, 남쪽이나 북쪽에 함께 있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평생 보지 못하고 안부도 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처참했던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증오감과 불신, 적대감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이 자라나 남에서는 북을 향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였고, 북에서도 남을 향해 ‘친미제국주의자, 반동분자’라고 힐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 형성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선동하였습니다. 남과 북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권력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 이산가족 등록 생존자 현황
©통일부

이렇게 6·25 전쟁이 남기고 간 아픔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6·25 전쟁 중 있었던 우리 국군의 활약과 유엔군의 도움, 네덜란드 대대의 활약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대대를 비롯한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와 횡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순국하신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며 피를 흘려야만 했던 당시 상황에 큰 안타까움과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사는 이유도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싸우는 이유는 중요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자들이 내 친구,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라는 증오와 복수심만 남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짓던 어머니,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농부 등 무수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니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에 익숙해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6·25 전쟁은 반론의 여지 없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북한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전쟁을 하자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저자들이 먼저 잘못된 건데 그냥 밀고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고 통일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장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쟁은 비참한 것이고 슬픈 일이며 너무나 많은 희생을 불러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장을 읽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 용사님들을 기억하는 한편, 전쟁에 대해 쉽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는 글

지금까지 선사시대부터 현대 6·25 전쟁까지의 횡성 역사를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횡성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너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의 생일은 챙기면서 가족의 건강이나 마음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기도 하지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품을 들여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아껴야 함에도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횡성에 대해 알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횡성. 항상 곁에 있고, 그래서 어쩌면 세상 모든 것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횡성. 횡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주고 아껴줄 사람은 횡성을 살아가는 ‘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그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책을 읽은 모든 분의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횡성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조금은 더 횡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 저자 오 겹



참고 문헌

* 논문

- 김영환, 「6·25전쟁기 네덜란드 참전에 관한 연구: 횡성전투 시 철수엄호 작전을 중심으로」, 육군군사연구소, 2020
- 김윤선, 「풍수원 천주교 공동체와 교우들의 삶 -문학으로 만나는 풍수원 천주교 공동체-」,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 김정숙, 「풍수원 성당의 역사와 그 역할」,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 금경숙, 「풍수원 본당의 학교 운영 -강원 산간 지역의 근대교육-」,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 이성희, 「풍수원 성당과 정규하 신부 -첫 한국인 본당 사제의 사목 활동-」,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2019
-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1996
- 신용하, 「민공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 심철기, 「1905년 원용팔 의병의 창 의와 운동방략」,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 심철기, 「1907년 원주의병의 쇠퇴와 새로운 항일투쟁의 전개」, 『역사와 교육』 22, 역사와교육학회, 2016
- 이상균, 「6.25전쟁 개전초기 강원지역 전황과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참전」, 강원문화연구, 2021
- 전종순, 「횡성전투의 재조명 -홍도산, 국사봉 전투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2013
- 최석우,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과정」, 한국교회사연구, 1981

* 단행본

- 강대덕, 박정수, 최창희, 2003 『횡성 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5,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강준만, 2007, 『한국 근대사 산책 2』,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7, 『한국 근대사 산책 3』, 인물과사상사
- 구자룡, 2023, 『정전 70년의 현장,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화정평화재단
- 김형중 외, 2019, 『(중학교) 역사 교과서 1』, 금성출판사
- 김형중 외, 2019, 『(중학교) 역사 교과서 2』, 금성출판사
- 김형중 외, 2019,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 김동정, 2015,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6,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7, 『횡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7, 『횡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8, 『횡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 횡성문화원

- 김동정, 2019, 『향토지를 통해 본 횡성군』, 횡성문화원
- 김범철, 성춘택, 천선행, 2021, 『고고학자가 얘기하는 우리의 선사시대』, 진인진
- 김성수, 2018, 『아, 1919 삼일의 불길』, 횡성문화원
- 김육훈, 2011,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 고재홍, 2007, 『한국전쟁의 원인 - 남북 군사력 불균형 -』, 한국학술정보
-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 『횡성 둔내유적』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2권 -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3권 -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4권 - 초기국가 - 고조선·부여·삼한』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39권 -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40권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42권 - 대한제국』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43권 - 국권회복운동』
- 국사편찬위원회, 1993~2002, 『(신편)한국사 47권 -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국토지리정보원, 2015,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자료집 1』,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3 - 의병항쟁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4 - 3.1운동사 자료집』, 국가보훈처
- 박동찬, 2014,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박미현, 2009,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횡성』, 횡성문화원
- 박순업, 정재영, 2020, 『6·25전쟁 증언』, 횡성문화원
- 박일송, 양영조, 손규석, 2010,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 국가보훈처
- 서종석, 202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개정증보3판), 웅진지식하우스
- 송준, 2016, 『강원도 비림에 숨겨진 보물, 풍수원성당』, 횡성군
- 와다 하루키, 2023,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 육군군사연구소 역, 2009,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쟁경험총결편집위원회(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輯委員會)』, 육군군사연구소
- 의암학회, 2007, 『국역 의암집1』
- 이상태, 고혜령 외 3명, 2023, 『대동지지 책 5: 강원도』, 경인문화사
- 이영식, 2001,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 이은석, 2006,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 정토웅, 2010, 『세계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 조동걸, 1972 『횡성과 三·一운동』, 횡성문화원
- 차기진, 1988, 『교회와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초등역사교사모임, 2017, 『처음 세계사 10: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 주니어RHK

최복규, 최승엽, 1998, 『횡성 현천리 구석기유적』, 강원고고학연구소

최준채 외, 201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피정만, 2010, 『한국 교육사 이해』, 하우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한국천주교회사 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한국천주교회사 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한국천주교회사 3』(개정판)

홍영호 외 4인, 2017, 『(고등학교) 강원역의 역사와 문화』, 강원도교육청

횡성문화원, 1996, 『사진으로보는 횡성의 문화유산』

횡성문화원, 1998, 『횡성의 전설과 설화』,

횡성문화원, 1999,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참고 자료(사료, 기사, 영상 자료 등)

* 한국사 총설 DB

『삼국지』 위서(魏書) 30 동이전(東夷傳), 한(韓), 侯準이 참람되이 王이라 일컫다가

『삼국지』 위서(魏書) 30 동이전(東夷傳), 한(韓), [韓은] 漢나라 때에는 樂浪郡에 소속되어

『후한서』 동이열전(東夷列傳), 한(韓), 韓은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馬韓,

『續陰晴史(속음청사)』 卷八(권팔)

『梅泉野錄(매천야록)』 제2권, 高宗 32년 乙未(1895년), 고종의 단발과 단발령 시행

* 한국 고대사료 DB

『삼국유사』 권제1, 제1 기이(紀異第一), 고조선(古朝鮮) 왕검조선(王儉朝鮮),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다

『제왕운기』 권하(卷下),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삼국사기』 잡지 제4, 지리(地理)二 신라(新羅) 삭주

『삼국사기』 잡지 제6, 지리(地理)四 고구려(高句麗) 우수주의 주·군·현·성

* 고려시대 사료 DB

『고려사』 권2, 태조(太祖) 23년, 지방행정단위의 이름을 고치다

『고려사』 권58, 지 권제12, 지리3(地理三), 춘주, 횡천현

*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0일 1번째 기사,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 및 교수관·훈도관 등의
칭호를 바꾸다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2번째 기사, 윤지충과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다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7일 계미 1번째 기사, 평안 감사가 평양 백성들이 서양배를 불사르고 영국
사람 최난헌을 죽였다고 보고하다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3월 4일 계묘 5번째 기사, 중일 조약을 체결하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2일 양력 1번째 기사,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산호만세 등을 창하다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 양력 1번째 기사,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하다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24일 양력 2번째 기사, 한일 협약이 체결되다

*** 한국 근대사료 DB**

근현대잡지사료 『개벽』 제42호(1923.12.01.), 嶺西八郡과 嶺東四郡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장도훈(張道勳)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신재근(申在根)

*** 춘천디지털기록관**

『(국역)의암집 1』, 권45, 「격고팔도열읍 檄告八道列邑」

***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2·8 독립 선언서」
「3·1 독립 선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즉결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1910. 12. 15. 제정)
「조선태형령」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2. 3. 18. 제정)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3일 자 2면 기사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 자 1, 2면 기사
『매일신보』 1919년 1월 23일 자 기사
『조선신문』 1934년 9월 16일 8면 기사
『황성신문』 1905년 10월 3일 자 2면 기사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 자 1, 2면 기사
『황성신문』 1907년 11월 10일 자 기사

*** 신문 기사**

가톨릭평화신문 “신부님을 보내 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2024.03.06.)
강원일보 “4월 1일은 횡성군민의 날”(2005.11.05.)
강원일보 “횡성군민의 날 6월 18일로 변경”(2007.03.28.)
강원일보 “횡성 도덕고개 이름 바뀔주오”(2007.12.12.)
강원일보 [포토뉴스] 제17회 횡성군민의 날 기념식(2024.06.18.)
강원도민일보 “횡성 금대리 의병총제례”(2019.10.29.)
강원도민일보 “생명을 살리는 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기를”(2023.06.09.)
강원도민일보 “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 성황”(2024.06.19.)

*** 영상 자료**

국방홍보원 KFN-TV 역전다방 135화, 136화, 137화
KBS1 지명수배 ‘병지방리 태기왕 편’(2019.10.2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위키백과
금성출판사 티칭백과

*** 횡성군 윤병철 문화관광해설사(유현 문화관광 단지) 해설**

참고 포털 사이트 및 주소

가톨릭평화신문

(<https://news.cpbc.co.kr/newspaper.html>)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

강원일보

(<https://www.kwnews.co.kr/>)

국가기록원 6·25전쟁

(<https://theme.archives.go.kr/next/625/viewMain.do>)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government/viewMain.do>)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http://mfis.mpva.go.kr/main/main.do>)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ROYAL/main/index.do>)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gorye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joseon/>)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근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moder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 총설 DB

(<https://db.history.go.kr/diachronic/main.do>)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s://imhc.jams.or.kr/co/main/jmMain.kci>)

국방홍보원

(<https://www.dema.mil.kr/web/main.do>)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index.php>)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cms/page/reunion/view.do?mid=REUNION>)

다부동전적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dabu.or.kr/ver2/main/index.php>)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https://www.army.mil.kr/sites/army/index.do>)

독립기념관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http://sajeok.i815.or.k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main.do>)

독립신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https://www.nmkpg.go.kr/webzine/story/index.do>)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s://www.much.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홈페이지
(<https://dolmen.or.kr/>)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인천상륙작전기념관
(<http://www.landing915.com>)

재한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s://www.unmck.or.kr/kor/main/>)

전국선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jgpm.ggcf.kr/>)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https://www.warmemo.or.kr>)

제주 4·3 아카이브
(<http://www.43archives.or.kr/main.do>)

제주 4·3 연구소
(<http://www.jeu43.org/index.php>)

춘천디지털기록관
(<http://cc-archives.or.kr/>)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https://phoko.visitkorea.or.kr/main/index.kto>)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횡성군청 누리집
(<https://www.hsg.go.kr/www/index.do>)

횡성문화원
(<http://www.hs-culture.or.kr/main.php>)

KBS 3.1절 100년 특집
(<https://samil-100.kbs.co.kr/news/desktop-main-no-skip.php>)

향토사료 제42집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인 쇄 | 2024년 11월

발 행 | 2024년 11월

발행인 | 우광수

편저자 | 오겸

발행처 | 횡성문화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 3로 6 / T. (033)343-2271

인쇄처 | 강원일보 출판기획국